



6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6호

(루계 452)



◆◆◆◆◆◆◆◆ 차 례 ◆◆◆◆◆◆◆◆

보천보의 밤	4
위대한 령도따라 우리 소설문학이 걸어온 영광의 40년	5
우러르는 마음 *외 1 편Ä	13
웃으려 웃으려 해도	13
그 대양. 그 대오 속에 *외 1 편Ä	14
아, 해당화	14
메 아 리	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1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시	19
친애하는 그이를 위하여	20
봄에도 눈보라소리 겨울에도 꽃향기	20
새 기상 약동하는 동력기지에서	21
수 평 선	23
시간이여 우리를 따라오라	24
대지의 표정	33
병사의 발걸음소리	38
여기 룡성으로 오라 ! *외 1 편Ä	39
사랑한다, 네 고운 눈	39
조국의 큰자욱 새겨주시며	40
간석지천리벌에 수령님 모시리	40
힘	41

높은 령마루에서	43
검덕산에 올라	52
철산령 사람들 *외 1 편Ä.....	52
쇠 둘	53
영 응 *외 1 편Ä.....	53
다섯전사 전호속에 있었다.....	54
땀	54
두갈래 봇나무 *외 1 편Ä.....	55
그대 때로 멀리	55
빛나라 영웅의 산아	56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봄우뢰》를 출판	59
형제의 나라 쏘련에서	61
살구꽃 필 무렵	63
승미사대주의사상과 분렬주의를 고취하는 남조선의 부르쵸아반동문학	72
반와트의 전기를 두고	77
내 마음은 너	79
은방울꽃뿌리	79
젊어지는 나날에	80

보천보의 밤

박희구

그 밤의 그 화광이 어려와
이리도 가슴 후터워지는가
그 밤의 그 영상 우러르니
더더욱 눈시울 뜨거워지는
보천보의 이 밤

언제였던가
내 어머니 등에 업혀
하늘에 치솟는 항일전의 불길따라
키를 솟구며 손을 흔들며
장군님 우러러
작은 목소리도 합쳐
만세의 환호를 터치던 그 밤은...

그날의 그 별거숭이 아이
이제는 귀밑머리 희숙한 시인이 되어
우러러 눈굽을 적시건만
그날의 젊으신 그 모습으로
오늘도 군복을 입으신채
혜불 타고르던 그 밤을
이 땅에 펼쳐주시는 수령님

높이 드신 저 손길로
망국의 비운 서린
캄캄한 밤하늘을 불사르시며
광복의 러명
투쟁의 불씨
겨레의 가슴가슴에 안겨주시던 그 음성
나의 귀전에 메아리쳐와라

죽지 않는 민족의 정신을

살아있는 조선의 기상을
아, 활화산인양 터져오르는 항일의 혜불로
온 세상에 보여주며 선언하신
보천보의 그 밤이여

빛발치는 화광에
번뜩이며 움썰거리는 밤바다런가
재생의 숨결 몰아쉬던 그 군중의 파도속에
내 지금 서있는듯

높뛰는 이 가슴에 손을 얹으니
생각되여라
나의 심장속에
그 밤부터 미래가 고동쳤고
나의 눈에 비긴 그 밤의 광명은
하늘의 해도 줄수 없었던것이라고...

그 역만의 불꽃마저 별무리되어
조국의 머리우에 저렇듯 찬란한
불멸의 그 밤이 있어
창밖은 내 집에도 행복의 밤이 흐르고
창조의 노을이 불타는 새날과 함께
나의 시 불새되어 나래칠수 있나니

나의 시줄우에
이 땅에 흐르는 낮과 밤들에
온 지구를 진감하며 굽이치는 자주의 격류우에
아, 그 장엄한 혜불의 붉은 화광 던져주시며
혁명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
그날의 그 모습으로 높이 서계시는
보천보의 밤이여 빛나라, 영원히 !

위대한 령도따라 우리 소설문학이 걸어온 영광의 40 년

은종섭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40년세월, 식민지의 폐허에서 주체의 강국으로 세기적비약을 이룩한 영광스러운 조국과 더불어 우리 소설문학도 참으로 자랑스런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개혁의 주인공과 더불어 자기발전의 새 력사를 시작한 우리 소설문학이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거대한 서사시적화폭에 전면적으로 재현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빛나게 창조하는 높은 사상에 예술적경지에 올라섰으며 사람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생활과 투쟁의 위력한 교과서로 되고 있다.

이 거창한 비약의 40년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소설문학이 조국의 통성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해온 영광스럽고 보람찬 나날이었으며 값있고 향기로운 열매들로 주체소설의 과원을 풍성하게 꾸려온 공지높은 성장과 번영의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 문학의 사명과 발전방향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소설문학앞에 나선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시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소설문학건설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세심하게 보살피시면서 곧바른 승리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뜨거운 사랑속에 소설가들의 대오가 튼튼히 꾸러지고 사상적각오가 높고 정치실무적으로 믿음직하게 준비된 혁명적인 창작력량으로 자라났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소설문학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 소설문학은 참다운 로동계급의 소설문학, 당적이며 혁명적인 소설문학의 빛나는 본보기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파시하고 있다.

(1)

우리 소설문학은 해방후 첫날부터 주체의 혁명위

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소설문학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왔다.

혁명과 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혁명문학건설의 심오한 사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직후에 벌써 주체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으로써 계급문화 아닌 《민족문화》를 떠들고 무사상적인 《순수문학》을 꿈꾸던 온갖 반당반혁명분자들과 부르조아 작가, 예술인들의 초계급적이며 반인민적인 견해를 단호히 짓부시고 해방된 조선에 새롭게 건설해야 할 문화의 성격과 그 발전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이 빚어낸 모든 후과를 철저히 가시고 인민에게 복무하며 새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까.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 《민주건설의 현계단과 문화인의 임무》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에서 문학은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명시하시고 작가들에게 투사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새 조국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긍정적주인공들의 전형을 창조하며 민주주의적변혁을 옹계 반영한 인민적인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서 소설발전의 확고한 지침을 받아안은 창작가들은 혁명적자부심과 열정에 넘쳐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새로운 소설문학의 창조와 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이 시기 소설문학발전의 새로운 면모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의 전형적형상을 창조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형상적화폭의 중심에 처음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들어온 로동자, 농민의 전형을 내세우고 그들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주인다운 사상정신적면모를 예민하게 포착하여 생신한 필치로 부각한것은 이 시기 소설의 공통특성으로 되고있다. 토지개혁이라는 천지개벽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우리 농민의 첫모습을 인상깊게 보여준 단편소설 《개벽》(리기영)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세찬 불길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정신적면모

를 부각한 단편소설 《로동일가》(리복명), 《탄맥》(황건), 《호랑령감》(천세봉) 등은 그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은 또한 변혁과 창조로 들끓는 장엄한 현실을 강렬한 생활긍정적기백과 락천적정서속에 반영함으로써 현실공정의 문학으로서의 새로운 성격과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있다.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소설문학의 대표적인 성과작은 장편소설 《땅》(리기영)이다. 소설은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해방전의 머슴군으로부터 땅의 주인으로 되고 땅원으로 도민인위원회 대의원으로 어엿하게 자라나는 주인공 팍바위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토지개혁으로 우리 농민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근본적전환과 그들의 자랑찬 성장의 역사를 빛나게 전형화하였으며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는 우리 나라 농촌현실을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폭넓은 예술적 화폭으로 재현하였다. 소설은 솔버덩개간공사를 발기하고 앞장서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팍바위의 미더운 모습과 애국적열정, 여기에서 발현되는 창조적지혜와 놀라운 힘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부각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은덕에 어떻게 하나 보답하려는 우리 농민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가슴뜨겁게 보여주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속에서 발현되는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확인하였다.

이 시기 소설문학은 또한 《그 전날밤》(리동규), 《제2전구》(박태민)를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싸우는 남반부인민들을 고무하고 북반부인민들에게 남조선문제에 대한 관심과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온 《지질기사》(윤시철)를 비롯한 적지 않은 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해방위업을 피로써 도와주고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을 성심성의로 방조하여준 쏘련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소설문학은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복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준엄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차례 작가예술인들을 만나시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문학예술의 기본임무를 명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뚜렷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예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비롯한 력사적로작들에서 문학작품에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대중적영웅주의를 옹계 형상하며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

여주고 적에 대한 불붙는 증오심을 불리일으키는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사실주의적형상창조의 미학적원칙들을 심오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소설가들은 펜대를 총으로 삼고 포연탄우를 헤치며 영웅전사들과 후방인민들속에 들어가 함께 싸우면서 그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영웅적투쟁모습을 생동한 화폭속에 담아나갔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소설문학이 거둔 가장 중요한 창작적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속에서 비로소 인간적존엄을 찾고 참된 행복을 누려온 인민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발휘하는 무적의 힘과 영웅적위훈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천명한 데 있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황건)과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천세봉)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불타는 섬》은 월미도를 지켜 싸운 리대훈해안포중대원들의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미제를 타승한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빛나게 전형화하였으며 《싸우는 마을사람들》은 해방후 땅의 주인으로 참된 행복을 누려온 농민들이 전략적후퇴의 그 준엄하고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고마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희생적으로 싸웠는가 하는것을 다양한 인물형상을 통하여 비교적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소설문학의 성과작들에는 또한 인민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도를 감명깊게 보여준 《구대원과 신대원》(윤세중), 전시생산을 위한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세계를 형상한 《회신속에서》(류근순), 미제의 포악성과 야만성을 적라라하게 폭로한 《승냥이》(한설야) 등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작가들은 전투적인 단편소설들뿐아니라 전선실기, 종군기 등 전선용사들의 전투적위훈을 민감하게 반영한 기동적인 실험문학들을 활발히 창작하여 인민군대와 후방인민들을 전쟁승리로 힘있게 고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는바 《바다가 보인다》(김사량), 《해방된 서울》(리동규), 《미군격멸기》(남궁만)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폐허우에 사회주의 새생활을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강령을 펼쳐주시고 이 거창한 위업을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면서 문학예술앞에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사회주의혁명이 급속히 추진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시기 소설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영웅적로력투쟁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조선사람의 새로운 정신적면모와 단련된 힘을 탐구묘사하는데 창조적관심을 돌렸다. 단편소설 《직맹반장》(유항림), 《빛나는 전방》(변희근)과 장편소설 《시련속에서》(윤세중)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과작품이다.

《시련속에서》는 전후복구건설시기 강철부문 노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하면서 철증산과 관련된 생산기술적문제를 리기와 보수, 공명과 출세 등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해나가는 인간문제로 전환시키고 림태운, 김유상과 같은 생동한 시대적전형을 창조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김유상의 형상에 구현된 조선노동계급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 진취적기백에는 전쟁을 이겨낸 조선사람의 새로운 사상정신적면모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있다.

이 작품은 생산문제를 취급한 소설들에서 도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 시기 소설가들의 창조적 노력이 맺은 열매의 하나라는데서도 의의를 갖는다.

수천년간 내려온 낡은 생산관계의 근본적변혁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인 투쟁을 서사적 화폭에 형상한것은 이 시기 소설문학이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로 된다. 비교적 췌인 구성과 개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를 자랑차게 확정한 중편소설 《첫수확》(리근영),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와 농업협동조합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을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형상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1. 2부(천세봉)가 여기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 시기에는 또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받들고 해방후의 혁명투쟁을 취급한 장편소설 《개마고원》(황건)을 비롯하여 장편력사소설들인 《두만강》(리기영)과 《서산대사》(최명익), 중편력사소설 《임오년의 서울》(최명익) 등이 창작되었다.

그중에서도 3부작으로 된 장편소설 《두만강》은 근세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력사를 전개된 예술적화폭속에 폭넓게 형상한데서나 력사소설의 면모를 갖추는데서나 해방후 소설문학이 거둔 의의있는 수확의 하나로 된다.

전후시기 소설문학을 항일혁명전쟁시기에나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나 한전호수에서 어깨걸고 함께 싸운 조종인민들간의 전투적친선관계를 형상한 소설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는데 《왕따마》(리영규)는 그 우수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의 생활과 운명속에서 그린 장편소설 《동틀무렵》(엄홍섭)도 이 시기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전면적으로 승리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 소설문학앞에는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새롭고 중대한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 소설 문학의 사명과 임무, 발전방향을 명시하시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 우리 혁명과새생활 건설의 참된 주인공과 천리마기수의 전형창조문제, 혁명적작품창작과 그 주제방향에 관한 문제, 혁명적대작창작에 관한 문제, 문학예술분야에서 소설창작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적소설문학의 발전과 창조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이 시기 소설가들은 심화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노동계급의 작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가르치심을 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소설문학발전에서도 새로운 양양과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 시기 소설문학발전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이 약동하는 천리마기수의 생동한 전형을 창조한데서 나타났다.

특히 현실주제단편소설창작에서 눈에 띄이는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길동무들》(김병훈), 《백일홍》(권정웅)을 비롯하여 《동지애》(김복향), 《애착》(최창학), 《령복땅》(리병수),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진재환) 등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정신적미를 탐구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이다.

혁명전통주제의 장편소설들이 련이어 창작된것은 이 시기 소설문학발전에서 이룩한 새로운 성과로 된다.

이 시기 창작가들은 사상사업에서 주제를 철저히 세우고 공산주의교양과 결부하여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리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주제의 소설을 활발히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정력적인 탐구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과정에 혁명전통주제작품을 본격적으로 창작하는 길에 들어섰다. 여기에서 특히 《청년전위》 1, 2부(림춘추), 《서광》(박달) 등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하여 창작된 장편소설들은 구체적인 력사적사실들과 실재한 원형에 철저히 의거하여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소설문학의 화원을 풍부히 하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한 작품으로 되었다.

장중편소설들이 활발하게 창작된것은 이 시기 소설문학발전의 면모를 보여주는 특징의 하나로 된다. 혁명전통주제의 장편소설들인 《아들딸》(황건), 《안해》(윤세중) 해방후 땅과 주권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날카로운 계급투쟁속에서 형상한 장

편소설 《대하는 흐른다》(천세봉),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적현실과 준엄한 불길속에서 성장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폭넓게 그린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석윤기)과 중편소설 《전사들》(석윤기), 《포성》(정창운), 《포화속에서》(김재규), 당과 수령에 대한 조선로동계급의 충실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정면에서 추구한 장편소설 《용광로는 숨는다》(윤세중)와 중편소설 《회답》(김홍무)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큰 형식의 작품창작에서 양양이 이룩된것은 혁명적소설창작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창작에 구현하기 위한 작가들의 창조적탐구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2)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이 시작된 역사적 시기에 우리 소설문학은 당의 향도따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일대 비약과 전환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모든 작가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소설창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드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을 참다운 로동계급의 문학, 주체의 혁명적문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시고 이 숭고한 역사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방도까지 완벽하게 밝혀주시였으며 종자론을 핵으로 하는 공산주의적창작론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소설리론을 내놓으시여 우리 소설문학을 명실공히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소설문학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해주시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현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나 창작기량의 측면에서나 몰라보게 성장한 우리 소설가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자기앞에 나선 무겁고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소설문학은 유구한 소설발전의 역사에서 전례없는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 이룩된 특기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소설로 옮기는 역사적과제를 훌륭히 수행한것이

다. 그리하여 혁명적문예전통을 더욱 빛내이고 혁명소설의 참다운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 시기 소설문학발전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창조에서 획기적전환이 마련된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령형상창조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소설문학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형상과제로서 지금까지 인류의 소설사는 이 문제를 거의 공백으로 남겨놓고있었다.

수령형상주제의 소설은 혁명적수령관 확립에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작품으로서 일반적인 역사적위인을 형상하는 소설이나 수령의 전기를 내용으로 하는 문학과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따라서 그 형상창조의 원칙이나 방도도 새롭게 탐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기본문제는 수령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하는 확고한 담보로 될 사상미학적원칙과 새로운 소설형식을 밝히는것이다.

비범한 예지와 위대한 심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소설문학은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역사적과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갔다.

당중앙의 가르침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수령님의 사상의 구현과정으로 그릴데 대한 문제, 최상의 높이에서 정중하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 위대성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격식화하지 말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 위대한 정치적령도자로서의 풍모와 함께 위대한 인간세계를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보여줄데 대한 문제, 중요한 역사적사실을 현실그대로 파고들어 형상할데 대한 문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할데 대한 문제 등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근본적인 사상미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었으며 그것이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이 시작되고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1932년》, 《고난의 행군》, 《대지는 푸르다》, 《근거지의 봄》, 《두만강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장편소설들이 련이어 세상에 나왔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과 수령님께서 혁명의 영재로 준비되여가시는 혁명적성장과정을 깊이 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 《동트는 압록강》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혁명사상과 고결한 풍모를 수령님의 불

면불휴의 혁명활동의 한 계기에서 감동깊게 부각한 《맑은 아침》(고병삼), 《크나큰 사랑》(리영규), 《력사의 자취》(권정웅), 《눈석이》(석윤기), 《철의 력사》(변희근), 《크나큰 힘》(최학수), 《해빛맑은 나라》(최학수), 《사랑의 품》(류도 회), 《태양을 우러러》(김수범), 《보통날 아침》(진재환), 《크나큰 아버지품》(리동구), 《거룩한 자옥》(박유학) 등 무수한 단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어나왔다.

이 모든 소설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불멸의 업적,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높은사상예술적경지에서 품위있게 형상한 혁명적작품들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든든히 무장시키며 우리 소설문학을 혁명적소설문학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특히 여기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방대한 서사시적화폭속에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재현하고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사업을 가장 높은 경지에 끌어올린 특출한 성과로 된다.

수령을 형상한 소설작품은 혁명투쟁의 어느 한 단면이나 혁명활동의 일정한 부분만을 그리는 단계를 벗어나 수령의 혁명력사와 혁명활동전반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포괄하는 대서사시적화폭으로 창조될 때에만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노는 수령의 결정적역할을 예술적으로 가장 힘있게 확증하고 혁명적수령관확립에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수령형상창조사업에서 가장 높은 요구로 된다. 이러한 요구는 기성의 다부작장편소설형식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구성과 방대한 용적을 가진 새로운 소설형식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당의 지혜로운 빛발속에 새롭게 탐구된 총서 《불멸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매 단계를 형상하고 사상예술적인 독자성을 가진 여러 장편소설들이 력사적순차에 따라 련결되고 전일적으로 집대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독창적인 소설형식이다. 총서에 속하는 매개 장편소설들은 형상적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높이 모시고 해당 혁명발전단계와 시기에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로 기본형상체계를 조직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당대의 중요한 력사적사변들을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를 꾸려나가면서 그것을 다양한 생활로 충만된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다. 이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가 비할바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불멸의 혁명업적, 한없이 고결한 품모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포괄하여 감동깊은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여주는 가장 우월한 소설형식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레하면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출하시고 백두산기슭에로 진출하신 1936년 3월~5월초까지의 혁명활동을 반영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관총 한문을 가진 10여명의 경위성원들을 이끄시고 남호두를 떠나 미혼진과 마안산을 거쳐 동강에 이르신 력사적진군로정과 이 과정에 있는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을 기본줄거리로 하고 남호두회의방침을 드림없이 관철해나가는 런대장 강세호, 경위중대장 리북철, 리경준과 그의 안해 최선금 그리고 《대통령감》 권학식, 장기령과 윤철녀 등의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면서 불과 2~3개월사이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새롭게 꾸리시고 조국광복회 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어 조선혁명의 새로운 일대 양양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다는것을 감동적인 생활로 충만된 예술적화폭속에서 힘있게 천명하고 있다.

《백두산기슭》뿐아니라 《준엄한 전구》, 《고난의 행군》, 《1932년》을 비롯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모든 작품들이 다 이러한 형상창조의 원칙을 개성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포괄적으로 형상하는 통일적구성에 맞물리면서도 사상예술적독자성을 가진 특색있는 장편소설들로 되고있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는 우리의 주체적인 소설문학이 도달한 사상예술적높이와 혁명적풍격을 뚜렷이 증시하는 불멸의 기념비이다.

총서의 창작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생동한 예술적화폭에 재현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생활그대로 가장 감동깊게 전면적으로 형상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당중앙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 소설문학이 로동계급의 문예사와 소설사에서 가장 어려운 미해결분야를 완전하게 개척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 시기 소설문학을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상)과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 그리고 다부작 장

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등을 내놓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사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여나갔다.

특히 최근년간에 우리 소설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명하신 품모와 숭고한 덕성을 감명깊게 형상한 단편소설들을 활발히 창작하여 단편소설집 《거룩한 자옥》, 《향도의 태양》, 《조선의 행복》, 《영광의 시대》에 묶어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은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 우리 소설문학이 힘있게 이바지하고 그 사상교양적의의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걸음을 내 디딘것으로 된다.

당의 령도밑에 일대 전성기를 이룩하며 발전한 우리 소설문학의 자랑찬 면모는 혁명투쟁주체와 사회주의현실주체 그리고 력사주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비약적성과를 이룩하고 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장중편소설들이 비할바없이 왕성하게 창작되는데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어느 시기 어떤 생활분야를 취급하거나 레외없이 그것을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깊이있게 해명해나가는 철저히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소설문학으로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소설은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며 어차피 인간생활에서 나서는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인간생활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그 소설문학의 성격과 가치, 발전정도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보다 근본적인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진실하고 감명깊은 생활적형상으로 해명할수록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개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보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소설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생활의 근본문제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로부터 나서는 문제이며 인간의 운명과 존엄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우리 소설문학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완벽하게 밝힌 주체사상에 확고히 의거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천명함으로써 동서

고금의 수많은 진보적작가들이 그토록 상상조차 못했던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소설문학의 가장 높은 명마루에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 소설문학은 주체위업의 실현을 위한 줄기찬 혁명투쟁과 사회주의현실을 형상화하는데서 다 같이 비약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이론에 확고히 의거하여 이 시기 소설문학은 이 땅위에 영광과 기적을 수놓으며 홀려간 영웅적사변들을 새롭게 음미하여 새로운 예술적화폭속에 재현하면서 우리 혁명의 각이한 단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드팀없이 받들온 주체적인 인간전형의 일대 화랑을 창조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충성의 화신들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감동깊게 보여준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석윤기)과 《불타는 시절》(김병훈), 《철쇄를 마스라》(고병삼), 《총든 청년들》(리상현), 《태양의 아들》(1부)(윤시철), 토지개혁을 위한 해방후 투쟁을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령도의 력사로 깊이 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새봄》(김규업)과 《대지의 아짐》(1부)(고병삼),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전사들의 형상을 주체적인 군사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하는 영웅적투쟁과 랑만적생활의 화폭속에서 그린 장편소설 《돌과구》(리종렬)와 중편소설 《락동강》(엄단웅),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투쟁을,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으신 은덕에 대한 송가로, 충성의 열정이 낳는 기적에 대한 찬가로 형상한 장편소설 《생명수》(변희근), 《평양시간》(최학수)과 《축원》(천세봉), 《백양나무》(하정희), 주체형의 당일군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변희근)과 3대혁명의 기치높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우리 시대 참된 인간전형을 창조한 장편소설 《명마루》(엄단웅), 《로동가정》(김보행), 중편소설 《불바람》(리종렬), 《병사의 고향》(김동욱)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그리고 공화국의 품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새롭게 탄생하는 인간의 정신적면모를 특색있게 보여준 중편소설 《빛을 따라》(정창운), 《조국의 품속에서》(류벽)등 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영광에 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발전의 본질을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고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속에서 참된 공간

주의자로 성장한 조선혁명가들의 전형적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투쟁시기나 활동분야, 성격적특질이나 운명선이 각이한 개성들로 그려지고 있으나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에 모든 힘과 지혜,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나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인간전형들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주적인 인간전형을 내세우고 그들의 성격장성과정과 주체형의 인간으로서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특질을 심오하고 감동깊게 펼쳐보이는 것은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 오른 우리 소설문학의 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주인공문제는 언제나 소설문학의 사회적성격과 그 사상에술적풍격을 규정하는 중심문제로 나선다. 우리 소설문학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사상에술적높이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한 인간의 본보기,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 문제와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는것이다.

우리 소설문학이 창조한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의 숭고성과 심오성은 혁명적수령관을 성격의 핵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충실성과 정신적높이를 특징짓는 기본적도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세계에서 핵을 이룬다. 우리 소설문학은 바로 혁명적수령관을 주인공의 성격에서 근본핵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하여 형성되고 높이 발양되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과 같은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특질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참다운 인간-투사의 정신세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전형화하고 있다.

우리 소설문학이 또한 주인공의 성격장성과정을 혁명적세계관과 혁명적수령관의 확립과정으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형상의 심오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고 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성격을 발전과정속에서 그리는것은 사실주의문학의 공통한 특성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우리 소설문학은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사상과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세계관의 확립과정,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으로 추구하고 형상함으로써 인간의 성격발전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 성격형상에 지향성과 목적의식성을 부여하

며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한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파란곡절로 중첩된 성장과정과 빛나는 투쟁력사를 그리면서 그것을 참다운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수령관의 확립과정으로, 참된 삶에 대한 주체형의 인간의 관점과 태도를 밝히는 과정으로 깊이있게 형상한것은 뚜렷한 실례로 된다.

그리하여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참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성장과정과 투쟁력사를 심오하고 감명깊게 형상한 유일사상교양의 위력한 교과서로 되었다.

또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는 주인공 유철이 투쟁에 나서서 겪는 가슴아픈 실패와 쓰라린 교훈을 심각하게 묘사하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에 완전히 매혹되고 장군님의 사상과 방침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간직하게 되는 과정을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하고있으며 억척같이 뿌리내린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여 근로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 능숙한 조직력과 결단성 등 혁명가적품성이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고 혁명에 대한 열정과 강毅한 투지 등이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힘차게 발양되게 되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의 형상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감동력,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가지는 커다란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 시기 력사주제의 창작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었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력사를 형상한 장중편소설들이 활발히 창작되고 그 과정에 《갑오농민전쟁》(1, 2부)(박태원), 《늙세바람》(상)(홍석중) 등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소설들은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기초하여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의 력사를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생활의 력사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력사소설창작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사실주의소설발전의 높은 경지에 이른 이 시기 우리 소설문학의 면모는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옹계 살리고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간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소설의 형태적특성과 우월성을 심오히 밝힌 주체적문예리론에 튼튼히 의거하여 무엇보다도 성격창조에서 소설이 가지는 특성과 형상적가능성을 옹계 살려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소설은 서사문학의 기본형태로서 인간과 생활을 자유분방하게 전개하여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전모

를 보여준다. 성격창조는 일반예술산문과 구별되는 소설의 기본징표이며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것은 문학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는 소설의 중요한 특성이고 우월성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소설발전의 역사는 성격창조에로의 지향성이 강화되고 성격창조의 가능성이 보다 다각적으로 탐구되어나간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소설은 철저히 성격창조에 형상적지향을 두고 그 가능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는 소설로 발전하였으며 또 발전하고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힌 자주적인 인간전형의 창조를 기본형상 과제로 할데 대한 리론, 뒤생활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성격의 전모를 보여줄데 대한 리론,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데것을 기본요구로 내세울데 대한 리론 등은 우리 소설을 철저히 성격소설로 발전시켜나가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소설은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대와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생활속에서 성격을 창조하고 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사상의식과 생활감정을 탐구형상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인 소설작품들은 인간성격을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펼쳐준다.

우리 소설문학은 또한 묘사의 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과 우월성을 적극 살리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소설은 묘사를 통하여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며 설화적형식으로부터 묘사형식으로 이행하고 묘사정신이 강화되어나간것은 소설문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되었다. 소설의 형상적위력은 묘사의 위력이다.

우리 소설에서의 묘사는 높은 지성과 철학적사고가 안받침된 분석적인 묘사, 생활적표상을 뚜렷하게 주는 생동하고 감성적인 묘사로 더욱더 발전하고있으며 성격형상에 지향된 전형적인 환경묘사, 성격의 본질을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인상깊은 초상묘사, 생활과 밀착된 분석적인 심리묘사 그리고 진실하고 깊이있는 세부묘사들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장편소설 《1932년》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께서 헤여지기전 소사하집 장면에 대한 묘사는 우리 소설문학이 도달 한 묘사의 수준을 뚜렷이 보여주는 한 례로 된다.

당의 해빛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 소설문학의 화원에는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높이 받들고 즐기치게 창작활동을 벌려온 재일조선소설가들의 특색있는 작품들도 어엿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기간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 보람찬 삶을 빛내가는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을 실감있게 형상한 소설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재일조선동포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우리의 해외소설문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단편소설 《신작로》(리은직), 《새 출발》(김재남), 《태풍》(정화흠), 《원앙유정》(박종상), 《태양의 품》(량우직), 《한 가정에서》(리량호), 《가장 귀중한것》(소영호), 《가정》(김영곤)들만 들어보아도 우리의 자랑찬 해외소설문학발전의 면모를 잘 알수 있다



지난 40년간 우리의 주체적소설문학은 일찌기 소설발전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약과 개화를 이룩하였으며 혁명적소설문학발전의 높은 봉우리에 자랑차게 올라섰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정책과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은 우리 소설문학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소설창작의 확고한 지침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는 소설문학의 찬란한 개화와 무궁한 발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심화발전되는 혁명의 요구와 날로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대를 이어 우리 당을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에 한몫 바쳐싸워나가는 참된 혁명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높은 경지에서 형상하며 단편과 중편, 장편 등 전반에 걸쳐 모든 소설작품들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소설가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령도를 확고히 받들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러르는 마음 외 1 편

리효신

언제나 뵈옵는듯하여라
만나뵈던 그날처럼
그때처럼
이 마음속엔
우리 수령님 늘 포구에 와계시여라

오는 새벽이
다 그 저녁갈아라
돌아오는 고기배를 잔교에서 기다리시다
우리 수령님 두팔벌려 맞아주시던
그날 그 저녁으로 이 가슴젖어...

내 몰라라
우리 추어전을 벌리는 이 한밤도
아버이수령님
어느 산촌마을을 돌아보시던 그 걸음으로
또다시 나의 정든 포구를 찾아주셨을지
어린것의 어리광 무릎우에 받으시며
어느 어로공의 집살림 돌보시고계실지

새벽이면 새벽에
밤이면 또 밤에
그날이런듯 눈에 어리고
그때이런듯 가슴에 젖는
아, 아버지수령님의 그 모습

들에는 풍년노래
포구에는 풍어의 노래
별가득 하늘가득 행복은 차고 넘쳐도
주시고 주실 사랑 다함없으시여
다시 찾고 찾으신 포구는 그 얼마이신가

언제면 우리 수령님
잠시라도 잠시라도 편히 쉬시올가
아버이의 은정이 먼저 닿은 뒤
아버이의 사랑이 먼저 미친 뒤
뒤늦게야 눈물젖는 이 마음

날마다
시각마다
수령님 자애로운 모습 눈에 어려
고기때만 있다면 이 마음
저 하늘 은하마저 다 후려오리니

아 만선기 휘날리는 고기배들
포구에 귀항의 닻을 내리고 내리워도
수령님 우러러올린 우리 마음의 닻은
세월의 끝까지
영원히 내리우지 않으리라!

웃으려 웃으려 해도

... 어서 웃으라고
웃는 모습 찍어서 보내드려야
아버이수령님 기뻐하신다고
사진사는 몇번이나 재촉하건만

어이 웃지를 못하나
우리 고향 포구를 찾아주신 수령님
어로공동무들이 보고싶다고 하시며
먼바다에 사진사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파도너머 구름너머
조국은 예서 아득한 만리
생각하면 친아버이 그 사랑에
눈물은 솟구쳐 두볼을 적시고

웃으려 웃으려 하면
언제인가 잔교에서 바래워주시며
건강히 돌아오라시던 그 음성 울려와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웃으려 웃으려 하면
언제인가 이른새벽 선실에 오시여
이불귀마저 여머주시던 그 영상 어려와
자꾸만 눈물이 흐르고 흐르나니...

아, 행복의 참웃음은 눈물이런가
숫구치는 이 눈물 행복의 웃음이런가

쌓여 쌓인 고마움에 흐르는 이 눈물

이대로 찍어다오 사진사동무여
이대로 담아다오 석양이 기울기전에
대를 이어 물려갈 이 사진에
세상만복 다 비낀 눈물의 웃음을!

그 대양. 그 대오 속에 외 1 편

오재신

억만물줄기 모여 이룬 바다속에
나는 한방울
천만심장 굽이치는 대오속에
나는 한사람

내 비록 한방울 물일지라도
내 비록 천만중 한사람이어도
태양의 힘 무한한 힘
나는 안고있노라

흩어지면 단 한방울
떨어지면 나 하나

흩어져선 떨어져선 지닐수 없는
단결의 힘이여

아,
당중앙!
그 두리에 뭉치여 거대한 대양
그 두리에 뭉치여 불패의 대오-

그 대양에 흘러든
나는 한방울!
그 대오속에 삶을 둔
나는 한사람!

아, 해당화

기름진 산과 들
푸르른 언덕-
그 모든고장은 뒤에 두고
뛰약별 타는 바다가
모래불우에 피었구나
해당화

비바람 몰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 사나와도
물려서지 않고
기름진 흙 한줌 없어도
뿌리를 내린 꽃

수령님 찾아주신
나의 조국
그 한치 땅이 소중한
우리 당이 가꾸어주는
금수강산
빈자리 하나 남겨둘수 없어

네 설 자리-
뿌리내려 향기 풍길
그 한치를 위해
내 또한 서슴없이
한목숨 바치리나
아, 해당화!

메 아 리

김일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의 결정체이다. 생활에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사상감정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받게 된다.》

예로부터 노래는 기쁨과 행복,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저하는 인간감정의 가장 정화된 정서의 산물이다.

그때문에 저도 모르는 순간에 문득 흘러나오는 한구절의 노래가락도 자기 심중의 모든것을 대변할수 있는 그런 구절이 흘러나오는것이며 그때문에 사람들은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진정한 벗의 속삭임처럼 그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듣게 되는것이라.

노래여! 시대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속에 끝없이 올려가는 불멸의 메아리여!

네 무한한 음향을 타고 천만심장이 뛴다. 천만 발걸음이 나아간다.

백년간약

이해의 류다른 날씨는 2월도 다 지난 오늘까지 얼어붙은 대동강가로 눈바람을 몰아왔다.

쨍-어디선가 강심깊이에서 얼음장 갈라지는 소리가 옥류교기등사이에 부딪쳐 웅글진 메아리를 실어왔다.

릉라동 어귀에서부터 유보도 흰눈우에 무수히 찍힌 발자욱들을 살피며 대동교쪽으로 아무리 올라와도 방금 산책의 길에 나섰다는 시인은 보이지 않았다.

새로 창작하는 가사의 초고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전화를 받은후부터 만나고싶었지만 불의의 출장으로 나흘이나 지난 오늘까지 더 미룰수 없어 돌아오는 걸음으로 그의 집을 찾은 길이었다.

어디 있을까?...

문득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눈이 하얗게 없힌 해묵은 버드나무사이로 처녀 총각이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천진한 눈싸움을 하고있었다.

눈, 이 찬눈이 저렇듯 청춘들의 가슴들에 정깊게

내리는 세월이니...

축복하노라

좋은 날 좋은 때

꽃과 같이 곱게 피어

열매같이 무르익어

쌍을 맺는 그대들을

...

한결 즐거워진 마음속에 이런 시구절이 문득 떠오르며 얼마전에 있던 일이 생각났다.

우리는 병사시절을 함께 보낸 한 친구가 제수를 맞다는 기쁜 소식을 받고 그의 집을 찾은 일이 있었다. 우리가 막 들어서는 순간은 신혼부부가 재청을 받고 요란한 박수속에 서로 마주서있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 눈길만 마주보면서 한동안 서있었다. 아마도 눈길만 마주보면서도 마음속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 무슨 약속이 있는지... 저 행복한 가슴들에서 그 어떤 노래가 울려나오겠는지?...

눈서리를 이겨내는 꽃은

그 향기도 영원하고

해빛안고 피어나는 마음

언제나 그 뜻을 따르네

생각밖이었다. 웅글진 목소리로 먼저 댄 신랑의 선창에 부드러운 신부의 청이 이어지며 의례히 기대했던 생각들을 뒤엎었다.

이런 날, 이런 장소라면 흔히 사람들은 자기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저 행복과 기쁨 웃음넘친 환경에 취하여-

그때문에 천진한 아이들의 노래로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것이다.

천만산악 넘어간대도

세찬 파도 헤쳐간대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노래는 계속 이어졌다.

그렇다. 얼마나 부르고싶은 노래가 많고 웨치고 싶은 시인들 많겠는가. 한생을 언약하는 이 뜻깊은 날임에야-

이것은 우연히 흘러나온 노래가 아니다. 행복한 사랑과 청춘을 꽃피워준 그 품 고마운 당을 위해 영원히 변함없을 그 사랑의 길을 말없이도 약속하는 그런 가슴속에서 뜨겁게 올라나오는것이리라. 오직 어머니당을 위한 백년가약의 영원한 송가로...

우리는 조용히 노래를 불러보았다. 부를수록 더욱 생각은 깊어졌다.

그 누구나의 가슴속에 심장의 박동소리처럼 안겨져있는 이 노래의 무한한 선물은 그 어떤 체험과 열정속에서 샘솟는것인지...

삼

땡 땡... 저음의 부드러운 선물처럼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가 여덟점을 쳤다.

우리가 서둘러 흰눈이 쌓이는 충계를 올라 대형 조각군상들이 있는쪽을 바라보노라니 저쪽 총천 병사의 군상앞에 서있는 뒤모습이 무척 낮익었다. 다가갈수록 시인 리정술동무가 분명했다.

그는 우리가 다가가는것도 못느끼고 그냥 조각군상에 눈길을 주고있었다.

외투깃이며 머리에 하얀 매달린 눈을 털넘도 있고 무슨 생각을 그리도 깊이 하는지. 나는 그의 사색을 깨치고싶지 않아 한옆에 서서 그가 올려다보는 조각군상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거 기자동무들이 아니요.》 손에 쥐고 있던 원고지와 파란 쌍심원주필을 외투주머니에 넣고 나의 손을 잡는 시인의 눈빛을 마주하노라니 마음이 다감해지며 즐거워졌다.

《무슨 사색을 그리 깊이 하겠습니까?》 내 물음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 눈빛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환희에 빛나는 눈빛들입니까. 저들의 시선은 모두가 저기 당중앙창가로 향해있습니다.》 불빛 환한 당중앙청사쪽을 숭엄히 바라보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승리의 보고만을 안고 당중앙을 우러르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저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보자고 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것만 같고 더 좋은 시줄이 문득 떠오를것도 같고...》 그는 주머니에 넣었던 원고지들을 꺼내여 나에게 넘겨주었다.

썼다가는 지우고 덧쓰고 또다시 쓰고, 매 면마다 가득히 박아쓴 글줄들만 보아도 시인이 얼마나 고심했는가 하는것이 확연히 느껴졌다. 마지막장에

비교적 깨끗이 정리된 구절들은 그가 말하는것처럼 우리 혁명승리의 모든 비결과 그 힘에 대한 주장이 명백했고 새로운 발견과 깊은 정서로써 내 마음을 잡아끌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듯 요구 성을 높이며 무엇인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있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시를 쓰면서 그것이 다 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내 생각이 미처 가닿지 못하는 그러한 높이에 아득히만 놓여있는것 같고...》 잠시 말을 끊고 눈내리는 아득한 공간 한곳에 시선을 주고있는그의 귀밀 근육이 불끈 살아올랐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할 때면 보게 되는 습관적인것이였다.

《아니 선생도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는 때가 있습니까?》 통기가 섞인 내 말에 조용히 웃으며 그는 말을 이었다.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불리우기 시작한지 1년이 켜 지난 어느날 나는 일생에 두번 다시 없을 충격적인 사실에 접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이 노래의 완성을 의심치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전화로 찾으시여 가사를 좀 고쳐야겠다고 하시면서 〈우릴 불러 혁명동지라고 믿어주는 그 사랑에〉라는 구절은 노래를 부르는 동무들의 심정은 알수 있지만 전인민적폭이 나오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1절 전렴에서 제시한 그런 폭으로 2절도 고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는 저는 정말 심한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습니다. 가요가 불리운지 1년도 다 지난 그때까지 노래 한곡을 두시고도 그토록 심려하시며 수정안까지 주시는 그 높으신 의도를 그 언제면 다 따를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사의 한자한자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창작적파오는 창작적성파로 씻어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수정한 가사를 다시 보고드리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후 나는 정말 그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시인의 말은 마디마디 마치 뜨거운 물처럼 가슴을 후덥게 적서주며 몇해전 그날에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갔다.

1, 2, 3안으로 된 수정안을 만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린 얼마후 관계부문 일군들을 부르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친히 고치신 2절 가사를 보여주시였다.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나
성스러운 기발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불타네
...

본래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넓은 폭과 깊은 뜻을 안은 빛나는 글발마다에는 인민들의 가슴속에 꿰고있는 신념과 의지에 대한 높은 형상세계가 담겨져있었다.

그처럼 명가사로 고쳐주시고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시인과 합의해보고 그 정형을 알려줄데 대하여 당부하시고 또다시 며칠후 그 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었던것이다.

《감격! 행복! 영광! ... 그저 이렇게만 표현할수 있는 걱정속에서 그날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말씀을 전달 받으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미숙한 시구들을 바로잡아주시고 주옥같은 명문장으로 빛내여주신것만도 그 은혜 다 갚을길 없는 데 오히려 저와 합의해보라고까지 하시니...

정말 그때의 감정을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잠시 말을 끊고 돌아서는 그의 눈빛은 젖어있었다.

무슨 말을 더하랴. 한편한편 자자구구 다듬어 명곡으로 고쳐주시고도 시인과 합의해보라고 하시는 그 한량없이 겸허하신 인품과 자애깊은 은덕 앞에.

바로 그 사랑이었다. 시인에게 수여할 《김일성상》의 정령을 일요일에 채택하게 된 전설같은 이야기를 낳은 손길, 자신께서 직접 종자와 형상 방도까지 다 주시고도 가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가 완성되었을 때는 친히 《당의 작가》 《혁명적인 시인》 《재간있는 동무》라고 높이 치하하시며 내세워주신 그 크나큰 믿음,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처음으로 쥐여보는 연필이 그리도 소중한 잠들어도 꼭 쥐고야만 잠들던 그였다.

그의 손을 덧잡아 제 이름자 익혀주던 그날로부터 그 연필은 혁명의 필봉으로 세련시켜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대한 절절한 체험을 그대로 토로할진대 그 사랑의 꿈은 정녕 한계가 없는것이였다.

그렇다. 시인의 재간, 그것은 그 어떤 천성적인데 있지 않았다. 부단히 오르고저 하는 형상의 높이를 더 높이 내세우고있는 그 열정은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감에 있지 않았다.

생활속에서 매혹되고 체험속에서 심장으로 느낀 그것없인 이 땅의 모든 변혁과 창조도 없을 그 손길, 그 믿음속에 무한한 원천을 두고있는것이다.

아, 믿음이어! 사랑이어! 마를줄 모르는 열정의
불을 적셔주는 끝없는 바다여! 창조의 해발이어!

거울

우리는 언제부터 그의 집을 방문하고싶었다. 창작실과 체험지들에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여러번 이런 생각을 하곤했었다.

직업적인 호기심때문인지 아니면 언제인가 만났던 한 작가의 안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때문인지...

그때 우리가 만났던 녀인은 이렇게 말했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을 다 잊고말겠어요. 그저 집에 들어와서도 책만 붙들고 밤을 보내니 아이들의 그 천진한 마음에도 아버지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애 아버지 서재에는 필요외엔 들어가지 않지요.》

체험과 창작을 위해 때로는 가정적인 모든것을 잊곤한다는 작가들의 말을 종종 들은바 있어 그렇듯 많은 작품들을 창작한 리정술동무 역시 그런 아버지가 아닌지 알고싶었던것이다.

허나 그때부터 마음속 한구석에 묻혀있던 이러한 의혹의 여운은 봄날의 시내물처럼 가뭇없이 녹아버렸다.

현관문소리가 나기 바쁘게 뛰어나온 열뒤살 되나 마나한 사내아이가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게 《아버지》 하고 목에 매달렸다. 뒤따라 행주치마를 허리에 가튼히 두른 안해와 처녀꼴이 다잡힌 딸이 손에 책을 쥔채 나왔다.

《이녀석 뉘키로는 더 늘었군.》 리정술동무는 아들과 즐겁게 룡질도 하며 전설중심에 놓여있는 거울앞에까지 다가가 안았던 아들을 내려놓고 나란히 섰다.

《너 오늘은 뽕줄운동을 번진게로구나. 어제는 네키가 한뼘이나 자라 여기 왔는데 오늘도 고대로 니말이다.》 마치 몇해 헤어졌던 자식을 만난듯 새삼스러운 정도의 정깊은 부자간의 룡질앞에서 안해도 딸도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동심적인 즐거움에 잠겼다.

벽 한면을 다 가리운 대형경대앞에서 시인은 웃음속에서도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안고 다시 또 다시 제 모습을 비쳐보는것이였다.

이윽고 방에 들어서니 벽에 걸려있는 큰 액틀이 첫눈에 안겨왔다. 《김일성상》 상장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설날마다 친히 보내주신 신년축하장들이 년대별로 나란히 끼워있었다.

한참동안 뜨거운 생각속에 바라보고 서있노라니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난 정말 늘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보살펴주시는 그 품에 아이들과 온 가족을 다 맡기고 부럼없이 살면서도 미처 다 보답하지 못하고있으니말입니다.》

잠시 말을 끊고 시인은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다.

온 가족이 빙 둘러앉은 가운데 앉아 아들을 무릎 곁에 가까이 당겨안으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제는 습관처럼 때없이 저 경대앞에 마주서면 인차 걸음을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들의 키가 몰라보게 자라듯 날마다 커만지는 우리 행복의 웃음이 그대로 다 비껴져 거울앞에 언제나 몇몇이 마주서야겠는데...》 ...

아이들의 귀여운 웃음앞에 마주서는 기쁨 넘친 그 어느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엔 어떻게 하면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겠는가 하는 한 생각뿐이었다. 오직 그 한 생각으로 걸음도 옮기고 앉아도 서도 그 한 생각으로 모지름을 쓰고 스스로 마음속에 채찍질하는 바로 그 체질화된 습관이 참된 전사의 의리가 아닌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무슨 말이든 더 나누고싶었지만 그냥 일어섰다. 저렇듯 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의리의 진정으로 이어지고있는데야 그 어찌 뜨거운 시줄들이 내뿜지 않으랴, 나는 새 노래의 성공도 의심치 않았다.

조용히 일어 서서 나오던 우리는 거울앞에 다가섰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 이라고 붉은색으로 정중히 쓴 글발이 뜨겁게 안겨왔다.

사랑이 뜨거워 의리도 불같고 받아안은 믿음이 클수록 보답할 맹세의 높이도 언제나 높이만 설정하는 그 진정속에 거울, 그것은 솔직한것이었다.

노래는 천만가슴에

그로부터 며칠후 우리는 가사가 완성되어 작곡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급히 가요창작전투가 진행되고있는 현지로 떠났다.

전측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의 선율을 타고 달리는 듯 승용차도 고르로운 동음을 뒤에 남기며 대도로

에 들어섰다.

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노래가 태어나고있는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태어난 혁명송가 《조선의 별》로부터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념은 하나》 등 당과 수령에 대한 시대의 한결같은 흠모와 신뢰의 송가들이 그 얼마나 끝없이 태어나고있는가.

노래, 그것은 시대의 넋과 숨결을 안고 맥박치는 시대의 웨침이고 메아리이다.

혁명과 건설의 벽찬 나날에 인민은 누리에 빛바치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자기의 심장으로 체득했고 사랑과 믿음속에 걸어온 창조와 투쟁의 나날에 가슴속깊이 간직한 그 체험이 그대로 환희와 경탄으로 높이 울렸고 영원히 운명말길 당의 위대성에 심취한 격정의 노래로, 진리의 메아리로 울려퍼졌다.

하기에 혈전만리 불길속을 헤쳐온 로투사들도 이 노래를 부르며 승엄한 감정에 눈시울 적시고 토지혁명을 하고 불타는 락동강에서 싸운 로당원들도 이 노래를 부르며 청춘의 패기와 열정을 가슴에 가다듬는다. 출선장에서 쇠물뿜는 용해공들과 협동전야에서 난알을 가꾸는 농장원들, 천리방선에 총창을 비껴안고 선 젊은 병사들과 붉은넥타이를 날리는 어린 학생들도 이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높이 고동치는 감격에 휩싸인다.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충성의 대 행진곡으로 노래는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인간 인식의 력사는 진리를 파악하여온 력사이다. 아마도 그때문에 사람들은 한번 있는 생에 모대기고 번민하는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는것이며 한번 찾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라면 그 생마저 바치는것이라.

바뀌는 계절 흐르는 날과 달에 산천은 변할진대 오늘날 우리 인민의 가슴속깊이에서 울려나오는 이 철리의 웨침, 시대의 메아리는 세기와 세기를 넘어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남성독창으로 힘있게 시작된 노래는 장중한 관현악과 함께 합창으로 고조되었다.

...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

노래는 계속 울려퍼졌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에취. 엠. 피. 모히딘

김정일 동지

당신은 훌륭한 아버님의 훌륭한 아드님
당신은 고통받는 인민대중의 령도자
자본주의멍에밑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들은
당신을 우러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사회주의락원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동지

당신은 조선에 솟아오른 태양
찬란한 그 빛발로
우리 앞길 밝히십니다
사회주의에로의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이끄십니다
인류의 리상 공산주의는
반드시 당신께서 꽃피우실것입니다

김정일 동지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아드님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의 짓밟힌 인민들은
당신께서 아버님의 높은 뜻 받들고
그이처럼 우리들을 이끄시며
21세기의 새 세계를 개척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일 동지

제3세계인민들은
당신께서
우리들을 사회주의와 평화에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필자는 스리랑카 신문 《더 네이썬》 책임
주필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시

마흐무드 싸이드

아름다와라 위대한 날이여
성스러워라 인류가 맞은 2월 16일이여
이날 복받은 대지에 혁명의 천재 태어났거늘
오 **김정일** 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계승완성
하시느분
그이는 인민의 지도자
그이는 인류의 해방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는 영명한 지도자
민족의 탁월한 아들
조선의 거리와 마을 산천과 전야도 그이를
우러르고
이 나라의 남녀로소 그이를 모시여 춤추누나
오 위대하여라

그이는 사상의 천재
전세계 인민들 그이를 우러르고있어라

그이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 어떤 립장에 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나니
우리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편에 서있어라

친애하는 그이의 손길따라
우리 세계인민들과 함께
조선인민과 온 인류가 갈망하는
조선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그날
위대하고 행복한 그날을 믿고있노라
(필자는 민주예멘 전 **김일성** 주의연구
위원회 위원장임)

친애하는 그이를 위하여

전찬기

수수억만년전부터
분화구를 터쳐 안고 구름가에 치솟아
머리 희여진 20세기까지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 너는 기다렸다
친애하는 그이 탄생의 기념비 되고저

나날이 꽃피는 락원의 굽이굽이 감돌며
온 누리를 밝혀 빛발치는
주체사상탑의 거대한 봉화 비껴안고
력사의 강 대동강은 흘러흐른다
친애하는 그이의 위대함 길이 길이 노래하고저

태고연한 원시림의 깊은 잠을 깨우며
험산 준령우에도 새 철길은 뻗어가고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에 밀리어

날뛰던 바다는 멀리 멀리 내쫓긴다
친애하는 그이 걸으실 길 펼치고저

존엄 높은 이마 거연히 추켜들고
창조와 비약의 힘찬 발걸음 내짚으며
제 힘을 믿어 가장 위대한 인간의 심장들
그 심장들은 높였다 불탄다
친애하는 그이를 변함없이 따르고저

그렇다. 심장의 가리키는 막을수 없다
해빛이 따사로울 때 싹들이 돋아나오듯
비가 내리면 샘줄기들이 터져오르듯
락원의 땅에 아이들은 태어나고 태어난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이를 받들고저

봄에도 눈보라소리 겨울에도 꽃향기

김국용

아침엔 이슬속에
저녁엔 별빛아래
꽃이 웃는 화창한 봄날에도
여기 만수대언덕에 오르면
눈보라소리 들려오고

설경의 신비론 아침에도
수은등 휘황한 불빛아래
흰눈송이 춤추며 내리는
정이월의 깊은 밤에도
예선 꽃향기가 넘쳐라

저 벽화의 백두산에서
타래치는 눈보라가
기관총 틀어쥐고 적진으로 달리는
저 대원의 청동의 옷자락 스치며
휘파람소릴 일굴 때

장군님 따라 다그치던
그 조국진군의 길에
너대원이 소중히 안고 온
한떨기 진달래가
그날의 진한 향기 풍기는 여기

여기에 안도의 그 봄이 있고
남패자에서 북대정자로 이어진
그 간고한 겨울이 있어라
그날에 밀림에 웃던 꽃
발길에 감기던 눈보라

그 백두의 눈보라 자지 않고
그리워 목메게 안던
삼지연의 꽃향기 상기도 풍기며
진군의 나팔소리 울려주는
아, 만수대 언덕이여

여기서 우리 수령님
봄외투자락 기폭처럼 날리시며
백두에서 높이 드신 손길
오늘도 내리우지 않으시고
그날의 행군대오 이끄시기에

아, 여기서
봄날에도 눈보라가 일어라
겨울에도 꽃향기가 풍겨라
조선의 영원한 계절이 흘러라

새 기상 약동하는 동력기지에서

안병모

나라의 강력한 기간공업기지의 하나인 철의 도시 청진에는 말그대로 하늘높이 솟은 공장굴뚝들이 솟을 이루고있다. 서로 키를 겨루듯 시내 도처에 높이 솟은 그 모든 첩탑들과 굴뚝들은 몇해전 수성천 기슭에 청진화력발전소의 굴뚝이 우뚝 솟아오른 다음부터는 그 어깨아래 들게 되었다.

화력발전소의 굴뚝은 시내 그 어느곳에서나 보인다. 힘과 빛과 열의 상징인양 하늘높이 솟은 굴뚝에서는 숨처럼 희디흰 연기가 기운차게 날아올라 봄바람에 떠실려가고있었다.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전기화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청진화력발전소.

이 발전소를 우리가 찾은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곳을 실무지도해주신 때로부터 뜻깊은 한뼘이 되어오는 어느날 아침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킴으로써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여야 하겠읍니다.》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자랑스런 성과들을 이미 들은바 있는 우리의 발걸음은 발전소를 눈앞에 두고 더욱 빨라졌다.

강기슭의 넓은 부지에 네모 반듯하게 울타리를 둘러치고 크고작은 건물들이 보기 좋게 들어앉은 발전소는 첫눈에 아늑한 인상을 안겨주며 마치 그 어느 공원에 온듯한 상쾌한 감을 느끼게 하였다.

정문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은 이곳 발전소 지배인동무는 보통기에 어깨가 짝 버그러지고 몸매가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였다. 친고개를 훨씬 넘어선 그는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일꾼이였다.

지난해 5월 17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걸으신 로정을 따라 우리를 안내하면서 그는 석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나라의 흑색야금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무산광산과 김책제철소가 맡은 몫이 크고 중요한것처럼 우리 발전소가 청진지구 전력공업에서 노는 역할

은 매우 큼니다. 하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을 실무지도하신 그 길로 우리 발전소를 몸소 찾아주셨답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건물의 복잡한 층계를 오르시여 보이라실과 발전기실을 돌아보시며 전력생산현편과 발전소건설현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발전소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오르셨던 층계를 따라 우리는 지배인동무와 함께 발전소의 심장부라고 말할수 있는 보이라와 타빈, 발전기들이 설치된 주건물의 2층으로 올랐다.

그곳에 오르니 마치 전망대에 오른것처럼 앞이 환하게 되였다. 한편으로는 지금 한창 만부하의 동음을 울리며 세차게 돌아가는 타빈들과 발전기들이 첫눈에 안겨들고 그와 나란히 조립을 끝낸 타빈과 발전기의 우람찬 모습이 보였다. 또 다른 편을 바라보니 한창 조립을 다그치고있는 다른 보이라의 웅장한 모습이 높이높은 건물의 천정을 치받아 솟아오르고있었다.

지배인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여기 영광의 일터에 모시였던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오는듯 울타리처럼 둘러친 철관간에 기대여서서 눈을 가늘게 찌프리고 이렇게 말했다.

《채 정리조차 하지 못해 어설픈 구내길을 거쳐 허물없이 이곳에 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제철공업을 발전시키며 청진시 근로자들의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우리 발전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이미 돌리고있는 발전기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며 새로운 발전기들의 조립공사를 빨리 다그쳐 완공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전소에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책제철소가 종합적인 대야금기지로 확장되는데 따라 전력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일찌기 청진화력발전소 건설구상을 펼쳐주시고 몸소 발전소터전까지 잡아주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결린 문제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풀어 주시면서 전국의 여러 발전소들에서 우수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보내주시었으며 새로 발전소에 배치된 제대군인들과 로동자들이 다른 발전소들에 가서 실습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을 후덥게 하여주는 이야기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들리셨던 1호발전기실을 거쳐 붉고 푸른 신호등과 수많은 계기들로 가득찬 중앙조작반을 돌아보고 나온 우리는 건설자들을 만나보기 위해 3호기 발전기와 보이라 조립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건물앞마당에 이른 지배인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로 여기서 남청진중심부 형성모형을 보아주시면서 남청진일대를 보다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고 말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김책제철소의 고압증기관공사와 남청진일대의 증기난방화를 위한 증기관설치공사도 동시에 밀고나가 빠른 시일안에 끝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없이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은정이 가슴가득 안겨왔다.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발전소건설자들은 《80년대속도》 창조투쟁의 불길높이 조업기일을 앞당겨나가고있었다.

우리는 설비조립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금속공장건설사업소 설비조립직장 기계5작업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저 그들의 일터를 찾았다. 작업반원들과 함께 설비조립을 다그치고있던 세포비서 김상전동무는 다른 혁신자들이 그러하듯 말수가 적고 사랑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들은 그는 현장의 한구석에 놓인 철함을 열더니 무엇인가 꺼내 우리앞에 펼쳐놓는것이였다. 별로 크지 않은 수첩들이였다.

뚜껑에는 《전투기록장》이라는 글발과 《잊지말자, 영광의 5월 17일!》이라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첫장을 펼쳤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또박또박 적은 다음 그 관철을 위하여 지난 1년간 투쟁해온 나날의 이야기가 다음장들에 자세히 적혀있었다.

우리의 눈길은 그중 한장에 못박힌듯 머물러버렸다. 거기에는 2호기 타빈, 발전기조립때 있는 이야

기가 씌여져있었다.

타빈, 발전기에서 기초와도 같은 고임판을 한달 사이에 수십개 조립해야 할 과업을 받은 이들은 그것을 보름동안에 조립할 결의를 다졌다.

어느날, 하나의 고임판을 놓고 심중한 토론이 있었다. 한것은 그 고임판에 알릴락말락한 흠집이 있었던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조립하고 콩크리트 타입을 하여도 발전기는 돌아갈것이며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당의 뜻을 어기는 용서못할 일이었다.

《우리는 콩크리트속에 이 고임판과 함께 80년대건설자들의 량심을 묻습니다. 우리 건설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받들어 모시였는가를 후대들이 알게 합시다.》

세포비서의 말은 건설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리하여 건설자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한달공사량을 보름동안에 앞당겨끝내면서도 최상의 질을 보장하였다.

전화의 그날, 영웅적조선인민군 전사들이 적탄이 우박치는 전호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한자한자 적어가던 《복수기록장》, 전후시련에 찬 나날에 조국의 휘황한 나날을 그리며 깨진 벽돌장우에 걸터앉아 적어가던 《복수기록장》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끝까지 관철해갈 맹세를 적어간 《80년대속도》 창조자들의 《전투기록장》!

이를 통하여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였던 뜻깊은 날을 영원히 심장에 새기고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는 건설자들의 한없이 숭고히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올해에 들어와 보이라와 타빈, 발전기조립을 맡은 화력발전소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면서 영광의 대축전장으로 달음쳐가는 그 길에서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마련하고있었다.

건설현장에 이르니 방송차에서 방송원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왔다. 평양, 북창, 화력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영웅적위훈을 떨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이곳 건설자들이 청진화력발전소건설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고있다고 하면서 방금 창조된 기적같은 희한한 소식을 전했다.

보이라본채 2단증기가열기조립에서 지상확대조립식방법으로 10일 작업량을 10시간에 해낸것이다.

일기설기 뻗어오른 배관들과 소소리 높은 보이라동체에는 대문짝같은 속보들이 나붙어 건설자들을 더 높은 혁신으로 고무하고있었다. 조립장 한복판에 들어앉은 기증기는 천정기증기와 협동하여 대형제관물들을 들어올리느라고 웅글은 동음을 울리고

안전띠를 맨 건설자들은 보이라동체에 붙어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들끓어번진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을 비롯한 청진지구의 공업기업소들에 열을 주고 힘을 주고 빛을 주는 심장이며 인민들의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펼치게 하는 기본고리의 하나인 영광의 일터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살며 일하는 보람과 영예가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있기에 그들은 뛰고 달려도 성차지 않은것이다.

우리는 현재 돌리고있는 발전기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일데 대하여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실무지도에서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전력증산투쟁을 벌리고있는 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혁신적성과를 알기 위하여 화학직장과 열생산직장, 타빈직장들을 돌아보았다.

열생산직장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발전소 기술과장동무는 올해에 들어와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어나고있는 혁신적소식들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발전소에서는 새해에 들어와서만도 100여건이 넘는 가치있는 기술개조안들이 제기되어 실현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현존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을 증산하고 석탄을 절약하기 위한데 크게 이바지되고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보아 주신 1호기 타빈, 발전기와 보이라들을 비롯한 많

은 설비, 기대들이 《26호모범기대》칭호를 받았다.

《우리 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 솟아난 동력기지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지요. 이제 오래지 않아 3호기를 마저 조립하게 되면 청진지구 금속공장들의 전력문제를 원만히 풀고 1천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될것입니다.》

기술과장의 이런 이야기를 다시 확인이나 하듯 뜨거운 열을 뿜어대며 고압증기를 생산하고있는 보이라들에서도, 세찬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고있는 타빈, 발전기들에서도 우리는 이곳 전력생산자들의 높뛰는 심장과 뜨거운 열정을 느꼈으며 천리혜안의 빛나는 예지로 이곳 발전소가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꿰뚫어보시고 여기에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지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에 절절히 느끼었다.

우리는 이곳 발전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실무지도에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리라는 확신을 안고 발전소정문을 나섰다.

정문을 나서서 발전소의 전경을 다시 바라보느라니 새로 일떠선 동력기지의 약동하는 새 기상인양 하늘높이 치솟은 발전소굴뚝에선 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있었다.

수 평 선

문동식

아침이면 해빛이
저녁이면 별빛이
정다이 불러주는 저 수평선
내 마음속에 안고사는 저 수평선

찬비 뿌리던
포구의 아침
손저어 멀리 바라워주시던
수령님의 그 사랑 해빛으로 피어나는

눈꽃 날리던
귀항의 저녁
기다려 바다 멀리 바라보시던
수령님의 그 사랑 별빛으로 피어나는

망망한 바다
저 수평선
아버이의 자애깊은 품속에 열린
정든 포구의 동구밖길이어니

나를 바래주고
달려나와 맞아주며
어머니 서있던 동구밖길은
저기 저 도래굽이에서 끝나도

아, 파도우에 청춘을 꽃피워가는
이 아들 품어주는 수령님의 사랑은
멀고먼 수평선 저 끝에서
나의 배길 언제나 지켜주고있어라

시간이여 우리를 따라오라

김길환

1

구역병원 산부인과를 나온 박춘갑은 어수선했던 마음을 애써 누갓히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흰 대기차들이 서있는 마당을 지나 주력지구로 곧추 뻗은 큰길에 들어선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지금처럼 자기한테 귀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껴본적이 일찌기 없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수 없는것이 시간이기때문만도 아니였고 생활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가차없는것이 시간이라는 의식때문도 아니었다.

기계련합기업소의 오랜 연공인 그는 기나긴 인생에서 시간앞에 무력해진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간을 놓고 당황해지는 자신을 다잡지 못해보기는 처음이었다. 뒤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며느리가 그의 발목을 끌어당겼고 앞에서도 그를 기다리는 일이 있었다.

박춘갑은 걷다가는 돌아서 아침해빛에 번쩍이는 입원실창문을 한참 바라보고 또 걷다간 다시 돌아보았다. 첫 해산에 림박한 며느리를 만나 안심을 시키고 나온 길이지만 걸음이 자꾸 떠지었다.

남달리 고생속에서 살아온 박춘갑은 세상풍파를 겪어보지 않은것이 없었고 이미 3천톤과 6천톤프레스를 만들면서 범같은 담력을 지닌 로력영웅이었다. 심장이 쇠덩이보다 굳센 그는 무서운것을 몰랐다. 그러나 며느리일을 두고는 약해지는 마음을 어쩔수가 없었다. 방금전에도 산부인과 과장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할테니 걱정 말라고 거듭 안심시켰으나 파릿해진 며느리 얼굴이 눈앞에 밝혀와 걸음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를 끔찍이도 귀해하였다. 남들만 보지 않는다면 아마 손바닥에 똥똥 떠받들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대학을 졸업한후 기계공업부에 소환되어간 아버지결에서 떨어져 부득부득 제가 자란 로동자구역으로 돌아온것도 기특하거니와 벌써 수많은 어려운 대상들의 설계를 꼼꼼히 착실하게 해낸 며느리였다. 성품이 안온하고 결보기에는 버들잎처럼 가늘고 연약했지만 이번 1만톤프레스의 아름다운 누름틀설계도 용케 해제기고 병원으로 향했었다. 이제 와서야 박춘갑은 감때사납기로 유명한 아들이 며느리한테 꼼짝을 못하고 비둘기처럼 오손도손 지내가는 원인을 똑똑히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더더욱 그의 마음이 통채로 며느리한테 쏠리는지도 몰랐다.

그는 마누라가 이 세상에 없고보니 꼭 자기가 대신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있어야만 될것같은 애끓

는 정에 잠겨있었다. 그곳에 시아버지가 앉아 있다는것만 알아도 며느리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질것인가...

박춘갑은 어느사이 주력어귀에 들어섰음을 깨닫자 그자리에 무릎 서버렸다. 자기가 생각과는 달리 여기까지 그냥 걸어온것이 이상했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며느리일보다 못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아들의 문제가 앞에서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낮에 있는 일이었다.

당위원회에서 열린 협의회는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좀처럼 결속되지 못했다.

신동혁책임비서는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침묵을 깨뜨리며 벌써 세번째나 참모일꾼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어서 누구든지 말해보시오. 좋은 생각들이 있겠는데.》

여기저기서 마른 기침소리가 들릴뿐 회의실은 여전히 물뿌린듯 조용했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정적이 실내를 압박하고있었다.

문득 앞줄에서 한사람이 용단을 내리고 일어섰다. 키는 작으나 다부지게 생산부기사장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초점인 누름틀은 만톤프레스의 심장입니다. 한토막의 무게만두 60톤이나 되지요. 그걸 어제 종합보링반으로 운반해 갈려구 겨우 대차에 실었지요. 기관차두 땀다 끌었습니다. 동무들, 열발자국도 가기전에 레루를 세번이나 분질러먹었습니다. 운반은 결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00메터구간을 중량레루로 바꾸기전에...》

《가만, 레루를 바꾼다면 며칠 걸릴것 같소?》

《땀다 밀어내야 최소한 9일입니다. 거기에 가공시간을 한달보면... 이견 터무니가...》

《앉으시오. 안되겠소. 부득불 70메터 문형평삭반에서 가공할수밖에 없겠구만.》

그러자 공무동력 부기사가 선뜻 일어났다.

《거기에서 가공하자면 기일은 단축할수 있겠지만 두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과연 연공동들이 30톤기중기로 60톤소재를 들수 있겠는가? 또 홍철동무네가 누름틀가공을 기계공업력사에 해낸 레가 없는 문형평삭반에서 할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신동혁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럼 먼저 연공들의 의견부터 들어봅시다. 영웅아바이, 지난 기간 3천톤프레스기중도 들어본 경

힘이 있잖습니까.》

박춘갑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들어올리는 문젠 예나 지금이나 매일반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연공들이 꼭 해내겠수다. 아까두 이러쿵저러쿵 의견들이 구구했는데 원, 열주머니가 그렇게 작구서야 무슨 큰일을 치겠소. 이게 어떤 과업인데 주저하겠소? 우리가 한다구 하면 해내구알았지 언제 물러선적이 있수다? 피가 툭툭 뛰는 심장은 뛴다 뛴에 쓰자는게우? 책임비서동무, 연공작업에 대해선 말을 놓수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지배인이 책임비서에게 얼굴을 돌리고 한참 수군거리더니 자기의견을 내놓았다.

《대담하게 말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재구있는것이 탈이긴 탈입니다.》

《예, 나두 그 생각입니다. 기술력량을 불입시다. 아바이, 앉으십시오. 다음 가공문제를 봅시다. 홍철동무가 안왔소?》

문가에 앉아있던 조직부 지도원이 일어섰다.

《사람을 두번이나 띄웠는데 본인이 없답니다.》

박춘갑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안타까이 기다리던 아들이 끝내 회의에 오지 않자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가슴이 타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가. 1만톤프레스의 심장부에 어깨를 들이밀고 그것을 알아안는가 마는가 하는 엄숙한 시각이다. 마땅히 로세대의 바통을 넘겨받아야 할 새세대인 아들은 보란듯이 당당하게 이 회의실 중심좌석을 차지하고 앉아야 하며 이 절박한 사태앞에 서슴없이 대답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심각한 순간에 어디로 가서 자기 위치를 비우고있단말인 가.

《본인이 없으니 기술가공실 동무들, 어디 의견을 제기해보시오.》

책임비서가 물었으나 또다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가공을 담당해야 할 홍철이가 없는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워낙 가능성이 바늘귀만큼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 누구도 선뜻 일어서지 못했다.

박춘갑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더 자주 담겨있는 나들문을 돌아보았다. 이제라도 아들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며 《합시다!》 하고 웨칠것만 같았다. 그는 아들이 자기처럼 배짱이 세고 쇠막대기처럼 좀해서는 휘여들지 않는 성미를 가진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겨왔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다.

1만톤프레스 설계전투가 시작되자 홍철은 매식도 있고 신바람이 나서 뛰어다녔다. 가공하기가 가장 어렵고 큰 누름틀은 무조건 자기네 작업반이 맡아 깎는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반원들을 데리고 설계실로 뛰어들어 도면료해를 앞세웠고 목 형도 되기전에 가공지구와 장비를 다 마련해놓고 소재가 나오기를 기다렸던것이다. 한데 정작 협의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지금에 와서 자리를 비우고있다니?

《자, 제기할 동무가 없습니까?》

신동혁이 기다리다 못해 재촉했다.

뜻밖에도 박춘갑이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의 놀라운 눈길들이 일시에 그한테로 쏠렸다. 가공문제를 묻는데 하등 상관없는 연공이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 누름틀은 하늘이 무너져두 평삭반에서 해야 하우다.》

《?!》

한순간 신동혁도 지배인도 회의참가자들모두가 놀라와했다. 그것을 말아할 기대공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았을것이다. 이런 회의분위기를 눈치챈 신동혁이 미소를 지으며 통삼아 물었다.

《혹시 아들의 기대에 기어이 물리구싶어 그러는게 아닙니까?》

결에 앉은 지배인이 한마디 꺼들었다.

《그 작업반 기증기운전공두 아바이의 딸이지요.》

《허허... 그럼 온 가족이 그걸 말을 셈이군.》

회의실에는 가벼운 웃음이 지나갔다.

박춘갑은 정색해서 다급히 입을 열었다.

《아니우다. 우리가 당에 맹세한 기일이 있잖수다? 어차피 다른 출로는 없는게구.》

그는 끝내 협의회의앞에서 아들을 대신하여 대답을 하고만것이다...

구내길을 걸어가는 박춘갑은 생각이 복잡했다. 3월초순이긴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맵찔다. 그러나 청년공원의 백양나무가지에 앉은 한쌍의 까치가 마른 삭정이를 물고 꼬리를 축삭거리며 울었다. 아마도 벌써 둥지를 틀려는 모양이였다. 한적한 공원에 처너총각이 서있었다. 박춘갑은 때이르게 공원을 찾은 그들의 모습과 까치의 울음소리에서 영광의 보고를 올려야 할 10월의 그날이 빨리도 다가옴을 온몸에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애가 왜 협의회장소에 못왔을가? 혹시 연공인 이 애비를 믿지 못해서일가?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나 엄청나게 큰 누름틀을 보자 지레 겁부터 먹은것일가?)

박춘갑은 가슴이 쓰러 머리를 수그린채 큰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2

아빠트거리에 들어선 박춘갑은 걸음을 다그쳤다. 인제는 아들도 딸도 퇴근하여 집에 와 있을것이였다. 오늘저녁에는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앉히고 단단히 신칙해야겠다고 벌렸다. 얼얼해나는 가슴을 진정할길이 없었다. 자식들을 땡땡 쇠소리가 나게 키우려고 애쓴 자신의 노력이 배반당한것 같기도 했고 이때까지 살아온 한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박춘갑은 갑자기 가벼운 경적소리를 내며 승용차가 옆에 와 멎는바람에 흠칫 멈춰섰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도로 들어섰던것이다.

신동혁이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퇴근하는 길입니까? 어서 타십시오. 기수직장 보이라공네 집에 방문을 가던 참인데 마침 잘됐습니다.》

박춘갑은 뜻밖에 나타난 책임비서를 보자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하루종일 혼자 땀가슴앓듯하던 그에게 빈거로운 속마음을 터놓고 의논할수 있는 오랜 벗이 나타났던것이다. 그는 바쁜길을 가고있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을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왜 그러구 섰습니까? 어서 이쪽에 오르십시오.》

신동혁은 박춘갑의 팔소매를 잡아 막무가내로 끌었다. 하는수 없이 박춘갑은 차안에 들어갔고말았다. 승용차는 포장도로를 소리없이 미끄러져갔다.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머느리한테는 가봤습니까?》

《예, 이자 거기서 오는 길이우다.》

《산모전강은 어떻습니까? 내 원장한테 전화를 걸긴 했습니다만...》

《머늘엔 뭐 별루 아직...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책임비서동무, 찰 좀 세워주시우다.》

《아니, 왜 그러니까?》

《한시두 미룰수 없는 일이 돼와서... 저 책임비서동무, 내려서 좀 의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신동혁은 1만톤프레스 제작과 관련된 문제인것 같아서 인차 응해나섰다. 승용차는 길녘에 멈춰섰다. 박춘갑의 뒤를 따라내린 그는 차를 돌려보내고 나란히 걸었다.

박춘갑은 미안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뱉다.

《혹시 급한 걸음이 아니우다? 괜히 나때문에...》

《거긴 좀 늦어두 일없을겁니다. 기수직장 보이라공을 알지요? 거 왜 지난해 무연탄을 35톤이나 절약한 동무가 있잖습니까?》

《아- 도방식상화에 출연한 젊은이?》

《예, 그 동무가 자재과장네 딸하구 서로 죽자살자하는 사이였다지요. 한데 며칠전에 정작 약혼을 하자니까 과장네쪽에서 튼다질 않습니다. 내 그래서 오늘은 아예 뿌릴 들어낼 작정을 했지요. 젊은 사람이 어깨가 처져 다니는걸 못보겠더라말입니다.》

《회의뎌 그렇게두 말 잘하는 자재과장이... 음.》

박춘갑은 쓰거운 입을 다시며 방금전에 공원에 서있던 처녀총각을 생각했다.

그들은 길가에 있는 체육구락부로 꺾어들어갔다. 탁구와 권투훈련에 여념이 없던 청년들이 땀이 번지르르한 얼굴로 인사들을 했다.

신동혁과 박춘갑은 한쪽에 치우친 아담한 휴게실

로 들어가 안락의자에 앉았다.

담배를 꺼내 피워문 박춘갑은 긴 연기를 후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책임비서동무, 지금 공장에 3천톤프레스를 만들 때 펄펄 뛰어다니던 당원들이 기본부문에 몇이나 남아있수다?》

《그건 갑자기 왜 묻습니까?... 이젠 열손가락안에 꼽힐 정도지요. 그때 주력을 이루던 사람들이 나 이두 먹구 또 중요한 직책에 소환두 되고보니...》

《...》

《세월은 멀리두 흘러왔지요. 아바이두 그뎌 처녀들이 줄줄 따라다니던 멧쟁이 청년이였댜지요. 허허... 그래 무슨 묘책이라두 떠올랐습니까?》

《그런게 아니우다. 실은 내 오늘 난생처음으로 심각한 고민에 맞닥들었수다. 그래두 홍철이 저 녀석이 이번 만톤프레스 제작에서는 한몫 단단히 할줄 알았지우다. 한데... 아까 협의회를 끝내구 복도를 나올 때 가공실장이 하던 말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질 않수다.》

《아바이, 무슨 근거로 가공문제까지 담보해나십니까? 우리두 홍철동물 두번이나 만나 의논했지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않길래... 아바인 실정두 모르시면서...》 이러질 않겠소. 협의회에두 참가 안한걸 보니 이녀석이 분명...》

박춘갑은 후들후들하는 손으로 불이 죽은 담배에 다시 성냥을 고어댔다. 그의 철색얼굴에 짙은 수심이 비껴있었다. 신동혁은 이제 와서야 이 오랜 연공이 프레스생산문제가 아니라 아들때문에 괴로와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도 춘갑의 아들이 그렇게 처신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홍철이가 오랜 로동계급의 가정에서 태여났고 또 영웅아바이한테서 자라났다는데로부터 별로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것이다.

몇해전 그가 제대되여오자바람으로 자기를 찾아와 공장에서 가장 어려운 기대를 맡겨달라고 했을 때 기쁨을 감출수 없었고 작업반장으로 자라기까지 일을 아버지처럼 드세게 내미는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었다. 그러니 사람이란 세찬 풍랑앞에 내세워보아야 진가가 나타난다는 말이 맞는것 같았다. 그는 하루사이에 퍼그나 눈가에 주름살이 많아진것 같은 박춘갑의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잘 타일러주면 제 궤도에 들어서겠지요.》

《이젠 별수 없이 범이 시라소니를 키웠다는 말을 듣겐 댜지만, 그 애들이 우리 세대의 뒤를 옹게 잇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우다. 예? 생각만 해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말이우다?》

두사람은 오래동안 침묵에 잠겨있었다. 머나먼 간고한 길을 걸어왔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을 바쳐 거창한 대굴지의 기계련합기업소를 일떠세운 그들로서는 그것을 인계받을 자식들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대

가 바뀌는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마땅히 후세가 전세대의 정신과 기백을 옹계 이어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구락부 관장이 들어왔다.

《저... 공장선수들의 훈련을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지나가던 길에 잠깐 쉬려 들어왔소. 가서 하던 일을 그냥 보시오.》

신동혁이 우선우선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자 관장은 돌아서 나갔다.

《책임비서동무, 우리야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지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8메타타닝반과 3천톤프레스를 만들라구 우리 로동계급에게 과업을 주시였을 때 우린 부끄럽지 않게 해냈지요. 또 6천톤프레스두 온갖 곤난을 이겨내며 기어이 일떠 세웠구, 한데 이번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멀리 떨어진 우리 공장까지 찾아오셔서 1만톤프레스를 만들 과업을 주셨지요. 그러니 이제 어차피 공장의 주인이 된 저 애들의 세대가 이걸 기어이 해내야 할게 아니겠수다.》

박춘갑은 지도 모르게 흥분하여 목청을 돋구었다. 지나쳤던것을 느꼈던지 그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창밖에 눈길을 던졌다. 구락부마당에 심어놓은 애 어린 수삼나무가지에 눈길을 멈춘 그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제 한몸을 서슴지 않구 내대야 할 자식이 저렇게 되었으니... 죽어두 눈이... 감기겠...》

억실억실한 두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해진 박춘갑은 걱정이 솟구쳐올라 뒤말을 잊지 못했다. 신동혁은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그는 아버지가 나라의 존망문제인 새세대의 장래를 두고 이렇듯 가슴아프게 생각하고있는줄은 몰랐다. 그도 이따금 먼 앞날을 그려보며 명상에 잠길 때도 있었다. 새로 자라나는 당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먼 후날의 운명과 결부된 조국에 대하여 생각했다. 역시 아버지도 이 큰 공장을 운영해갈 사람들에 대하여, 세대의 근본자세에 대하여 모대기고있는것이다.

《춘갑아바이, 난 오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 젊은이들을 옹계 이끌어갑시다.》

《예, 사실 10월에 우리가 만톤프레스를 만들었다는 보고만 가지구 올라가겠습니까? 더 중요한게 있지요.》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구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왔듯이 우리 아들딸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받들구 역세게 나갈수 있는 참된 로동계급이 됐다고 보고를 올려야 하지 않겠수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난 오늘 참으로 기쁩니다.》

《앞으로 책임비서동무, 날 많이 도와주시우다.》

박춘갑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동혁이도 따라 일어났다.

3

박춘갑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텅 비어있었다. 자식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병원에 들렀다 오느라고 늦는 모양이었다.

그는 외출복을 갈아입은후 물초롱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저녁해빛을 받아 싱싱한 꽃잎새가 피빛으로 붉게 타는 홍초에 물을 준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섰다.

얼마후 신발을 탁탁 터는 소리가 들리더니 억대 우같은 아들이 썩 들어섰다. 옷방에서 내려다보니 얼굴색이 그리 좋지 못했다.

《인제 오느냐? 나오던 길에 병원에 좀 들러봤나?》

《공장에서 곧장 왔습니다.》

얼굴이 불깃불깃한 홍철은 외투를 벗어걸며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머느린 별일 없더라. 아직은... 산부인과 과장이 그러는데 래일 아마... 한데 어제밤엔 왜 안들어왔나? 오늘 협의회에두 참가하지 않구?》

《기술지도원동무하고 가공방도를 토론했습니다. 기증기능력두 타산해보구요.》

《음, 그렇다면 협의회에 참가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제기해야지.》

홍철은 잠시 갑자르다가 입을 열었다.

《누름틀이야 아무래두 우리가 짊아야 할건데 이러구저러구 할게 있습니까. 그걸 해결할 방도를 찾기전에야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이리머 세면장으로 들어갔다. 썩 수도를 틀어놓고 푸푸거리며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춘갑은 기뻐다. 오늘 협의회때부터 아지 못할 위구와 불만으로 가득찬 가슴이 남달리 무거웠던 그였다. 그는 아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할가봐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 그런데 인제 보니 홍철은 자기 기대에서 누름틀을 가공할 결심을 여전히 달리 하지 않은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 애비의 연공숨씨를 믿는단말이지.)

박춘갑은 마음이 흥그로워졌다. 그는 정겨운 눈길로 거울앞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있는 아들의 뺨같은 잔등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잠시나마 아들을 믿지 못했던 자신이 면구스러워났다. 남의 말을 듣고 제자식도 믿지 못한것을 보니 이제 확실히 늙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누름틀을 어느 기대에서 깎을것인가? 또 문형평삭반에서 할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놓고 론쟁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아들은 무조건 자기네가 해야 한다는 전제밑에 그 시간에 벌써 방도를 탐구하느라 모대기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 일인가. 그는 아무렴 벼그루에서 벼가 자라겠지 쑥대가 날테가고 생각하며 아들을 불러앉혔다.

《그래 대책안을 좀 찾아냈느냐?》

《예, 묘안을 찾긴 했지만...》

《가만 그걸 제껴 얘기하렴... 였다.》

박춘갑은 안주머니에서 원주필을 꺼내 장판구들에 내밀었다.

홍철은 책상우에서 커다란 백지를 가져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중기능력을 시험해보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네가 우리 연공들이 해야 할 일두 연구했단말이나?》

박춘갑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 문제부터 해결돼야 우리 작업반이 누름틀가공을 시작할게 아닙니까?》

《음, 허긴 그렇기두 해.》

《우린 밤에 우리 작업반 기중기능력을 시험해보았습니다. 중력을 견딜수 있는 한계점을 알기 위해 기중기체에서 땅에 노끈을 드리웠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구 60톤누름틀을 들어보았지요. 기중기체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도를 찾아낸 것이 목도채원리입니다. 군대에서 한번은 간석지공사에 나갔었는데 그때 우린 목도채가 너무 부러져 부대적인 협의를 한적이 있거던요. 옥신각신 논쟁하던중 누군가 중심중력을 가늠으로 옮기자 뒤사람이 좀더 힘들겠지만 엇바뀌서 메면 일없이 앉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목도채를 부러뜨리지 않으면서두 많은 흙을 운반한적이 있었지요. 기중기에도 그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누름틀을 경간기둥쪽에 치우쳐서 들자는거지요. 평삭반두 벽쪽에 있으니까요.》

《그것 참, 신통한 생각이야. 아주 신통해. 역시 젊은 사람들머리가 나아.》

박춘갑은 무릎을 치면서 영치를 들썩거렸다. 기쁨을 참을길이 없었던것이다.

그때 나들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홍옥이냐?》

박춘갑이 물었다.

《예.》

《너두 여길 들어오너라. 네 오빠가 굉장한 발건을 했다.》

《뭐 기뻐하긴 아직 이릅니다.》

홍철이가 시무룩해서 대답했다.

《왜 ?》

웃방으로 올라온 딸이 아버지곁에 쏙그리고 앉아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홍철은 설명을 계속했다.

《보조활차를 두개 더 설치하구 들었지요. 기중기체가 아츠러운 소릴 지르며 휘기 시작했습니다. 드리운 노끈이 한치한치 땅으로 접근했지요.》

《그래서 ?...》

《40센치메터... 35센치메터... 다음 20센치메터... 누름틀은 가까스로 들렸습니다. 더는 들수 없었습니다. 한계점은 20센치메터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기술지도원동무가 그 공간을 가지구는 기중기공과 제동수로 올라가있는 두사람의 안전을 믿기 어렵다는거지요. 제 생각두 그렇습니다.》

《음...》

박춘갑은 갑자기 기가 죽어버렸다.

《기중기를 움직이면 바퀴의 구름 진동에 얼마나 한 힘이 더 내리누를지 누구도 알수 없지요.》

홍철은 원주필을 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듯이.

박춘갑의 환해졌던 얼굴에 그늘이 덮이기 시작했다. 소재를 들 방도가 거기에서 막혀버린때문만도 아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리에서 꿈 일어났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홍철이와 홍옥이는 실망에 잠겨 창가에 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애, 네가 시험을 끝냈을 때가 몇시냐? 한계가 20센치메터밖에 남지 않았다는걸 알게 된 때가말이다.》

홍철은 아버지의 뜻밖의 물음에 어안이 병병해 있다가 심상하게 대꾸했다.

《어제밤 세시경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인제야 얘기하느냐? 협의회에 제기하질 않구.》

아버지의 물음은 점점 엄격해졌다.

《제기한다고 해두 감히 누가 기중기우를 올라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뭐라구? ...》

박춘갑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잠전에 아들한테서 받았던 기쁨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오늘 내내 자기 가슴속에서 맴돌던 위구가 괜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깨달았다.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군. 이녀석이 확실히 병이 들었어.)

그는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서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넌 왜 우리가 올라갈 생각은 못했냐? 나두 연공이구 저 애두 기중기운전공인게구 또 너두 제동수쥬이야 할수 있지 않느냐?》

《예 ? !》

홍철은 눈이 등그래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

는 이때까지 아버지가 실망해서 안타까와한 원인이 기술적방도가 원만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것이 아니었다. 바로 자기를 두고 대담한 용단을 내리지 못한 자식에 대해 피로와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험이 끝난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 갔나? 네가 무엇으로 그 시간을 보상할테냐? 난 네가 그렇게 나약한 인간인줄은 모르구있었구나.》

박춘갑은 담배를 붙여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홍철은 고개를 수그리고 앉아 대꾸를 못했다.

그날 밤, 박춘갑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인하고 해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앞에서 아들을 옹계 키우지 못한 자책이 가슴을 아프게 허였던것이다. 어릴 때부터 기계기름냄새를 맡으면서 자랐고 놀아도 쇠붙이를 안고 놀며 자란 아들이 왜 저렇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물론 홍철은 이런 일에 처음으로 맞닥들였고 그래서 당황해질수도 있었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이제 다 자란 그 애가 자기 가슴을 내뭇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끝내 박춘갑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고말았다. 속에서 번열이 일어 견딜수가 없었다. 옷방에서 잠든 아들이 깨여날까 봐 가만가만 옷을 주어입고 밖으로 나왔다.

갈구랑달이 공장굴뚝에 걸려 희여스름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대기는 여전히 맵찔다. 그는 뒤집을 지고 마당을 뚜벅뚜벅 거닐었다.

(기중기능력의 한계가 20센치미터밖에 없단말이지…)

20센치미터… 사람의 기나긴 한생에서 그만한 길이를 걸어가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이 시간에 1만톤프레스의 성공과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있었다.

그것도 기중기운전공과 제동수는 아스랑게 높은 천정기중기우에서 작업해야 할 사람이다. 과연 그 작은 공간이 그들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겠는가?

박춘갑은 걸짐에 큰소리로 질책하긴 했지만 복잡한 심정은 다잡을수 없었다. 홍철이 말한것처럼 문기중기가 육중한 누름들을 움직일 때 받는 힘을 견디여내겠는지 확신을 가질수 없다는것은 명백했다.

그것은 기중기가 멈춰선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는 시험과는 다르다. 그러기때문에 이 일이야말로 어떤 요구나 강요로 될것이 아니었다. 물론 아버지가 요구하면 자식들은 위험을 동반한 자기 위치들을 차지는 할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안정된 마음이라야, 자신심과 용기를 가진 사람의 드림없는 마음이라야 그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곤난을 이겨낼수 있는것이다.

박춘갑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자식들이 감당해내겠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한발을 내디디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을 받드는 길이기에 서슴없이 열발자국을 내디딘 선렬들처럼 그런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피땀 다른 작업반에 붙은 연공 몇명을 데려오는 편이, 아니면 공장적으로 호소하여 자진 나서는 선발된 사람들로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다른 작업을 죽일수는 없었다. 더우기 그는 자기앞에 맞닥들린 난관을 피하거나 남한테 떠민적이 한번도 없었다. 어떻게 하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하겠다고 한 일이니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제서야 한결 무겁던 마음이 가라앉아 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박춘갑은 순간 그자리에 서버리고말았다. 홍철이와 아버지 외투를 든 홍옥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서있었던것이다.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괜히 엄한 소리를 지른것이 후회되였다.

홍옥이가 달려오며 부르짖었다.

《아버지! … 추운데 밖에서…》

《나온지 오래되었느냐?》

《…》

《초봄날씨치군 류달리 푸근하구나. 어서 들어가자.》

그의 목소리는 애정에 젖어있었다.

4

이튿날아침.

박춘갑은 홍철이와 기술지도원을 데리고 보조견양장치를 하고있었다. 복합차를 더 설치하여 기중기능력을 높이려는것이였다.

홍옥이를 기중기로 올려보낸 그는 허리에 안전띠를 매고 누름틀소재에 팔뚝같은 쇠바줄을 감기시작했다.

그때였다. 기대사이를 누비며 나아린 직장통제원 처녀가 달려왔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반장동질 바뀌달래요.》

박춘갑은 가슴이 덜컥했다. 출근길에 잠깐 들렀을 때 머느리가 진통을 겪느라고 신음하고있는것을 보고왔던것이다. 난산을 예견한 산부인과 과장의 얼굴도 흐려있었다.

그는 쇠바줄을 당기고있는 아들을 넘겨다보았다.

《가보렴.》

아들이 기름걸레로 손을 문지르며 통제원을 따라가자 그는 다시 일을 잡았다. 그러나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산란해지는 마음을 달랠수가 없

었다. 그는 쇠바줄을 놓고 축소재우에 걸터 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좀 쉬세.》

기술지도원에게 한마디 이른 그는 근심에 잠겨 담배만 연이어 빨아댔다.

불현듯 그의 머리에 3천톤프레스의 기둥을 들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며느리의 아버지인 부직장과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속에서 20톤기중기로 엄청나게 무거운 기둥을 들어야 했다. 안해를 입원시키고 나온 그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안고 자신을 이겨내며 기어이 기둥을 들고말았다. 3천톤프레스를 시운전하던 날 그는 아들 홍철이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시절이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오늘 또 자식을 보게 되었다. 박춘갑은 이 신기한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딱히 짚을수 없어도 한세대가 빨리도 바뀐다는 의식만은 가슴에 콕 미쳐왔다.

얼마후 사무실에 갔던 홍철이가 돌아왔다.

《해산했다는 소식이 아니냐?》

담배불을 끄고 일어난 박춘갑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감추며 태연하게 물었다.

《뭘, 별다른 전화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일하는 사람을 찾았다느냐?》

《...》

홍철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망설였다.

《이 애비두 알구있어야 할게 아니냐?》

그는 불안의 그림자가 비친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다그쳐 물었다.

《혈압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인차 회복될거랍니다.》

기술지도원이 걱정하며 한마디 했다.

《누구 한사람 나가봐야지 않을가요?》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춘갑은 안절부절 못했다. 눈앞에 고통으로 모태기는 며느리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라 가슴을 지지였다. 그는 쇠바줄을 움매다가 끝내 땅우에 던져버리고 안전띠를 풀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가려고 걸음을 땀다.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아버지, 이걸 좀 붙잡아주십시오.》

그는 그자리에 흠뻑 멈춰섰다. 아들의 조용한 말이 거대한 힘을 가진것처럼 선자리에 비끄러내는 것이었다. 당황해진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는 아무 필요도 없는 지레대를 집어 돌려메고 아들의 곁으로 갔다. 마치도 자기는 전화기가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지레대를 가지러 갔다는듯이.

그는 아들을 도와주려고 쇠바줄끝을 쥐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없었다. 이미 쇠바줄은 움아매져

있었던것이다. 가슴이 몽클해진 그는 와락 아들을 꺼안고 네 마음이 그러니 인제는 뻘다고 웨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도 숨길줄 안것처럼 기쁘다 가슴속에 깊이 묻어둘줄도 알았다.

제자리로 돌아간 그는 다시 일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며늘에야. 용서하거라. 그리구 꼭 이겨내야 한다.)

준비작업을 마친 박춘갑은 자식들을 자기옆에 불렀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이들부터 먼저 바라보았다.

《제동수로 올라가겠느냐?》

《예.》

홍철의 대답은 신심에 차있었다. 그는 기뻐다. 묘안을 찾아내고도 뒤로 미룬 아들이었고 지난 밤 뜬눈으로 뒤치락거리며 모태긴 아들이었다. 그랬던 그가 이처럼 하루밤사이에 변모될줄은 몰랐다. 박춘갑은 자기가 잊저녁에 엄하게 타이르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순간 늘 밧그레했던 홍옥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기 시작했다. 홍옥은 아버지의 눈길을 슬그머니 피하며 선뜻 대답을 못했다. 딸의 더수기에 멎은 춘갑의 눈길은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참기 어려운 시간이 흘렀다.

《홍옥아!》

홍철이가 더는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불렀다. 그래도 홍옥은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박춘갑은 가슴이 허전했다. 불시에 온몸의 맥이 발아래로 흘러내리는것 같았다. 담벽같이 서있던 그는 한풀 꺾인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어쩌겠니. 정 그렇다면 다른 운전공을 부르는 수밖에.》

순간 딸이 머리를 쳐들었다. 아버지를 쳐다보는 눈에 판단키 어려운 물기가 어려 파르르 떨었다.

《안돼요. 그건 싫어요!》

홍옥은 갑자기 뻘 돌아서더니 기중기사다리로 뻘다 달려갔다. 그러나 어린 처녀가 동요하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앵두같은 입술을 피지게 깨물고 달려가고있다는것은 누구도 몰랐다.

아들까지 기중기우로 오르자 박춘갑은 작업시작을 알렸다.

그때였다. 언제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장 기대공들이, 다음에는 단조공들과 주형공들이 달려오고 구내길을 가던 사람들마저 밀려들어 삼시간에 작업장주위를 둘러쌌다.

신동혁책임비서가 일군들을 데리고 혈씩거리며 내려왔다. 팔에 완장을 두른 로동안전원들이 사람

들을 밀어내며 질서를 잡아나갔다.

박춘갑은 신동혁에게 보조견양장치의 우월성과 기술적타당성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자식들이 오늘 자진하여 기증기우로 올라갔다는것도 잊지 않고 말했다. 그러자 책임비서는 기쁜 얼굴로 기증기우를 쳐다보았다.

드디어 박춘갑은 신호기발을 들었다.

홍옥이가 운전을 시작했다. 모터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쇠바줄들을 죄어나갔다. 기본쇠바줄도 보조견양쇠바줄도 당장 끊어져나갈듯이 팽팽해졌다. 그러나 집채같은 누름틀소재는 끄떡도 안했다. 이제 더 죄우면 쇠바줄이 건널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한껏 긴장해졌다.

《더 들라 !》

박춘갑의 거친 목소리가 찢렁찢렁 울렸다. 홍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잡이를 조금씩 돌려나갔다. 정적이 깃든 현장에 편양치차가 돌아가는 아츠러운 소리만이 들렸다.

《더 !》

박춘갑의 철색얼굴이 근엄한 표정을 띠었다. 집채같은 소재가 움썩했다. 조금만 더 올리면 소재가 들릴것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굼뜨게 흘러가는 순간을 재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탕!... 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싸쥐었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광경이었다. 트라스에 건 보조쇠바줄이 끊어져나갔던것이다. 쇠바줄이 늘어지며 소재는 다시 세멘트바닥을 짓뭇개고 들이박혔다.

제동수로 올라가있던 홍철이가 트라스로 기여올라갔다. 그는 아스라한 천정에서 흔들거리는 쇠바줄을 손에 감아쥐고 다른 트라스로 배밀이해나갔다. 누가 시킨것도 아니었다. 제스스로 아슬아슬한 일에 잠시의 주춤거림도 없이 선뜻 나선것이다. 아들에게 그런 용단이 어디서 생겼는지 박춘갑은 놀라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그가 간신히 쇠바줄을 움아매고 내려오자 박춘갑은 혼향이 깃드는것 같은 가슴을 내밀고 다시 기발을 들었다. 그 런데 웬일인지 모터가 돌아가지 않았다. 수백의 놀라운 눈길들이 기증기우로 쏠렸다.

박춘갑은 가슴이 덜렁해서 쳐다보았다. 뜻밖에도 운전칸에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기증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기증기!-》

박춘갑은 연거퍼 딸을 찾아 소리질렀다. 뒤이어 빨간 머리수건이 운전칸 창가에 서서히 나타났다. 딸이 났을 잃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은 그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신호기를 흔들었다.

사람들은 후둑후둑 뛰는 가슴들을 누르고 얼굴이 파래서 서있었다. 신동혁이 기증기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얼마후 움썩하던 소재가 뒤뚱거리며 한치한치 콩크리트바닥으로부터 쳐들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탄성과 함성이 터져나올 그찰나 기증기체가 휘면서 기름통이 허공 떨어져 쟁그렁하며 사람들의 목구멍을 메워버렸다.

박춘갑은 계속 신호를 보냈다.

《아바이, 어찌자구? 》

그는 기술지도원의 기겁한 소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기발만 흔들뿐이었다. 박춘갑은 이 어마어마한 현실앞에서 한 자식은 병원에, 두 자식은 언제 부러져내릴지 모를 기증기우에 올려보내 놓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홍옥은 용케도 운전을 해냈다. 허공에 매달린 육중한 소재가 흔들거리며 천천히 움직여나갔다. 기증기체에서 울리는 딱, 딱 하는 소리가 가슴을 에이는것 같았다. 기증기를 유도해나가는 박춘갑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기증기는 문형평삭반을 향해 참으로 굼뜨게 굴러갔다. 시간이 이렇게 더딘 때는 없었다. 마치 흘러가던 시간이 정지된것만 같았다.

박춘갑은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었다.

(아!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줬으면...)

기증기는 그냥 한치한치 전진해갔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박춘갑의 머리에는 입원실에 누워있는 며느리생각이 떠올랐다. 이상한 일이였다. 며느리는 지금 어런지? 혈압은 다시 올랐는지? 아니면?... 그는 집요하게 매달리는 불길한 생각을 쫓아버리려고 애썼다.

기증기우에서 다급한 신호종이 울렸다. 그제야 정신이 펄쩍 든 박춘갑은 하마터면 소재에 떠밀려 자빠질번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급기야 몸을 피했다

기증기는 안간힘을 쓰며 여전히 평삭반으로 전진했다. 한치... 또 한치...

드디어 한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 어떤 거대하고도 아름답, 뼈를 깎아내는것 같은 진통을 거쳐 누름틀은 끝내 평삭반베트우에 놓여졌다. 순간 얼어붙었던 현장에서는 함성이 터져올랐다.

그러나 박춘갑만은 누름틀소재를 그러안은채 기대서서 아무소리도 듣지 못했다. 온몸이 그대로 물주머니가 된 그는 만세소리도, 기쁨에 넘쳐 떠들썩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려는 자신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서있었다. 홍철이도 후들거리는 다리로 운전칸에 엎디어 울고있는 동생 곁을 지나 기증기에서 내려왔다. 책임비서가 홍옥의 어깨를 쓰다듬어주고있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홍철

이를 향해 장하다는듯 검은 눈을 깜빡해보였다. 어제밤 찾아와 고무해주던 그 모습이 다시 그려져 홍철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다. 저쪽 기대사이를 누비며 통계원처녀가 엎어질듯이 소리치며 달려왔던 것이다.

《아바이- 아, 아바이-》

현장에는 또다시 숨가쁜 정적이 내리눌렸다. 함성과 격동에 찬 부르짖음들이 일시에 딱 멎었다.

흐르는 눈물을 애써 훔치며 달려오는 통계원을 본 박춘갑은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이 금시 밖으로 튀어나올듯이 방망이질을 했다.

평삭반베트우로 다급히 기여오른 통계원처녀는 입을 실룩거리며 봉긋한 가슴을 오르내릴뿐 말을 못했다.

《저... 저...》

박춘갑은 와락 달려들어 우악진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부여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어서 말해라! 어서!》

《저... 아바이...》

끝내 처녀는 울음소리를 터치고야말았다. 눈물을 삼키던 그는 가까스로 부르짖었다.

《이... 이름을...》

《어이쿠!》

박춘갑은 그자리에 그만 궁둥방아를 찢으며 풍덩 주저앉았다. 우는지 웃는지 알수 없는 그의 철색얼굴에 그제야 피빛이 돌기 시작했다. 이윽고 부리부리한 두눈에 맑디맑은 이슬이 천천히 고여올랐다. 그는 이 순간에 10년은 감수한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에는 한꺼번에 안겨든 두가지의 크나큰 기쁨과 행복에 2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았다.

통계원은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울음이 헤론 자신을 드러낸것이 부끄러워났던지 얼굴을 싸쥔채 바람처럼 기대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박춘갑은 그 어떤 거대한 힘에 떠받들린듯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그는 애아버지가 된 아들을 찾아보았다. 홍철은 두무릎사이에 머리를 틀어박은채 베트우에 앉아있었다.

박춘갑은 아들한테로 다가갔다.

《애,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보구있지 않느냐.》

홍철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어깨를 그리안은 박춘갑은 궁지에 넘쳐 말했다.

《우리모두가 참으로 용케 이겨냈구나. 너두, 네 처두, 저 홍옥이두말이다.》

홍철은 근엄한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며 부르짖었다.

《아버지두요!》

책임비서가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

일주일후였다.

공장정문으로 승용차가 미끄러져나가고있었다. 차안에서는 박춘갑이가 자식들을 데리고 앉아있었다. 며느리가 오늘 퇴원하는것이다.

그동안 홍철은 수평으로밖에 깎지 못하는 내공반을 대담하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누름틀을 가공해냄으로써 한달이 아니라 몇새동안에 끝내고말았다. 기계공업력사에 또하나의 기적을 창조해낸것이다.

퇴근길에 오른 종업원들이 그들이 탄 승용차를 보자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들중에는 다시 행복을 찾은 보이라공청년과 자재과장 딸도 있었다. 맑게 개인 공장상공에서 비둘기떼가 날아왔다.

깊은 감회에 잠겨 차창밖을 내다보던 박춘갑은 떠날 때 책임비서와 나누던 말이 생각났다.

《아바이, 우리 위업을 이을 또 한세대가 생의 출발을 시작했군요. 손자애가 굉장히 크대지요?》

《예, 나두 처음에 봤을 땐 깜짝 놀랐수다. 그래서 제 에밀 고생시킨 모양이우다. 허허...》

《그래 이름은 지어주었습니까?》

《만이라구...》

《그저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의의도 깊구요.》

승용차는 병원을 향해 거리를 쏙살같이 달렸다. 두사람은 숙연한 기분에 잠겨 로동자구역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 구역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로동자들이 대대로 살아오며 장엄하고도 보람찬 생활을 창조해가고있는것이다.

박춘갑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말을 뱉었다.

《나는 이번처럼 시간앞에서 초조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란 련속적인 순차성만을 가진것이기때말이우다.》

《아니지요. 시간이란 립체성을 속성으로 하고있대구 봐야 할겁니다. 한꺼번에 우리 귀여운 만이와 함께 1만톤프레스도 나고있으니말입니다. 허허...》

신동혁은 호탕하게 웃었다. 박춘갑이도 그 말이 그럴듯하여 따라웃었다.

《아바이, 그리구 더 중요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세대가 다른 세대에 혁명의 바통을 넘겨주는 귀중한 시간이라는겁니다.》

《참, 그게 더 옳은 말이우다.》

차창밖을 내다보는 박춘갑의 눈앞에는 미소 어린 책임비서의 얼굴이 방불히 떠올랐다.

승용차는 새 생명이 마중나온곳으로 질풍같은 속도로 달리고있었다.

대지의 표정

안동춘

조발머리의 둔덕을 은밀히 차지한 소대가 전호작업을 시작했을 때 적포병대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조준이 없는 면적사격이었다.

조발은 삽시간에 화염과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말았다.

과다한 전호에 었드린 전사들은 어둡한 얼굴로 알심있게 묶여진 조단들이 채로 되어 훑날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허, 오늘쯤은 저 곡식을 실어들이려 했겠는데.》

《헛는 팔새 없소. 계속 전호작업을 할것 !》

갱뽀한 얼굴이 쇠붙이같은 땀과 먼지를 들썩 나이를 대중할수 없는 소성 한알을 단 군관이 꾸중하듯 소리쳤다.

소대장 정시화, 그의 가슴은 불안과 초조로 한껏 죄여있다. 여기서 소대는 대대가 될지련대가 될지모를 적을 저녁까지 견제해야 하는것이다.

어제밤까지 소대는 열한명이였다. 락동강까지 가고오는 피어린 길에서 귀중한 전사들이 한치의 땅, 한그루의 나무를 그리안은채 영원히 떨어지고 말았다. 그 용맹한 전사들은 오직 따뜻한 추억으로만 남았을따름이였다.

그들을 대신하여 오늘새벽 열세명을 받았다. 정규훈련을 받은 사람은 네명뿐, 나머지는 군복을 입자바람으로 달려온 《사민》들이였다.

시화의 눈길은 새 군복에 가닿을 때마다 찌프러지며 어두워진다.

《뭘했는가구요? 농사를 했지요. 벼두 심구 수수도 심구... 찰벼가 기막히지요.》

《훈련을요? ... 했지요. 꼬박 하루동안... 충두 뿜습니다. 세방씩이나... 안맞더군요.》

아침에 료해할 때 들은 말들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른다. 저들대신에 단 세명이라도 화염에 그슬린 《로병들》이 더 있다면...

《저게 뭐야 !》

갑자기 감란도 환성도 아닌 놀래인 목소리가 텅져울렸다. 그 소리는 모든 전사들의 눈길을 하나의 점, 미친듯이 날뛰는 하나의 점으로 이끌어갔다.

짧은 고삐를 드리운 황소 한마리가 줄포탄이 터지는 발가운데로 질주하고있었다. 주위에선 죽음을 휘파람불며 포탄들이 터지고 흩사태가 소를 두들겨댔다.

《저런놈의 !》

《저런 ! ...》

무섭게 내닫던 소의 앞에서 섬광이 번쩍하자 소는 네다리를 툭 뻗치며 벗어났다.

시화는 쌍안경을 쳐들었다.

사방에서 일떠서는 흙담벽과 불기둥에 넋을 잃은듯 소는 부들부들 떨며 더는 쫓음을 못했다.

한쪽끝이 부러져나간 뿔우엔 조짚이 서너오리 매달려있었다. 얼룩소였다. 옆구리의 살이 푸들푸들 떨렸다. 불거져 튀어나온듯한 눈, 그 커다랗게 톡뽀 두눈에 피물이 피인듯 번쩍였다.

별안간 소가 울어댔다. 《음머-》 하는 절망에 찬 그 울음소리는 폭음에 토막나며 애절히 가슴을 긁어냈다.

《빌어먹을 !》

시화는 이새로 신음같은 욕설을 뱉었다. 이 자리에 소임자가 있다면 먹살을 쥐어흔들고싶었다. 어떻게 소건사를 했기에 저 사지판에 들어가게 했는가고-

그런데 뜻밖에도 이때 하나의 그림자가 전호를 차고 내달았다. 새 군복이였다. 안종다리에 어깨박이 넓직한 그는 두팔을 벌리고 학뽀하듯 경정경정 달렸다.

시화는 아찔했다. 너무나 뜻밖이라 말이 나가지 않았다.

《...동무 ! ...》

여럿의 합창이 울릴 때 가슴속에서 우뢰치듯 질욕이 터져나왔다. (저런 《바지저고리》 라구야.) 다 음 직분대로 소리쳤다.

《엎드렷 !》

허나 전사는 그냥 달렸다. 그 열광한 기세로 봐서 설사 들었다 해도 체지시키지 못할것이다. 그런데다가 시화의 목소리는 폭음속에서 너무나 무력하였다.

포격권속에 들어가 잠시 보이지 않던 전사는 어느 틈에 소가까이 접근하였다. 그러자 찰나의 순간만 지나면 포탄에 맞지 않더라도 주저앉을듯하던 소가 《음머-》 하고 반가움에 떨리는 울음을 울며 전사를 마주 달려왔다. 전사는 소의 고삐를 잡자 그때야 포화속이란것을 알았던지 허리를 바싹 구부리고 옆으로 허둥지둥 달렸다. 소는 구면친구와 술래잡기라도 하는듯 덜렁덜렁 뒤따랐다.

시화는 온몸이 굳어지다싶이 되어 전사의 매걸음을 지켜보았다. 포탄이 전사의 가까이에서 터질 때면 입술을 악물고 주먹을 쥐었다. 《제발 무사히!》, 《제발 무사히!》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하나의 기원에 박자를 맞추었다.

전사와 소가 자격권을 벗어나 흠타기로 사라졌을 때 시화는 모두였던 숨을 길게 뽑았다. 그리고 엄한 얼굴로 3분대장을 찾았다.

앞가슴단추가 유난히 반짝이고 파편에 찢긴 자리마저 곱게 기운 3분대장이 검붉게 단 얼굴을 쳐들었다. 규정에 밝고 요구성이 강한 이 오랜 하사관이 어떻게 되어 대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게 방임했단 말인가.

날카로운 추궁이 허끝에까지 뻗어나갔다.

하나 수치심에 절은 얼굴에서 자기말이 괜한 잔소리에 불과할것임을 알고 참았다. 시화는 《대원 통솔이… 도대체 그게 뭐요.》라고 할 대신 《저 동무의 집이 여기요?》라고 물었다.

《아닙니다. 벽성이라더군요. 역시 농민이지요. 나이가 마흔도 넘었는데…》

분대장은 불이 부어 투덜거렸다.

(《농민》?… 규률도 군사도 모르는… 예참.)

가슴속에 울화덩이가 잘 피인 노티반죽처럼 부풀어올랐다.

그 전사는 좀 있어 전호퇴의 술발속에서 나타났다. 힘든 들일을 패히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 농군의 얼굴처럼 혼연한 표정이었다. 그를 보자 《새 군복》들은 저마끔 손을 짓고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정말 바지저고리판이다. 사단에서도 강한 전투력과 규률로 알려진 우리 소대의 영예가 이젠 옛말로 되고마는것이 아닌가.)

전사의 모습은 푸수했다. 이름은 장능보…

새벽에 이 전사와 몇마디 나눈 대화가 피끗 떠올랐다.

《싸움은 농사와 다릅니다. 총포탄소리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다니요.… 전 남포질 소리랑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고장에 저수지를 만들 때 우리 농사군들도 비쳤지요. 그때 남포놓는것도 해왔지요. 남포소리나 대포소린 어상바상합니다.》…

(이 사람앞에서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시간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군인》으로 되게 하는가?)

시화의 날카로운 눈길이 능보전사의 윈다리에 가뒀자 눈섭꼬리가 올라갔다.

능보의 바지가랭이는 눈일을 할 때처럼 견줄려가 털이 부엌부엌한 장판지까지 드러난것이다.

《능보동무!》

전투속에서 구령을 익달시킨 화선지휘관들에게만 고유한 서리발같은 목소리가 일체 웃음과 말들을 삼시에 얼켜버렸다.

시화는 준절한 빛으로 요구했다.

《바지단추를 채우시오.》

《저… 방금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군인선서를 아오?》

《예.》

설된 눈섭아래 큰눈이 디룩디룩했다.

《외워보시오.》

《외우다니요.》

전사의 넓은 어깨가 움칫 가무러들고 눈길은 허둥거렸다. 소대장이 딱딱스레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보는것을 알자 그 어떤 오해를 가시려는 투로 황급히 말했다.

《한번 읽기만 했는데요. 선창자를 따라서 읽었습니다. 난 외우는 꼴이 없어요.》

말끝에 어진 웃음이 입가로 번져흘렀다. 둥그스름한 볼도 웃고있다. 채 깎이지 않은 수염이 뽀죤뽀죤한 푸릿한 턱에는 서툰 면도질로 두세군데 베인 자리가 있다.

전형적인 농촌내기구나, 밥짓는 연기가 고요히 흘러퍼지는 식양의 농촌들판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은 절로 숙부드러워지고 《아저씨!》라고 따듯이 불렀을수도 있다.

시화는 자신의 엄격성을 무질러버리는 그 인상의 감화력에 반발하듯 소리를 높여 재차 물었다.

《병사의 의무도 모르시오?》

《뭐, 그야… 그저 잘 싸우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구요?》

시화의 가슴속에 류황불같은것이 일며 숨막혀들었다. 그는 입술을 깨문채 한동안 있다가 나직하나 쌀쌀한 어조로 말했다.

《능보동무! 동두가 자의적으로 전투위치를 벗어난데 대하여 경고를 줍니다.》

《…》

능보는 눈을 내리깔고있었다. 미간에 눈섭이 모여들어 두줄기 짙어낸 주름이 생겼다. 그는 소대장이 더 말을 안하자 어쭙은 기색으로 올려다보며 《알았습니다요.》라고 낮게 말했다. 그리고는 그 대답의 의미를 강조하듯 고개까지 약간 끄덕여보였다. 다음 자기를 향해 지켜선 동무들의 시선을 향해 어색한 웃음을 빙그레 지어보였다.

시화는 불현듯 서글퍼졌다.

이제 좀 있으면 피가 흐르고 살이 될 처절한 싸움을 벌릴 시각에 군인의 초보적 규률도, 의무도 모르는 《농민》과 어성을 높인것에, 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앞에 어깨가 떨어져내렸다.

하나 시화는 본격을 가까스로 녹작히며 자신의 인내성을 시험하듯 다시 물었다.

《동문 왜 입대했습니까?》

《네-에?》

능보의 두눈이 등싹해졌다. 다음 온몸의 피가 얼굴에 다 모인듯 검붉게 질려갔다. 모욕감에 타는 눈길이 향방없이 헤매다가 소대장의 눈길과 부딪치자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거북삼스럽게 머리를 수그리며 힘겹게 뜨적뜨적 말했다.

《조국보위를 하자고… 나왔수다.》

빨경계 타는 목덜미, 번지르르 내배이는 땀.

시화는 한숨을 지었다.

《제자리에 가시오. 그리고-》

그는 전사가 돌아서기전에 다시 말을 이었다.

《명심할건… 이 계선을 지키지 못하고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곳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있는것입니다. 그러자면 병사는 규정대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위치로!》

전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채 걸어갔다. 그가 들어서서 전호를 본 시화는 약간의 후회비슷한 감을 느꼈다. 전호는 구대원들것보다 못지않게 알심있게 잘 파져있었던것이다.

전사는 보총을 가슴에 끌어다붙이고 우울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있었다. …

포사격이 멎었다.

무시무시한 위협을 예고하는 정적이 들이닥쳤다. 시화는 적의 진출상태를 포착하려 열심히 방어전방을 살폈다.

그때 누군가 옆에 다가왔다. 돌아보니 문제의 그 장능보전사였다. 시화는 쌍안경을 내렸다.

《무슨 일이요?》

《소가 안심치 않습니다. 좀 상했습니다.》

《소가 ?! …》

시화는 한동안 억이 막혀 그를 보다가 언짢은 시선으로 3분대장을 찾았다.

3분대장은 어쩔수 없었느냐는듯 어깨를 으쓱하고 눈섭을 찌프리며 눈길을 떨구었다. 시화는 속으로 혀를 차며 어떻게 하면 이 능보전사에게 정황의 엄혹성을 깨닫게 할까 생각했다.

그런데 소리칠 기회를 주지 않고 《음매-》 하는 영각소리와 함께 얼룩백이 황소가 전호뒤의 술발에 나타났다.

처음에 시화는 소가 절로 《은인》을 찾아올줄 알았다. 한데 소궁둥이뒤에서 찹찹한 두눈이 반쪽거리는 가무잡잡한 얼굴이 나타났다. 서른댓 넘었을가, 잠뱅이차림의 그는 능보를 보자 《군대어른! -》 하며 반색하여 달려왔다.

시화는 거개가 후퇴의 길에 오른 때 더구나 전투진지에 나타난 농민이 이상스럽게 여겨졌다. 그 농민이 다른 병사들에게 제지되었을 때 시화는 몇걸음 마주가 실무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여길 왔습니까?》

《네네… 전 여계서 사는데…》

농민은 시화의 예리한 눈길에 어딘가 당황한 빛이었다. 찹찹한 눈이 뱅글거리다가 능보에게 몇자 용기를 얻은듯 계속했다.

《저… 소를 구해준… 저 어른을 보자고…》

《근데 후퇴는 왜 안했습니까?》

그 말에 농민은 딱한 기색이었다.

《우리야 농사군인데 제 땅을 버리구 어디로 가겠시까. 더구나 우리 군대가 여기 있는데-》

말은 그럴듯하구나. 조국앞에 어떤 위험이 드리웠는지 아직도 못하고 땅과 소에 넋이 빠져있구나. 싸움판에까지 소를 끌고다니다니…

《어제밤에 조가울을 해놓고 오늘 실으러 나왔는데… 소를 잠간 풀어놓았습지요. 갑자기 여기가 전장이 될줄이야… 놈들의 대포 쏘는데 소가 놀라 그만…》

농민이 구구히 말하는것을 시화는 손을 저어 막았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소견사를 똑똑히 하시오.》

《네, 네 착실한 말씀입니다.》

농민은 허리까지 굽석굽석하고는 시화의 눈치를 흘끔 보고 능보전사에게 다가갔다. 대바람에 능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군대어른. 고맙쎄다. 이 은혜를 ! …》

놀랍게도 찹찹한 눈이 불깃해지는것이였다. 능보는 어색한 빛으로 잡힌 손을 빼려 하며 귀땀하듯 말했다.

《저놈의 소가 놀랐을테니 장국을 뜨뜻이 해먹이구 밤샘을 같이 하슈다.》

《고맙쎄다. 허 글썽… 저놈은 우리 가문 3대에만 처음 사뎌 소쎄다. 그런걸 군대동무가 아니더면… 난 오금이 저려서 보며 울기만했수다레.》

놀랍게도 그 눈이 습뻣하더니 콩알같은 눈물이 까뭇한 살가죽우로 굴러내렸다. 시화의 땡땡하던 마음의 금선이 풀렸다. 농민의 잔등에 가볍게 손을 대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만하고 여기선 떠나주시오. 후날 다시 만나 그때 실컷 인사말도 하고 회포두 나눴시다.》

《정말입니까? 들리겠단말이지요. 요 산넘에 우리 집이 있수다. 씹이 끝나면 오시우다. 정말이우다.》

시화는 능보전사를 시켜 농민을 술발너머까지 바래주게 했다.

능보가 소에 다가가 목덜미를 쓸어만지자 소는 머리를 한번 휘젓고는 그대로 땅바닥을 보며 물을 뜬었다.

《예끼, 은인도 몰라보는놈 ! 》

농민은 소를 향해 새된소리를 치고는 웃는 눈길을 능보에게 돌렸다.

《미물이란 어쩔수 없다다레.》

소의 뒤다리정갱이엔 분홍색봉대가 감겨있었다. 능보전사가 그들을 바래주고 돌아왔을 때 시화는 조용히 물었다.

《개인봉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능보전사는 머밀머밀 눈치를 보다가 얼굴이 붉어

지며 대답했다.

《소가 상처를 입었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안되는가요?》

《다른 때라면…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안됩니다.》

시화는 뭔가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고싶었으나 할수 없었다. 적의 출현을 알리는 감시병의 다급한 웨침소리가 울려퍼졌었다.

시화는 능보에게 예비로 가지고있던 개인봉대를 꺼내주고 감시병이 서있는곳으로 달려갔다.

이날 전투에 대한 소대장 정시화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 1차접전 14시 10분

적은 열두대의 차에 분승하여 두대의 모터찌클을 앞세우고 침범.

모터찌클과 석대의 차를 불태웠다. 적살상자는 확인 못함.

우리의 화력에 비해 죽어넘어진놈은 적었다. 그전의 우리 소대였다면 차를 몽땅 다 녹였을텐데… 다행스럽게도 신대원들속에 비겁쟁이는 없었다.

30분간, 로출된 우리 전호에 대고 적의 록공포가 쿵마당질, 사상자 5명.

△ 2차접전. 16시 30분. 적은 신개대형으로 공격. 포사격은 계속된다…

나무도, 흙도, 공기도 불타고있다. 폭연의 열기에 피로운듯 앞산에 내려앉은 해마저 빨간 피빛을 토하며 불타고있다.

세번째의 공격까지 좌절되자 적들은 105밀리포까지 끌어내어 포탄을 퍼부어댔다. 소대의 방진을 더듬던 시화는 그대로 있다간 이 질풍사격수에 전멸되리란걸 알았다.

《소대! 출발뒤의 은폐호로!》

시화는 바위처럼 전호에 붙어있던 전사들이 막우연 흙을 털어버리며 하나 둘 달리는것을 보다가 마감으로 자리를 떴다. 전호턱을 벗어나는 순간 온몸이 건동 떴다. 땅바닥에 세차게 부딪혔다가 일떠섰을 때 그는 누구에겐가 부축되어가고있었다.

《놓소!》

손을 뿌리치려던 시화는 자기를 부축한 사람이 능보임에 저으기 놀랐다. 아프리카토인처럼 꺼매진 얼굴에 땀발이 줄기선 능보의 진지한 얼굴빛을 가늠한 시화는 불쑥 가슴이 찌르르해 그대로 허리를 맞잡고 달렸다.

은폐호에 거의 이르렀을 때 나무등걸에 걸려 씨름군들처럼 껴잡고 넘어졌다. 한바탕 덩굴고 일어난 시화는 처음으로 능보에게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힘이 센데요.》

시화의 웃음을 본 능보는 불현듯 심각한 기색으로 눈섭을 쫓기거리다가 조심히 물었다.

《저… <경고> 란게 뭐가요?》

뜻밖의 질문에 시화는 어리뻑해졌다.

단마디명창이 될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건… <경고> 라는건… 사회루 말하자면 일을 망쳤거나 법을 어겼을 때 주는 책벌과 같은것입니다. 군대에선 이걸 처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명령과 규정을 위반한 군인에 대한 추궁이며 징계이지요.》

이 말에 능보는 놀라울 정도로 락담실색하여 얼굴이 흐려지었다.

하지만 시화는 태연히 돌아섰다.

시화는 포격속에서 이상한 소음을 가려들었다. 감시병의 위치로 달려간 그는 800미터지점에 나타난 적의 탱크들을 발견하였다. 석대였다.

후에 시화는 전투일지에 이렇게 썼다.

…△ 탱크 석대가 보병중대의 웅위하에 덤벼들었다. 반탱크수류탄이 없어 소대의 방어용수류탄을 전부 모아 세개의 묶음을 만들었다. 그런데 적의 사격이 어찌나 맹렬한지 전호를 넘어나가다가 두명이 희생되었다.

두대의 탱크가 불탔다. 살아남은 맨 좌측의놈은 도로로부터 발을 꺾질러 맹속으로 덤벼들었다. 분명 지휘탱크인듯한 그놈은 다른 탱크처럼 우물거리지 않고 기관총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달렸다. 그앞에서 두 전사가 쓰러졌다. 그에 이를 갈며 나간 3분대장은 사행식포복으로 탱크에 접근해갔다.

(3분대장까지 쓰러지면 내가 나가겠다. 전투의 승패는 저기에 달려있다.)

그런데 3분대장은 출발선에 선 선수처럼 잔등을 활처럼 꼬며 일어서려 했다.

(아직 투탄거리는 멀었는데-)

심장이 툭 멈춰졌다. 3분대장, 그 무서운 싸움꾼은 용수길처럼 몸을 꼬며 옆으로 쓰러졌다.

《아!-》

울부짖음, 발동기의 소음… 탱크와의 거리는 150미터…

시화는 부소대장을 찾았다. 소대지휘를 눈인사해 답아 인계하려고…

바로 이때 미친듯 전호를 차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전호밖에 나간 그는 두팔을 내짚고 주르르 미끄러져내려갔다. 다음 매우 서툰 동작으로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였다.

능보전사였다. 또다시 그는 제 마음대로인것이다. 기가 막혔다. 허나 탄막속에서 계까지 나간 그를 도로 불러올수 없었다.

(파연 저사람이-)

의혹과 놀라움의 교차속에 주시할 때 기억나가던 능보가 전진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는 것이었다. 총탄의 비발을 뚫고나갈 용기를 잃은것인가.

(집이 났군. 그렇겠지.)

시화가 나가려고 부소대장을 찾으려 할 때 능보

가 소리높이 불렀다.

《소대장동무!》

능보는 시화의 눈길과 마주치자 다시 소리를 높여 웨쳤다.

《소대장동무, 전사 장능보…》

다음 말을 먹었는지 입만 벌리고있다.

그의 얼굴은 울상이었다. 울대뼈가 돌덩이처럼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다가 고개를 요란스럽게 젓고 웨쳤다.

《보고법은… 모르겠수다. 제가 까졌수다. 명령해주슈.》

시화는 숨이 막혔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가슴속 깊은곳에서 뜨거운것이 온몸을 감쌌다.

전사 장능보.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나가다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 보고때문에 되돌아선것이다. 시화는 감전된듯이 뻗뻗해진 팔을 기계적으로 흔들었다.

다음 흥중에 솟구치는 열풍에 떠밀리운듯 온몸을 일으키며 거창한 감격에 전신을 떨며 소리쳤다.

《전사 장능보 땅크를 격과할것!》

그러자 장능보는 예없이 후닥닥 돌파서 벌렁벌렁 기어나갔다. 헛는 한번 팔지 않고 오직 한조시로, 마치 김매는 농군이 밭고랑만 보고 나가듯 곧추 전진했다.

쓰러진 3분대장의 손에서 수류탄뭉음을 쥐는것을 본 순간부터 시화는 그대로 가슴엷은 어머니의 눈이 되어 그를 지켰다.

땅크와 능보의 사이는 20여미터.

(저기에 그냥 넙죽 엎드려있다가…)

시화의 기대와 희망을 능보는 알아주지 않았다. 어설픈 동작으로 엉거주춤 일어나지 않는가.

《저런!》

땅크의 기관총화구에서 반디불같은것들이 무수히 반짝였다.

능보는 낮에 잘린 곡식그루처럼 넘어지고말았다. 시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는 달려나가야 쓸데없다. 수류탄이 없다. 소대 전체가 땅크시창을 겨누어 맞사격의 《백명전》을 타는 최후수단밖에 없다.

《움직인다!》

반가움에 울먹진 웨침들이 터졌다.

땅에 고개를 묻었던 능보가 서서히 머리를 쳐들지 않는가.

그앞에는 포탄의 세례를 받지 않은 커다란 조짚단이 놓여있었다. 능보는 거기에 얼굴을 묻었다.

그것도 위장물이라고 음해해보려는것인가. 그런데 땅크는 벌써 그의 코앞에 다가왔다.

포탄의 폭발시에 두둑이 쌓여진 흙더미를 납작하게 물어제끼며 땅크는 무한궤도와 배때기를 드러내고 곧바로로 능보쪽으로 돌진해오고있었다. 이제는 지척이다. 무한궤도의 이발짚에 끼인 조짚과 흙덩

들이 보였다

《능보-!》

시화는 경련하듯 몸을 떨며 소리쳤다.

하나 능보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 어떤 거센 힘에 굴린듯 그의 형가 땅크의 배밑으로 사라졌다.

시화는 눈을 감았다. 모든 신경이 마비되는듯했다. 지동치는 평음에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옆으로 제길사하게 뻗어버린 땅크의 배밑에서 검붉은 화염이 꿈틀꿈틀 밀려나오는것을 보았다.

시화는 불길한 연기발속에서 모든것이 피빛으로만 보였다.

전사 장능보는 무한궤도밑에서 생명의 빛이 꺼지는 순간 수류탄을 폭발시킨것이다. 어떤 전투교범과 규정에도 없고 명령과 규률로도 시킬수 없는 육탄공격!…

시화는 소리없이 통곡했다. 아, 능보!…

어두워져 적의 공격이 멈춰졌을 때 소대는 조용히 그자리를 떴다. 그런데 소대가 출발을 지날 때 레의 그 첩첩한 눈의 농민이 나타났다. 황혼의 미명속에 드러난 그 얼굴을 알아본 시화는 퍼그나 놀랐다. 그 농민은 몇시간사이 십년은 더 늙어진듯했다. 그는 시화를 원망스럽게 보다가 말을 떼었다.

《그래… 그 군대어른을 두고 그대로 간단말이요. 네?》

울음에 갈린 그 소리에 시화는 가슴이 산산이 찢어발기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다.

《다시 오지요. 다시!… 어찌하든 여긴 다 우리 땅이 아닙니까.》

밤에 대대에 도착한 시화는 표창내신서를 쓰기 위해 대렬참모를 만났다. 새로 입대한 대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문건도 못갖추고있었기때문이었다.

새벽까지만도 시화가 신대원들, 《바지저고리》들만 준다고 싸움싸우듯했던 대렬참모는 《장능보, 42살》하고 수첩에 적힌것을 부르고는 잠시 생각다가 말했다.

《이 입대나이도 넘은, 극상해야 후방부마사원이 적임이라고 생각한 장능보동무를, 동무네 결사대에 보내게 된것은 그가 다수확모범농민이라는것때문이었소. 그는 내가 정 반대하자 다수확모범농민임을 증명하는 상장을 내들고 우기는것이 아니겠소 <이래두 자격이 안되시우.> 하는것이였소. 어처구니 없었소.

첨엔 그를 로망스롭다고까지 여겼소. 그러나 왜서인지 그에게서 티없이 깨끗한 성실성이라고 할가. 하여튼 고결한 진심을 느꼈소.》

대렬참모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하였다.

《상장은 도에서 준것인데… 이런 내용이였소. <우농민은…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알곡증산에서 모범이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그 동무의 해방전직업은 머슴이였소.》

시화는 능보전사의 배낭을 가져오게 했다. 그런데 배낭안에는 상장이 없었다. 대령참모한테 내보이고는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만것 같았다. 배낭에는 비누, 건빵파워와 함께 맨 밑굴에서 공책이 나왔다. 공책안에는 수신인 주소만 밝힌 열댓장의 편지 봉투밖에 없었다. 몸무사히 잘 싸운다는 기별을 고향집에 보내기 위해 찢려가지고 왔을 것이었다. 또렷또렷하게 박아쓴 《벽성...》이라고 쓴 글줄에 뜨거운 눈물이 한방울 떨어져 점점이 퍼져나갔다.

소대는 새벽녘에 대대를 따라 다음 계선으로 출발하였다.

희푸른 어둠속에 두줄로 길게 늘어선 대렬뒤에 웬 사민 하나가 있었다.

대대장의 지시로 한 농민을 소대대렬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아는 시화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몹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룩소의 입자, 찻찻한 눈의 농민이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조그마한 보자기를 옆구리에 꼭 끼고 웅졸뜨리고 선 농민은 고개를 쳐들고 명쾌히 말했다.

《이기고 봐야지요. 조국을 지켜야 하잖습니까.》

시화는 그가 든 보따리에 시선을 떨구며 생각했

다.

(저 보따리에도 장능보의 상장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대령은 산굽이를 돌아 과수원을 곧추 질러갔다.

사과향기가 물씬물씬 풍겼다. 머리를 들어보니 대롱대롱 매달린 사과알들이 아침별을 받아 신비스럽게 안겨왔다. 부지불식간에 시화의 가슴엔 아늑하고 부드럽고 따스한 명상이 깃을 퍼며 시의 글구로 번져갔다.

자연은 변함없는 것이다.

파일들, 열매들... 대지는 태양의 은혜로운 빛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말없는 대지의 변함없는 표정!

시화는 소대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려다가는 잘 안되어 종종걸음을 치는 농민-신대원에게 애절한 눈길을 주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백, 천, 만의 장능보가 대지를 이루고 있다.

은덕을 지켜 변함없는 대지. 영원한 감사로 숨쉬고 영생하는, 소박하나 거창한 이 대지를 어느 누가 굴복시키랴.

병사의 발걸음소리

백일호

백두산을 오르는 발걸음에
부석의 울림소리 쿵쿵-
백두산이 마주오는 소리여!

저기 장군봉의 부름받은
병사의 발걸음이라서
저 소리 이리도 가까운가

세상에 병사로 태어나
한걸음을 걸어도
그날의 투사들처럼 백두산을...

병사의 이 소원
장군봉이 알아주어
백두산을 걷는 법 익혀주는 소리

눈깊은 밀림을 헤쳐 또 며칠
사령부 불빛 찾아 배밀이해온
그 숨결인가 저 소리

몰려드는 원쑤 맞받아
《적기가》 높이 부르며 내달던
그 질풍인가 저 소리

아, 한맘 장군님 받들어온
투사들의 걸음새를 따르는
그 힘찬 발자국들의 울림이여!

물어 무엇하리
백두산을 오르는 발걸음소리
이리도 우람할진대

내 이제 장군봉에 올라
한번의 걸음으로
그 소리 세상천하를 울리리

자, 이것이
원쑤를 천길나락으로 차굴릴
내 발걸음이라고!

여기 룡성으로 오라 ! 외 1 편

리 준

친구여, 그대도 알고있으리라
룡성로동계급들을 찾아가
만톤프레스 만드는 기세를 보라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말씀을

여기로 오라,
그대 어데서 무엇을 하건
말은 일 힘겨웁고
때로 넘기 어려운 고비 있다면
여기로 찾아와 이 사람들을 보라 !

당이 준 명령 다하는 길에
피뿜는 심장들이 얹히고 모여
기발이 되고
해불이 되고
번개가 되는
룡성땅 !

그 어떤 힘이
남들이 몇년은 걸린다는,
한차량에 싣고도 남는다는
만톤프레스의 설계도면을
단 석달에 끝내게 하였던가

달아오른 로속에 뛰어들어
벽체를 까고 바닥을 넓히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협동주조의 불보라를 날려갈 때
그들의 심장에 타뿜던것은 무엇이었던가

오, 가장 큰 표창으로 받아안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말씀-
《힘있는 기업소》라 불러주신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그 한 생각이 아니었던가!

하나의 그 열망을 안고
전기로앞에서 기대앞에서
육박의 총창 부딪치는 전장처럼
들끓으며
달리며
웨치는
룡성땅, 룡성땅 !

여기로 오라, 친구여 !
노래처럼 선서처럼 우리 외우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그 참된 의미를 알려거든
맹세와 의리는 어떻게 지키고
그대와 나 우리의 발걸음이
시대앞에 어떻게 찍혀야 함을 알려거든
여기로 찾아와 이 사람들을 보라 !

오, 그대 어데서 무엇을 하건
언제나 룡성땅에 마음을 엮고살라
열정에 불타는 이 땅의 벽찬 숨결을
그대의 심집에 간직하라 !
그대의 일터에 옮겨놓으라 !

사랑한다, 네 고운 눈

어찌보면 철없는 내 동생
귀여운 옥이의 눈인듯
생활이 기뻐 나날이 즐거워
샘물처럼 웃음이 찰랑거리는...

불꽃튀는 바이트날 지켜보며
별처럼 반짝이는 선반공처녀의 눈
도면을 보고 소재를 다시 재며
잠시도 쉬임없는 네 고운 눈

오래오래 지켜보고싶어라
친애하는 그이 오셨을 때
감격의 눈물 가랑가랑 맺혔던 눈
만톤프레스돌격대를 못던 그날엔
우등불앞에서 황황 불타던 눈...

아직은 그 어느 총각의 모습도
남다르게 비낀적 있으랴만
뉘라서 저 눈 사랑하지 않을가
뉘라서 한번 보면 쉬이 잊을가

그 눈에 다 어려있구나
 너의 꿈, 너의 행복, 네 삶의 전부가
 친애하는 그이 명령을 받드는
 열렬하고 깨끗한 룡성의 마음이

사랑한다, 처녀야 네 고운 눈
 어데 가도 소중히 안고살고싶구나
 땀에 젖어 빛나는 그 눈빛에
 성실한 내 삶을 비쳐보며, 비쳐보며...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조국의 큰자옥 새겨주시며

김송남

우리의 기쁨처럼
 가열로는 활활
 북받치는 감격에
 3천톤프레스는 드르릉

아름드리 단쇠가 룡트림할 때
 뿜어치는 화염을 바라보시며
 여기에 서계시였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조국의 숨결
 타오르는 불꽃에 담아보시며
 자옥자옥 룡성이 걸어온 길을
 뜨거운 믿음속에 새겨보시며
 어깨우에 얹어주시던 따뜻한 손길...

우러를수록 친근하신 그 모습에
 가슴은 그냥 달아오르는데
 또다시 온몸의 피를 끓여주시며
 룡성은 힘있는 기업소라고
 1만톤프레스를 만들어내라고

지냈던 힘은 천배로 솟고
 마음처럼 생각처럼

불속에서 태동하는 저 숨결소리
 강철로 무어지는
 새 생명의 거센 맥박소리

아, 1만톤의 큰힘이 용솟는다
 3천톤으로
 6천톤으로
 천리마로 달려온 큰자옥에 이어
 속도전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기에 서계시였네
 새 기계의 동음 먼저
 담대한 심장들
 그 높뛰는 박동을 불러주시며
 언제나 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새 인간의 모습들을 불러내시며

오늘도 서계시네
 그 힘으로 우리의 행복을 다지고
 그 힘으로 원쑤의 흉계를 부시라고
 또하나 조국의 크나큰 자옥을
 룡성의 구내길에 새겨주시며...

가사

간석지천리벌에 수령님 모시리

강인철

넓어지는 제방가에 튀어나는 물보라야
 완공의 날 흘날릴 꽃보라 네 아니냐
 아, 영광의 그날을 그리는 마음
 간석지 제방우에 노을로 불타네

천만산악 험어서 푸른 물결 밀어내리
 솟아날 새땅에 황금물결 불러오리
 아, 영광의 그날을 당겨올 마음
 수평선 저 멀리로 끝없이 달리네

해당화 피어나는 섬기습도 좋지만
 벚꽃이 피어나는 간석지벌 더 좋아
 아, 가슴에 샘솟는 간절한 소원
 벚꽃 피는 그날에 수령님 모시리

아, 가슴에 넘치는 간절한 소원
 간석지 천리벌에 수령님 모시리

힘!

힘이란 무엇인가?

힘은 어디에서 불끈 솟아나 어디에 이르러 자기의 창조물을 세상에 드러내놓는가?

이 참다운 뜻을 나는 공업도시 함흥의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다녀온후에 깊이 알게 되었다.

진분홍노을이 퍼지는 아침출근길을 걸으면서도 봄날의 향기가 담뿍 풍겨드는 창가에 서서도 룡성의 힘에 대해 생각하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무한한 힘이 솟구친다.

시내가에서 버들피리를 만들어불던 시절 힘에 대한 《강의》를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

할아버지는 나무뿌리같은 큰 손으로 나의 가는 팔을 채어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애야,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한단다. 그런데 너처럼 이렇게 약해서야 무슨 일을 치겠니. 힘이란건 발길이할 때 생기는거야.》

《?!》

내가 두눈을 또릿또릿 굴리자 할아버지는 제법 학자처럼 힘이라는 단어를 한문자로 풀이하여주었다.

《보아라. 사내 〈남〉 자도 힘 〈력〉 자우에 구름 노전 발 〈전〉 자를 척 올려놓은것이거던. 그러니 사내의 근본이 힘이지. 발가는 힘, 응!》

손바닥에 글을 쓰며 말하는 할아버지의 한문풀이를 듣고 나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할아버지는 그 발가는 힘을 지니라고 나에게로 봉쥬를 먹였다.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의 힘에 대한 설명은 너무도 단순하고 소박하였다.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나군한다.

힘에 대하여 생각하느라 사색의 창가에서 중학교시절의 녀선생이 물리교과서를 들고 조용히 다닌다.

산뜻한 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늘 상냥하게 웃으며 교실에 들어서곤하던 그 녀선생은 물리적 힘에 대하여 얼마나 재미나게 배워주었던가.

떨어지는 물을 받아 돌아가는 수차의 힘, 파도를 헤가르는 배의 힘, 질풍같이 달리는 《붉은기》호 전기기관차바퀴를 돌리는 힘, 그리고 우리를 지구에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녀선생은 아르키메데스요 뉴턴이요 하는 이름난 물리학자들이 만든 힘의 공식들을 배워주고는 엄격

히 시험으로 받아내곤하였다. 하건만 답안지우에 붉은색연필로 10점을 그려주던 그 녀선생도 나에게 힘의 참뜻을 다 알려주지는 못하였다.

힘!

힘이란 무엇인가?

힘은 어디에서 불끈 솟아나 어디에 이르러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나는 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그 힘의 원천을 향도성이 뿌리는 찬란한 빛에서 찾았다.

나는 룡성의 벽간 숨결속에서 이를 확인했다.

공장구내의 살구나무, 복숭아나무들에도 꽃들이 구름처럼 곱게 피던 지난해 5월 18일 아침이었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시면 안으셔야 할 기쁨을 마련하시기 위해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광산에 대한 실무지도를 하신후, 여러곳을 들리시여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직장들을 돌아보시고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힘있는 기업소》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조선로동당 창건 40돛기념일까지 1만톤프레스를 만들 영예로운 과업을 안겨주시였다. 룡성의 로동계급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높은 믿음을 주시는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정앞에서 당비서도 지배인도 용접공총각도 애어린 선반공처녀도 1만톤프레스를 꼭 만들어올릴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룡성은 세찬 감격으로 불도가니처럼 타뿔었다.

한차판이 넘는 설계문건들이 짧은 시일에 그려지자 목형이 깎이여지고 쇠덩어리들이 룡성으로 룡성으로 앞을 다투어 찾아들었다.

나에게는 영원히 가슴에 남아있을 자랑찬 화폭이 있다. 원쑤의 불구멍을 가슴으로 막으려 가는 리수 복영웅의 모습이 떠나지 않듯 1만톤프레스의 가름대를 부어내던 협동주조의 장엄한 화폭은 언제나 너리에 차있다.

...불, 불, 쇠물불천지였다.

넓으나넓은 주형직장이 온통 불을 안고 불을 다루며 숨가쁘게 뾰다.

높은곳에 우뚝 선 한사나이!

입에는 호각을 물고 손에는 신호기발을 들었다.

문중신로장이다.

흰옷이 쇠불빛에 붉은 옷으로 변했다.

《호르륵...》

호각이 길게 울리자 기발이 펄럭이고 수백미터 떨어진곳에서 뽑은 쇠물을 남비에 실은 기차가 들이닥친다.

하나로 맞춘 시간에 따라 하나로 합친 힘들이 주입구에 쇠물을 붓는다. 축포처럼 불꽃을 날리는 쇠물은 엄청나게 큰 가름대주형으로 팔팔 흘러내린다. 이어 폭풍같은 만세소리가 온 주형장에 울려 퍼졌다. 작은 기포도 하나 찾아볼수 없는 완전성공이었다.

참으로 큰 심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대단한 쇠물작전이었다.

로장 문중신, 허영훈, 조종길동무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이 안겨지고 높은 천정에 닿아오르게 추어올려졌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다시 살아나 이 광경을 목격한다면 또 얼마나 놀랄것인가.

1만톤프레스의 기동을 이루는 이 가름대주조를 위해 룡성의 로동계급은 참말로 피어린 탐구와 노력을 다하였다.

수백톤을 헤아리는 이 가름대를 부어내는것이 첫돌과구를 여는것으로 되는 까닭에 룡성은 자기의 힘을 다 쏟아부었다.

담아야 할 쇠물량보다 로의 그릇이 작았다. 지혜를 짜내던 끝에 로벽을 얇게 까내여 로안의 용적을 크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과 지혜로 공사기일을 절반이나 단축하여 로의 용적을 늘이는 방대한 일을 해제했다.

나는 자기를 잊고 이 거대한 힘을 지닌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보통키, 보통 체중의 사람들이었다. 그 어디서 이런 힘이 솟아났는가?

《힘이야 어디 뼈뺌에서 나오는가요. 우리의 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1만톤프레스를 꼭 만들어 올려지겠다는 신념에서 나왔지요.》

문중신로장의 대답이었다.

순간 나의 가슴은 세차게 들먹이었다.

거창한 힘, 룡성의 힘은 향도의 빛에서 그 생명을 받은것이고 시대를 안고 나아가는 자각에 이르러 비로소 펼쳐진다는것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은 참으로 인민

대중의 힘에 대한 진리이다.

한계가 없는 힘!

이런 힘을 지니였기에 룡성로동계급은 통구리철 판용접으로 지난날 130톤의 강피에서 깎아내던 축세기도 훌륭히 만들었고 수백톤의 철덩어리들은 공기돌 다루듯 할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사색을 한가운데로 다물었다.

힘이란 과연 무엇인가?

힘은 그 어디에서 최고의 숨결을 내뿜는가?

그렇다!

힘은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에서 산생된다. 힘은 령도의 손길따라 무비의 담력을 안고 장달음치는 로동계급의 심장의 박동이다.

룡성의 힘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찾아오시여 《어머니공장》, 《영웅공장》으로 내세워주시고 가꾸어주신 힘이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임있는 기업소》로 빛내주시고 꽃피워주신 힘이다.

나의 할아버지가 설명하던 발가는 힘, 나의 녀선생이 펼쳐준 물리교과서에서 정의를 내린 힘, 그리고 룡성의 문중신, 한영춘로장들이 펼친 힘...

힘이라는 말은 같아도 룡성의 힘은 새로운 의미를 띠고 우리의 가슴을 친다. 룡성의 힘은 인간만세의 환호속에 빛난다.

그때문에 우리 인민의 힘은 세기의 하늘가에 나래치고 그때문에 우리 인민의 힘앞에 원수들은 전물한다.

3,000톤프레스, 6,000톤프레스의 리정표를 지닌 룡성은 이제 기계바다의 별, 만톤프레스의 높은 고지우에 올라서리라.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40돛기념 경축장에 1만톤프레스는 찬연히 솟아 빛날것이다.

퍼내고 퍼내어도

그 힘 진함이 없는 룡성이여!

너의 힘은 향도의 빛에 시원을 두었거니

너는 깊이를 재일수 없는 힘의 호수!

온통 가슴에 힘이 불끈 솟는다.

힘이 모자라면 룡성을 다시 찾아가리라

어릴적 나의 어머니 젖으로 못다준 힘, 나의 할아버지 보약으로 못다준 그 힘을 나는 다시다시 받으리라.

태양의 빛발아래 샘처럼 솟아올라 무궁무진한 룡성의 힘을!

높은 령마루에서

김창욱

1

때목이 흐르는 강기슭으로 두바퀴마차가 달리고 있었다. 흙이 패이고 돌부리가 솟은 고르지 못한 길에서 마차는 널뛰듯 들추었지만 고삐를 잡은 처녀는 한쪽손에 들고있는 꽃묶음을 휘둘러대며 그냥 말을 재촉하였다.

《이라 ! 》

《허허 이거 간 떨어질라, 좀 천천히 몰려무나.》

풀단을 깔고 돌아앉은 늙은 마부가 성냥으로 겨우 담배불을 붙이고나서 한마디 하였다. 하건만 처녀는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마차가 세관게 들출 때면 무엇이 그리 좋은지 소년처럼 깔깔거렸고 줄다람쥐가 콩지를 세우고 길을 건너뛰어도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허참, 내 오늘은 꽃순이가 바스라지게 웃는걸 다 보는군.》

그 말에 처녀는 하얀 이를 보이면서 깔깔 웃었다. 아바이의 말처럼 꽃순이는 소리내어 웃는 때가 흔치 않는 처녀였다. 들꽃이 만발한 초야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록음에 묻힌 숲길에서 사춘기를 맞은 꽃순이는 산천의 정기를 닮은듯 은근하고 내성적인 여자였다. 그는 이곳 립산작업소의 기술준비실에서 설계원으로 일해온 지난 4년동안 아무리 복잡한 일이 겹치어도 얼굴을 찡그린적이 그리 없었고 감때사나운 립산노동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도 늘 부드러운 미소로 대해주었다.

이런 꽃순이의 생활에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방금전에 그가 2작업반의 토장자리를 돌아보고있는데 어린 검척공처녀가 달려와서 숨찬소리를 하였다.

《언니, 우리 작업소에 책임기사가 새로 배치돼 왔어요 ! 》

《뭐 ? ! 》

몇달동안 비어있던 책임기사의 자리에 새로운 일군이 왔다는 소식은 꽃순이에게 있어서는 간부사업에만 관계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다그쳐 물었다.

《그 책임기사의 이름이 뭐라던? 》

《이름은 모르겠지만 언니를 아는것 같아요.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언니이야기두 묻는걸 피곤했어요.》

《그래? 정말 고마와! 》

꽃순이는 책임기사를 마치 어린 검척공이 배치해 주기라도 한듯 그의 손을 꼭 잡아주기까지 하였다. 뜻을 올리니 순풍이 불어준다는 격으로 꽃순이가

허둥지둥 들꽃을 꺾어가지고 산판의 합숙에 내려오니 마침 남새를 싣고 올라왔던 마차가 립산마을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 떠나는 마차에 뛰여오른 시각부터 처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듯 웃음이 헤쳐지고 말이 많아졌다. 그는 새로 배치된 책임기사가 친오빠처럼 여겨지는 박춘식일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던것이다.

꽃순이의 아버지는 여기에서 30리 떨어진 령머의 태평작업소에서 소장의 책임을 지고있다. 거기서 생산지도원을 하는 박춘식은 꽃순이네 앞집에서 자란 외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그를 친누이동생처럼 아껴주었다. 춘식은 꽃순이가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나이찬 처녀로 된 지금에도 자기결에 두고 싶어 사업소의 로동과장을 만날 때마다 처녀를 자기네 작업소로 옮겨달라고 생떼를 쓰곤하였다. 그런 춘식이가 겨울철 생산을 앞둔 요즘에 와서 새로운 직무에 등용될거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야차라리 박기사가 여기 책임기사로 배치됐으면...)

꽃순이는 소문을 듣자 이렇게 원심을 썼다. 정들면 고향이라고 그는 몇년동안 살아온 이곳을 떠나기 아쉬웠던것이다. 한데 일은 놀랍게도 바라던대로 되었다. 검척공의 말처럼 신입 책임기사가 자기의 이야기를 물었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박춘식일것이다.

마차가 산굽이를 돌아서자 굽이 확 넓어지면서 줄지어 들어앉은 립산마을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젠 고삐를 이리 보내라.》

담배를 피우고난 마부가 돌아앉으면서 마디뚝은 손을 내밀었다. 꽃순이는 아쉬운대로 말을 평보로 몰아가면서 고삐를 넘겨주었다. 그가 풀단에 옮겨앉자 아바이가 남의 속을 엿보기라도 한듯 혼시조로 말하였다.

《합숙의 부엌간 일이랑 잘 도와주어라. 집떠난 사람에겐 뭐니뭐니 해도 음식대접을 잘해야 하는거다.》

꽃순이는 방긋 웃는것으로 아바이의 말을 긍정하였다. 정말 이제부터 당분간 박기사는 독신자합숙에서 살게 될것이다. 엇바꾸어 고향을 다녀오면서 집소식도 알려주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잠시후 꽃순이는 남새밭으로 가는 마차에서 뛰여내리자 조급한 마음으로 마을길을 걸어갔다. 생गत인지 풀목으로 뛰여다니는 아이들이며 상점앞에서 웃고 떠드는 아낙네들 모두가 새로 온 책임기사 때문에 더 흥성거리는데만 같았다.

꽃순이가 작업소마당에 들어서니 경리원아주머니가 수도가에서 바깥쪽에 물을 받고있었다. 그는 꽃묶음을 안고 기쁨에 떠있는 처녀를 보자 뜻있는 웃음부터 보이었다.

《이제야 오누만, 책임기사동무가 꽃순이의 이야기를 자꾸 묻던데.》

《지금 어디 있나요?》

《나랑 같이 사무실 청소를 하는 참이야.》

《그래요...》

꽃순은 복도에 들어서자 문이 열려있는 사무실로 뛰어갔다. 안에서 내의바람의 책임기사가 방비를 들고 천반구석의 거미줄을 털어내고있었다. 꽃순은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있는 그를 깜짝 놀래워 주려고 하였지만 그만 반가운 소리가 먼저 나가고 말았다.

《책임기사동지 !》

책임기사가 돌아섰다. 처녀를 알아본 그의 희넓은 얼굴에 반가운 웃음이 피어났다.

《아, 꽃순동무, 잘 있었소 !》

하지만 상대편을 알아보는 순간 꽃순은 너무나 큰 놀라움에 한손을 입가에 가져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드넓은 이마와 술이 많은 눈썹, 코도 입도 모두 선이 두드러지게 생긴 청년은 그가 여직껏 생각해오던 박기사가 아니라 사업소의 지도원을 하던 박영국이었던것이다. 꽃순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아버지의 운명과 온 식구의 생활에 예상치 않던 그들을 지어준 영국이가 이렇게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영국은 홍조가 식어가는 처녀의 얼굴에서 모든것을 알아차렸을것이나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었다.

《허허... 왜 그렇게 놀라시오? 산에 갔다오는 모양이구만.》

《네... 오시기 수고했어요.》

선의의 웃음으로 대할수 없는 영국이었지만 꽃순은 있는 자제력을 다해 이렇게 말하였다.

《수고는 무슨 수고겠소.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저같은게 뭘...》

마침 경리원이 복도에 들어섰다. 꽃순은 구원을 받은듯 물바게쓰를 받아다가 사무실에 들여놓자 경리원에게 말하였다.

《아주머니, 마저 수고해주세요. 전 그럼...》

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뜬 그는 자기 사무실을 향해 쫓기듯 달려갔다. 실장은 어디에 갔는지 다행히도 방은 비어있었다.

《호-》 물켰던 숨을 톼으며 빈방에 들어선 꽃순은 쓰러지듯 문벽에 기대섰다. 그리고 무엇을 부정하는지 자신도 모르면서 힘없이 도리질을 하였다.

《...아니야... 아니야...》

맥을 놓은 손에서 꽃묶음이 떨어져 흐트러졌다. 그는 흩어진 꽃들이 자기의 발끝에 밟히는것도 느끼지 못한채 눈을 꼭 감았다. 누구에게 속히우고 무

엇에 희롱당한 때처럼 그저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목안에 그득 차올랐다.

2

소쩍새의 울음소리도 멎은 산촌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꽃순은 앉은뱅이 책상에 소설책을 펼쳐 놓은채 끝없는 상념에 잠겨있었다. 학생들의 과외 학습지도를 나갔다는 은희며 저녁마실을 나간 그의 어머니도 없는 집안에서는 단조로운 벽시계 소리만 울리었다.

중학교의 생물교원을 하는 은희는 고등전문학교의 전기간을 꽃순이와 한 책상에서 보낸 다정한 동무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초소에 배치되었으나 립산작업소의 합숙에서 꽃순이의 손집을 자기집의 이 방으로 억지스럽게 옮겨온것도 바로 은희였다. 그날부터 꽃순은 이 방을 자기집처럼 여겨왔고 자매처럼 더 다정해진 두 처녀는 이 방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에 대하여, 사회와 생활에 대하여, 나이든 처녀들만이 체험할수 있는 사생활의 복잡한 비밀까지 숨김없이 나누었다. 그 가운데는 사업소의 어느 한 지도원이라는 대명사로 옮겨진 영국이에 대한 꽃순이의 가슴아픈 이야기도 있었다....

꽃순이의 생활에 영국이라는 청년이 노을처럼 비껴든것은 대학생이던 그가 아버지네 작업소에 실습을 나왔던 4년전이었다. 꽃순이가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갔을 그무렵에 백리근간의 산판에서는 무더기비가 쏟아지면서 30년래의 큰물이 터졌다. 영국은 그날 물등을 살리기 위하여 폐문의 빗장을 뽑아내는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품치는 강물에 떨어지게 되었다. 물목에 다가는 폐문은 이제 아차하는 순간에 물에 떨어진 그를 사정없이 짓뭇개면서 폐문을 빠져나갈것이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곁에서 일하던 꽃순이의 아버지가 비호같이 몸을 날려 균형을 잃은 영국이를 안아 물목을 빠져나가는 때판우에 집어 던지고 자신도 그우에 떨어졌다. 그때 꽃순은 폐동을 살리기 위하여 위험속에 뛰어난 대학생과 그를 희생적으로 구원한 아버지를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얼마나 높이 우러러보았던가 !

1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구원한 대학생이 사업소의 지도원으로 배치되어왔다. 꽃순은 소식을 듣자 남다른 친근감으로 기뻐했고 은근히 가슴이 뛰기까지 하였다. 이런 사연때문에 지난 겨울의 그 일이 처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는지 모른다. 지난해의 연말까지 꽃순이네 아버지의 태평작업소는 관리국적으로 생산실적이 제일 앞선 단위로 이름을 날리고있었다.

새해에 잡히면 있게 될 사업소의 년간총화에서는 물론, 관리국적인 경쟁총화에서도 영예의 우승기는 태평작업소에서 받게 될것이었다. 꽃순이에게는

그 우승기가 단순히 생산순위를 말해주는 기발이
기보다 인생의 말년까지 변함없이 산판을 지켜오는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믿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꽃순은 두근거리는 심정
으로 사업소의 년간총화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는 아
버지에게 더없는 영광이 차례질 회의에 참가하니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러나 회의는 꽃순이가 것처럼 기대하던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태평작업소를 칭찬하는 토론들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앞자리에서 현상료해성원의
한사람인 영국이가 불쑥 일어섰다. 꽃순은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영국은 일어설 때와는 달리 앞줄의 결상
등받이를 꼭 거머쥐고 무거운 낮빛으로 서있더니
홍분을 누르면서 힘들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일부 동무들의 토론에 다른 의견을 가지
고있습니다.》

《?》

꽃순이는 물론, 의혹의 눈길들이 그에게로 쏠리
였다. 영국은 차츰 침착해지면서 말을 이었다.

《…태평작업소에서는 아직도 우리 당의 립업정
책이 투철하게 관철되지 않고있습니다. 어떤 의미
에서는 지금까지도 지난 시절의 프내기 생산관습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 한가지 실
례가 꼽이 많이 드는 산마루의 나무는 그대로 내버
리고 일하기 쉬운 산기슭의 나무만 지나치게 배넨
사실입니다.》

회의상의 분위기가 급작스레 긴장되었다.

《…만약 우리가 애국적량심을 버리고 이런 식으
로만 일한다면 장차 나라의 산림자원은 어떻게 되
겠습니까. 일하기 힘들다 하여 내버려둔 산마루의
나무들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비바람에 쓰러진
대로 썩을것이고 지나치게 배넨 산기슭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베야 할 후계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것
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손쉬운곳에서 올린 높은
생산실적에 눈이 어두워야 합니까? 그럴수 없습니
다. 저는 오히려 이자리에서 태평작업소의 책임일
군들에게 나라의 산림자원을 되는데로 취급한 사실
을 놓고 그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꽃순이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말이였다.

아버지에게 애국적량심이 없다니? 아버지는 자
기의 일생을 산판에 바쳐오고있다. 사시장철 산판
에서 살면서 국가계획을 넘쳐하려고 애써오는 아버
지의 그 노력이 어떻게 되어 애국심의 표현이 아니
란말인가. 설사 프락프르가 오를수 없는 벼랑턱의
나무를 얼마간 베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국이로서는
개별적인 방법으로 충고하여 일을 바로잡을수 있
는것이다. 그런데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수도
있는 아버지에게 대하여 어떻게 이럴수 있는가.

결국 꽃순이가 바라던 모든것은 물거품처럼 사라

지고말았다. 작업소소장들만 따로 모인 사업총화회
의에서 아버지는 우승기대신에 비판을 받았다. 회
의장을 떠나 눈이 펄펄 쏟아지는 길로 허청허청 걸
어오던 그날부터 꽃순이의 가슴속에서 영국이라는
청년도 아침노을같이 사라지고말았다. 한데 누구의
지킴은 장난처럼 꽃순이가 영영 잊어버리려고 한
그 청년을 생활의 외통길에서 다시 마주서게 한것
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당가에서 자박자박 발자국소리가 울리고 이어
방문이 열리는바람에 꽃순이는 깊은 생각에서 깨여
났다. 곤청색의 맞달린 옷에 굵실굵실한 머리를 드
리운 은희가 생김새처럼 청신한 바람을 안고 들어
섰다.

《너 아직 자지 않고있었구나.》

《응…》 하고 꽃순이는 보지 않고 대답하였다.

은희는 자기의 편수책상에 책을 놓고 사이문을
열었다.

《어머니도 여직 돌아오지 않았구나?》

《응…》

은희는 그제야 꽃순이의 곁에 와앉으면서 사람들
의 마음을 곧잘 알아내는 령리한 눈으로 찬찬히 여
겨보았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일이야 무슨…》

《그런데 눈빛이 왜 그러냐? 고민하는 사람같
이.》

꽃순은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 더 숨기고싶지 않
았다. 그는 한숨의 소리를 꺼냈다.

《난 정말 이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
겠어.》

《응?》

《생각나겠는지 모르겠다만 내 언제인가 아버지
에게 억울한 책벌을 들썩운 어떤 지도원에 대하여
말했었지?》

은희는 예민한 눈빛으로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생각나, 너의 아버지가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
라 했던가?》

《그래, 박영국이라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작업
소의 책임기사로 배치돼왔단다.》

은희의 눈이 둥실해졌다.

《아니 오늘 도착한 영국동무가 그때 말하던 그
사람이란말이야?》

《그래… 아버지의 일도 일이지만 내가 이제 그
런 물인정한 사람과 어떻게 일하겠니.》

은희가 생각에 잠기면서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니, 영국동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라구?》 하고 이번에는 꽃순이가 놀랐다.

《…너 그럼 영국동무와 아는 사이란말이야?》

《응… 우리는 어릴 때 한마을에서 자랐어. 난 네
가 사업소의 어떤 지도원이라고만 하기에 그저 듣

고만 있었다. 너에 대한 동정까지 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영국동무였다면 다시 생각해볼 무엇이 있는것 같아.》

어두운 창가로 얼굴을 돌리는 은희의 초연한 눈빛속에는 못있어하는 추억과 함께 영국이를 옹호하는 뜨거운 심정까지 비껴있었다. 꽃순은 그만 학숨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너는 영국동무에 대한 나의 말을 믿을수 없다는거로구나.》

《나는 누구의 편역을 들려고도 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의 말보다도 생활속에서 자신이 이해하구 자기의 생각으로 평가해야 하니까.》

《나는 이미 값비싼 체험으로 그를 알았어.》

《그대신 사람을 평가하는데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참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것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두 처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동강났다. 이것은 다정한 그들의 생활에서 처음 보게 되는 서먹서먹한 일이었다.

3

영국이가 도착한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다. 꽃순이가 아침청소를 마치고 결상에 앉으려고하는데 느닷없이 영국이가 쑥 들어왔다. 방심하고있던 꽃순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도로 일어섰다.

현장을 료해하느라고 늘 산판에 가있던 그가 문득 찾아든것을 보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모양이다.

《앉으시오. 실장동무는 어제밤 산지합숙에서 내려오지 않았대군.》

《...네 ...》

영국은 책상옆의 결상에 먼저 자리를 잡았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앉은 그의 곁에서 꽃순은 몸가짐이 거북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영국은 처녀의 기분은 개의치 않고 말을 건넸다.

《집에는 자주 다니오? 질러가면 30리도 못되겠대군.》

뜻밖의 말이어서 꽃순은 인차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령마루에서 건너다보니 태평작업소에서는 은하봉에 삭도공사를 하더군. 아버지의 건강은 어떤지 모르겠소.》

꽃순은 창문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의 총화이후 아버지는 높은 령마루의 나무를 베내기 위하여 프락포르가 오를수 없는 봉우리마다에 삭도공사를 벌리었다. 겨울에는 허리를 치는 생눈길을 헤치고 여름에는 비에 젖은 츠렁바위를 뚫아오르는 아버지를 볼 때면 꽃순이의 마음은 짜릿하게 저리었다. 그런데 지금 다름아닌 영국이에게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을 들으니 꽃순은 아몰어가던 상처가 어디에 슬치기

라도 한것처럼 다시 짜릿하게 아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대로 사업에서는 번거로운 개인적감정을 초월하여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리라고 다짐하였다.

《생각해주어서 고마와요.》

영국은 복잡한 감정이 엇갈리는 처녀의 얼굴을 스쳐보고나서 다른 말을 꺼냈다.

《그런데 술개봉의 겨울철 생산준비가 끝났다고들 하는데 그 시공설계를 좀 보여주오.》

그의 말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었다. 꽃순은 책상모서리에 포개놓은 문건을 가운데서 그가 요구하는 도면을 뽑아주었다.

영국은 도면을 살펴보면서 물었다.

《이 설계를 만들 때 동무도 참가했는지?》

《네.》

《그렇다면 이걸 보오. 이미 했다는 겨울철생산준비란 도면에 있듯이 골바닥을 따라올라간 외줄기의 프락포르길요. 골바닥의 이 외줄기 통로를 가지고 어떻게 령마루의 나무를 다 끌어낼수 있겠소.》

《우리는 산마루의 나무를 베낼 계획이 아니였어요.》

《산마루는 채벌대상지가 아니라는거겠지.》

알고 묻는 말이기에 꽃순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림산작업소들의 관내에는 생산조건과 산림상태를 고려하여 꼭 베야 하는 채벌대상지와 베지 않아도 되는 미채벌대상지라는 산판들이 있다. 술개봉은 산세가 험하여 중력이상의 봉우리가 미채벌대상지로 되어있는것이다.

영국이가 창밖으로 멀리 바라보이는 술개봉에 눈길을 던지고 말하였다.

《국가에서는 올해에도 우리를 믿고 술한 건설을 계획하고있소. 나라의 목재사정은 늘 긴장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새로운 산판을 적극 개척해야하오.》

만약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구상했다라면 저 산중턱에 한 돌기, 또 산마루에 한 돌기, 이렇게 세층의 길을 설계할수 있었을것ियो.》

꽃순이도 그것을 잘 안다. 공상하기를 좋아하던 학교시절에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험준한 령마루의 나무들은 베낼수 없을가 하는 꿈도 꾸어본 그다. 하지만 생활은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것이다. 아버지가 늘 말하듯이 현실은 생산을 떠난 애국심이라든가 계획을 못한 사람들의 충성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꽃순은 말하였다.

《우리는 당의 지시에 따라 겨울철의 녀달동안에 년간계획의 75프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의 프락포르 능력으로 산마루의 나무까지 다 끌어내노라면 결국엔 생산계획을 하지 못하고말게예요.》

《아니요 가능성을 찾아야 하오. 운전수들과 수리공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프락포르의 정비를

잘하고 길을 제대로 닦아주기만 하면 그 가동틀을 지금보다 10프로나 더 높일수 있다고 하오. 그래서 나는 오늘 현지참모회의를 가지려고 하오. 회의에서 생산지도원과 동무에게 트랙포트길을 합리적으로 시공할수 있는 현지조사과제를 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일이니 미리 상론하려고 이렇게 들렸소.»

꽃순이는 인차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술개봉의 령마루까지 트랙포트길을 올린다는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일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로력이나 폭약이 많이 드는것만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다. 산세가 급하니 거기에 닦아질 길도 경사가 심할진 뻔한데 그 길에서 차들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설계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시비를 켈것이다. 이 순간 그의 머리에 떠오른 다른 하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일이었다. 영국이가 말한것처럼 지금 아버지는 베지 않아도 무방한 은하봉에서 어려운 삭도공사를 하고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소심해진다고들 한다. 아버지 역시 비판받은 소심성때문에 마음에 없는 삭도 공사를 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꽃순이로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렇게 믿어주니 고마와요. 하지만 그 일에서 저를 뽑아주세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한 대답이라 영국이가 찬찬히 바라보며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있소?》

《특별한 일이라기보다 개인적사정이 있어 그래요.》

《내가 알면 안되는 사정이요?》

꽃순은 그가 다르게 해석할것 같아 사실대로 말하였다.

《휴가를 받고 집을 다녀오려던 참이었어요. 아버지의 일도 도울겸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준다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요?》

《가봐야 알겠어요.》

《좀 막연한 소리구만...》

영국은 이렇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드디어 결심을 말하였다.

《그 문제는 소장동무와 좀 토론해야 되겠소. 그러니 오늘은 현지참모회의에 참가해주오.》

그것은 새 트랙포트길의 현지조사를 맡으라는 지시와 같은것이였다. 꽃순은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임기사동무...》

《소장동무와 토론해보겠단지 않소. 어서 지시하는대로 움직여주오.》

영국은 이 말을 남기고 복도로 나갔다. 꽃순은 뒤따라나가면서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가 단념하였다.

(아, 정말 너무하구나.)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려운 처지에서 일하고있는 것은 누구때문인가. 꽃순은 아버지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영국이가 지나간 일을 미안해하는 의미에서도 승인해주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영국이의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꽃순은 그것이 야속하고 그지없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4

다음날부터 꽃순이는 생산지도원과 같이 측량기를 메고 술개봉을 오르내리였다. 참모회의결정이니 좋은 나쁜든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꽃순이였던것이다. 그는 산판을 다니면서도 출장을 떠난 작업소장이 은근히 기다려졌다. 소장이 떠나기전에 자기의 휴가문제를 어떻게 토론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영국이가 며칠째 산판의 합숙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물을수도 없었다.

(일주일이지났으니 오늘쯤 소장동무가 돌아올수 있지 않을까...)

꽃순은 오늘도 복잡한 심정으로 마을에 돌아왔다. 그가 마을길을 한참 걷는데 자재창고에서 마침 검척공처녀가 나왔다.

《너 욕심이로구나. 책임기사동무도 내려왔니?》

그는 바쁜 소리부터 물어보았다.

《네... 그런데 야단났어요.》

《왜?》

《아까 태평작업소의 동무가 넘어와서 삭도에 쓸거라고 하면서 우리 창고에 활치를 깎을만한 소재가 있나 알아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 있던?》

《없어요.》

꽃순은 한숨이 나갔다. 이름없는 어린 노동자까지 그렇게 걱정한다니 삭도공사가 순조롭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가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려는데 욕심이 불쑥 다른. 말을 꺼냈다.

《그런데 언니, 책임기사동무가 오던 날은 그렇게 기뻐하더니 요즘은 왜 영 무관심해요.》

꽃순은 순진한 그에게 색다른 오해를 줄수 있었던 첫날의 일이 떠올랐지만 긴 설명을 할수는 없었다.

《무관심하다니 너 별소릴 다 하는구나.》

《별소리가 아니예요. 지금 책임기사동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낮에는 낮대로 노동자들과 어울려 일을 하고는 밤에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통자는것 같지 않아요. 목탄장에 갔다온다는 말도 있구 태평쪽으로 넘어다닌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새벽잠이 없는 우리 처녀들은 식전야침에 산을 내려오는 책임기사동무를 여러번 띄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거냐?》

《이제 만나거든 덮어진 작업복이라도 받아와요. 내가 빨아주겠다고 하니깐 웃으면서 코등만 튕겨주지 않아요? 빨리 어른이 되어야지 참...》

《그러자꾸나.》

꽃순은 이렇게 일리는수밖에 없었다.

잠시후 현관을 들어선 꽃순은 영국이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급한 생각으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당기니 결상등받이에 기대어 자는듯 눈을 감고있던 영국이가 몸을 일으켰다. 꽃순은 눈확이 꺼지고 불이 홀쏘해진 그를 보자 눈길을 떨구었다. 하자 이번에는 책상밑으로 도꼬마리씨가 달라붙은 지하축이 눈에 걸렸다.

《아, 어서 오오. 지금 막 부르려던 참이었는데.》

영국은 피곤한 빛을 감추면서 약간 서둘렀다.

《그런데 어떻게 왔소?》

《일전에 제기한 휴가때문에 왔어요.》

영국은 책상우에 퍼놓은 술개봉의 길닥이초안을 보면서 인차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는 벌써 일주일이나 기다렸어요. 허락만 하면 이제라도 떠나겠어요.》

영국은 도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긴 숨을 내그었다.

《너무 조급해 마오. 나는 지금도 동무가 어느쪽의 일을 하는것이 더 유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중이요.》

(아직 토론조차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꽃순은 너무 기분이 상하여 막 돌아서고 싶었다. 그는 흥분을 누르면서 섭섭한 소리를 하였다.

《정말 모르겠어요. 거기 도면에 있듯이 저는 술개봉에서 받은 과업을 기본적으로 끝냈어요. 이제 무엇을 더 하라는건지 저는 이해할수 없어요.》

《나는 결코 술개봉의 현지조사가 끝났다고 보지 않소. 가령 봉우리로 오르는 이 바위릉선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예정이요?》

《남포질을 해야지 어찌겠어요.》

《안되오, 남포질을 하면 사태가 내릴수 있소.》

《그렇다면 거기서 길을 끊는수밖에 없지 않아요?》

《도중에서 길을 끊으면 봉우리의 나무는 어떻게 하겠소.》

꽃순은 그만 한숨이 나갔다. 자기의 애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영국이가 야속하였다.

《저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온 산관을 헤맸어요. 그런데 이것도저것도 안된다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영국이도 예민해진 꽃순이를 보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동무의 수고를 모르는바가 아니요. 하지만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하오, 끝장이 날 때까지. 나도 올라가보겠소.》

꽃순은 안타까운 나머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무엇때문에 책임기사동무가 배지 않아도 무방한 술개봉에서 고생을 하면서 기업소의 생산전망에 불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영국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동무는 보다 중요한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소. 사람들은 흔히 어린 나무를 심는것을 애국심의 표현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나무를 베는 일에서, 말하자면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보다 어려운 자연과의 투쟁에서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하오. 이 길에 바쳐지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고생이 아니요. 또 이 사업에서는 개인의 체면이나 기업소의 명예같은것이 선차적인것으로 되어서도 안되고, 동무는 지금까지도 언짢아할수 있지만 나는 지난 겨울에도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충고했던거요.》

꽃순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직껏 사업을 위하여 모든 감정을 눌러온 꽃순이었지만 영국이에게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자 억울한 피해의식까지 되살아났던것이다.

《저 하나의 기분이 문제가 아니예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아버지는 일생을 산판에 바쳤어요. 일생동안 내리는 눈비를 다 맞아가면서 나무를 베어 나라에 바친 아버지의 그 노력이 어떻게 되어 도리어 애국심이 없는것으로 비판받아야 하는지 저는 그 까닭을 알수 없어요. 기계의 힘이 모자라서 벼랑턱의 나무를 좀 베지 않은것이 무슨 큰일이예요. 다른 작업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인데 의리로 봐서도 어떻게 그럴수 있어요.》

《꽃순동무...》

《사람을 그렇게 일면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너무해요, 정말 섭섭해요.》

만약 이때 출입문으로 출장에서 돌아온 작업소장만 들어서지 않았던들 그의 입에서는 무슨 설분이 더 나갔을지 모른다.

《아니 이젠 무슨 일이요?》

소장이 놀라운 눈으로 두사람을 번갈아보는 순간 꽃순은 눈물이 넘쳐나는 얼굴을 짜쥐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밖으로 달려나왔지만 그는 갈데가 없었다. 실성한 너자같이 강변으로 달려갈수도 없었고 창피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을길을 걸을수도 없었다. 기쁠 때는 마음놓고 웃을수 있고 피로울 때도 마음놓고 한숨이라도 지을수 있는곳은 역시 정든 자기 방이었다. 꽃순은 손끝으로 눈물을 짖으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나지막한 짜리울타리안에 들어선 꽃순은 한자리에 박히듯 멎어섰다. 아래방에서 은희의 어머니와 웬 너인의 이야기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건 그렇구, 약혼식은 언제 하겠슴메?》

《나야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들어야지, 은희가 통신대학을 졸업하기전에는 절대로 안한다느거웨다.》

《예구 그러다간 고간의 녹말에 콤지가 피겠슴메.》

《호호호... 그래두 그 사람의 생각이 기록하지
않수?》

꽃순은 멍하니 서있다가 마루에 올라서서 조용히
방문을 닫기였다. 방안에 들어서니 은희의 책상우
에 정하게 다려놓은 곤청색의 작업복이 포개져있었
다. 어제 은희가 정성스레 손질하던 영국이의 작업
복이었다.

꽃순은 문가에 기대서서 시름없는 눈길로 방안을
돌러보았다. 향기가 풍기는것 같은 목란꽃우에 한
쌍의 나비가 날고있는 해보, 정정한 소나무밑에 역
시 한쌍의 백학이 그려져있는 이불장, 은희도 잘 열
지 않는 이불장안에는 붉고 푸른 비단이불이 차곡
차곡 쌓여있었다.

꽃순은 그것들을 바라보노라니 불현듯 이 방도
자기가 있을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목이 메게 차올
랐다. 은희는 영국이가 온 다음날부터 꽃순이앞에
서 그의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꽃순은 또
한 이 집의 프락에서 영국이의 그림자를 한번도 본
일이 없었다. 몇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가장 행복한
나날을 즐겨야 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얼마나
섭섭한 일인가. 두사람이 남다른 사이라는것을 느
낀 날부터 떠오른 생각이였지만 이 순간에 그 감정
이 더욱 강렬해지는 꽃순이었다. 그는 자기와 영국
이사이에 풀기 어려운 매듭이 얹혀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애뜻한 사랑에는 자그마한 그들도 주지 않
으리라고 속다짐하였다.

(나는 정말 두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이 방에 더
있어서는 안될 손님이야.)

결심이 확고해진 꽃순은 드디어 용단을 내리고
조용히 양복장을 열었다. 그리고 트렁크에 자기의
옷가지들과 화장품들을 차곡차곡 집어넣기 시작하
였다.

옷방에서 나는 인기척을 느낀듯 사이문이 열리었
다. 반백이 된 은희의 어머니가 꽃보자기에 책들을
싸는 꽃순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꽃순은 이미 생각해둔대로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어머니, 휴가를 받았는데 집에 좀 다녀오겠어
요.》

열에 와얏은 어머니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물었다.

《아니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소장동무가 돌아온 다음에 갑자기 승인을 받았
어요. 지금 사무실앞에서 자동차가 기다려서...》

난생 처음 이런 거짓말을 해보는 꽃순은 말끝을
맺을수 없었다.

《참 이런 변이라구야.》

어머니는 더 어찌지 못하였다.

잠시후 밖으로 나온 꽃순은 허전한 눈길로 정든
집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은희의 행복을 빌면서
사무실로 향하였다.

모두 퇴근한 뒤여서 사무실은 비어있었다. 꽃순
은 책상우에 손짐들을 올려놓고 호- 물켰던 숨을

내쉬었다. 손짐은 떠나기전에 독신자합숙의 어느방
에 갖다두면 된다. 이제 문제로 되는것은 작업소장
네 집을 찾아가서 휴가승인을 받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어두워진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면서 작업소장
에게 할 이야기를 생각하였다.

이때 문이 확 열리면서 은희가 들어섰다. 꽃순은
당황해지는 속에서도 은희를 놀라웁게 바라보았다.
만나면 성난 소리부터 하리라고 생각한 그의 눈에
뜻밖에도 서운해하는 빛이 어려있었기때문이다.
은희는 젖은듯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섭섭하구나 나는 네가 이럴줄은 몰랐다.》

그 말이 하도 가슴을 때려서 꽃순이는 눈길을 돌
리지 않을수 없었다.

《은희야 리해해주렴. 너도 나와 같은 처지에 놓
였다면 달리는 할수 없었을것이다.》

《아무리 처지가 달라진다 해도 나는 너의 우정
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겠다. 그러고보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뜨겁지 못했던것 같구나.》

꽃순은 당황히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너와 나의 관계때문에 이런 생각
을 한게 아니야.》

《영국동무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 나는 지금도
누구의 편역을 들리고 하지 않는다면 영국동무는
내가 나간 자리에 들어와 행복을 즐기려는 사람은
아니다. 너는 어느때건 나의 말을 리해할 때가 꼭
있을것이다.》

은희는 이러면서 책상앞으로 다가오더니 꽃순이
의 손짐을 들고 돌아섰다.

《가자 다들 일이 있어도 우리 방에서 다투고 기
쁜 일이 있어도 우리 방에서 함께 웃으며 덩굴자.
나는 네가 없는 우리 방을 생각한적이 없고 또 생
각할수도 없다.》

《은희야...》

꽃순은 은희의 뜨거운 우정에 목이 메여 그의 팔
을 잡고 눈을 슴뻑거렸다. 영국이와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는 뒤여서 그런지 그는 다정한 동무의 살들
한 모습이 더욱 눈물겨웠다.

5

꽃순은 은희의 다정한 속삭임을 들으면서 술곳이
잠들던 깊은 한밤에 자기에게서 가슴아픈 이야기
를 들은 영국이가 무거운 걸음으로 은하봉의 밤길
을 넘어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는 다음날 작업소장을 만나려고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야 태평작업소에서 오는 전화소리를 통
하여 삭도의 시운전을 하고 돌아선 영국이가 이른
새벽에 령길을 떠났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
다.

《한데 이 사람이 왜 한낮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
소?》

놀란 사람은 전화통에 대고 되묻는 작업소장만 아니었다.

《안개밭에서 길을 잃은게 분명하오. 사람을 찾아야겠소!》

꽃순은 작업소장이 수화기를 놓기전에 벌써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꼭 한시간전의 일이었다. 지금 꽃순은 술개봉의 령마루에서 골짜기를 따라내려오는 진한 안개의 흐름을 거슬러 비탈진 산길을 달리고있었다. 조금 앞서 달리는 작업소장과 생산지도원의 모습이 젖빛 안개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가뭇없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꽃순이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턱에 닿은 숨이 금방 넘어갈듯하여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영국이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맹목적인 충동이 걸음을 재촉할뿐이었다.

《책임기사동무-!》

앞에 선 생산지도원이 목청을 돋구었다.

《...책임기사동무...》

령 빈것 같은 산울림만이 되돌아왔다.

가독나무밑에서 놀란 산토끼가 화닥닥 도망쳤다. 여느때 같으면 꽃순이는 질겁을 하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무서운 꿈처럼 피득피득 뇌리를 스치는것은 영국이의 모습뿐이었다.

...벼랑가를 더듬던 영국이가 이끼에 미끄러지면서 아찔한 골바닥에 떨어진다. 정신을 잃은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른다. 그의 곁으로 시꺼먼 꿈이 다가간다...

《책임기사동무-!》

꽃순은 놀라운 소리를 질렀다.

《...책임기사동무...》

역시 되돌아오는것은 쓰르렁한 산울림뿐이었다. 꽃순은 심장이 멎는것 같아 아름드리 나무에 쓰러지듯 기대었다. 초점없는 망막에 어리는 주변의 나무숲이 꺼꾸로 빙그르르 돌아갔다.

《똑 똑 또르르...》

딱따구리소리였다. 처음은 작은 손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같이 들리었다. 순간 꽃순이의 머리에 번개같은 생각이 스치였다.

(혹시 바위릉선에 있지 않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하오. 끝장이 있을 때까지 나도 올라가보겠소...》

어제 하던 그의 말이 귀전을 울렸다. 꽃순은 길에서 빠져져 바위산에서 내려오는릉선을 뚫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경사가 급한 그 길은 흙과 다래, 찌리와 철쭉 등 잡관목과 넝쿨이 뒤엉키고 집채같은 바위들이 막아서는 험한 길이었다. 그러나 꽃순은 힘든것도 두려운것도 모르고 길없는 길을 헤치며 올라갔다.

이미 여러번 뚫아오른 바위릉선에 이른 꽃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설피여지는 안개속을 두리번 거렸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책임기사동무-!》

손나팔을 대고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내가 공연한 생각을 하였구나.)

꽃순은 허물어지는 심정을 어찌할수 없어 곁에 서있는 나무기둥에 몸을 의지하려고 하였다. 순간 그의 눈이 등실해졌다. 바위밑에 뿌리를 박고 소소리 뻗어오른 소나무 허리에 손바닥만하게 껌질을 벗긴 도끼자리가 눈에 띄었던것이다. 방금 도끼질을 한듯 나무껍질속에서 맑은 송진이 방울방울 돌아왔다.

(오늘 여기로 온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

꽃순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바위우에 뛰어올랐다. 거기서 넓어지는 안개속을 살피던 꽃순이의 눈길이 한곳에 이르러 똑 멎었다. 서너길이나 되는 벼랑아래의 자연동굴 어구에 청신을 잃고 쓰러진 두 사람의 모습이 굽어보였던것이다.

《아니?》

꽃순은 생각할 사이도 없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자 비탈진 아래로 미끄러져내렸다. 잡관목의 가지들이 옷깃을 잡아채고 불편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였다.

자연굴옆에 이른 꽃순이는 더욱 놀랐다. 돌베개를 하고 나란히 누워있는것은 영국이외에 뜻밖에도 반백의 아버지였고 그들은 방안의 따스한 아래목에 누운듯 세상모르고 자고있는것이 아닌가!

꽃순은 꿈을 꾸는것만 같아 말도 나가지 않았다. 새벽에 떠났다는 영국은 어떻게 되어 이곳에 와서 저토록 깊이 잠들고있으며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되어 딸조차 경원시하는 그의 곁에 나란히 누워있는 것인가?

꽃순은 착잡한 의문을 품은채 그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영국이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가랑이를 밟는 말차국 소리에 깨였는지 아버지가 슬며시 눈을 떴다.

《아버지!》

꽃순이의 목소리에 움쭉 상반신을 일으킨 아버지가 피곳 영국이를 보면서 《쉬-》 하고 입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꽃순이를 한옆으로 끌고갔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꽃순은 바위굽이를 돌아서자 서둘러 물었다.

《게 좀 앉거라.》

아버지는 서둘러 앉고 뺨여진 돌부리에 앉더니 담배쌈지를 꺼내어 썬레기를 맡았다. 꽃순은 곁에 앉으면서 아버지의 무릎을 흔들었다.

《아버지,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허허... 여기 온거야 너때문이지.》

《네 ?》

아버지는 성냥을 그어 담배불을 붙이고 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누군가 여기다 남포질을 하여 길을 빼겠다고 했다면서?》

꽃순은 가슴이 철렁하여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영국동무는 남포질을 하면 사태가 내릴거라고 여러번 걱정하더니 오늘아침에는 나보고 같이 돌아보라고 하더구나. 네가 술개봉에서 수고를 하는데 딸을 도와주는셈 치라는거야. 그런데 이미 서있는 나무가지에 활차를 설치하고 통나무를 들어서 바위코숭이를 넘교 묘안은 결국 영국동무가 생각해냈다. 삭도공사를 도와준 신세값으로 따라 선 나는 그저 길동무가 된 셈이지.》

(아 - !)

꽃순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손바닥만한 도끼자리가 표시되어있던 바위열의 소나무가 떠올랐다. 듣고보면 단순하지만 피타는 고심이 없이는 생각해낼수 없는 착안이었다. 그리고보면 영국은 하루하루의 바쁜 일속에서도 생각은 늘 이 산판에 와있었던것이 아닌가! 그런데 직접 산발을 타고다니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가? 꽃순은 붉어지는 얼굴을 숙이었다. 그의 귀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다. 영국동무는 하루일이 끝나면 늘 어두운 령길을 넘어와서는 은하봉의 삭도공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던 나무물개 자동장치를 성공시켜준 사람이 바로 영국동무이다.》

《네 ? !》

아버지는 담배연기를 깊은 한숨처럼 보냈다.

《열길 물속은 알아두 한길 사람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가부다. 지난 겨울에도 내가 그 사람이 주는 개별적충고를 받아들였다면 회의에서 그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게다. 우송기바람에 덮인 생각을 하다나니... 하두 부끄러워 회의후에 네게도 말하지 못하겠더구나.》

꽃순은 살주름의 오리오리에 회오의 그늘이 스민 아버지의 얼굴을 볼수 없었다. 아니 그보다도 영국이에 대한 자신의 웅졸했던 생각들이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것은 사람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리이다. 가까운 사람을 매질로 바로잡아주는 일은 누구나 할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하고보면 영국동무는 내가 인생의 말년을 깨끗한 량심으로 살수 있도록 바로잡아준 참다운 의리를 가진 사람이고 나의 진정한 혁명동지이다.》

《아버지 ! ...》

아버지의 말은 마디마디가 꽃순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었다. 그것은 그대로 자기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고 뜨거운 충고이기도 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처럼 자기의 지난날을 깊이 돌이켜보게 되는 이 시각에 그는 영국이에게 무언가 사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생각이 온몸을 사로잡았던것이다.

영국은 한모양대로 잠에 빠져있었다. 꽃순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감았기때문에 더 꺼져보이는 푸르끼레한 눈언저리, 무엇에 굶긴 불편과 수염이 까칠해진 턱...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는 생산을 지휘하고 밤의 령길을 넘나들고 겨울철생산준비때문에 관내의 온 산판을 수없이 오르내렸을 그의 고심에 찬 나날들이 그대로 습배여있는것 같았다. 힘겨웠을 그 나날에 도와주기는커녕 차거운 표정으로 외면하기만 한 자기때문에 그는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하였으랴.

꽃순은 눈곱이 뜨거웠다. 곁에 아버지만 없었다면 그를 흔들여 깨워놓고 모든 일을 사죄하고싶었다.

(책임기사동무...)

꽃순은 속으로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눈곱에 맺히는 이슬을 손끝으로 찍어냈다. 령마루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작업소장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몇시간후 술개봉의 높은 바위끝에 두사람이 서있었다. 활차를 설치할 위치들을 다시 확정하면서 방금 령마루에 오른 영국이와 꽃순이었다.

술개봉과 린접한 태평의 은하봉에서 통나무를 묶어단 삭도가 아슬한 골짜기아래로 줄지어 미끄러져 버렸다. 장쾌한 모습이었다. 통나무때가 저렇게만 흘러내린다면 태평사람들은 생산계획을 지난 해보다 훨씬 앞당겨 끝낼것이다.

꽃순은 그날의 영광을 그리보면서 그 길에 바쳐진 영국이라는 한 청년의 동지에 대한 참된 의리를 더 뜨겁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영국이를 깊이 이해하게 된 오늘에 와서야 참된 의리란 남의 체면이나 보아주는 세속적인 인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개조하는 우리 시대의 높은 시대적 감정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아득히 흘러간 산발을 바라보는 꽃순이의 가슴에는 자기가 지금 숲이 우거진 높은 령마루가 아니라 영국이의 손길에 이끌리어 생활의 보다 높은곳에 올라서있다는 자랑과 긍지가 넘치었다. 숲에서 새들이 우짚었다. 소슬한 바람에 꽃향기가 날려왔다.

검덕산에 올라

김병두

산허리에 휘감긴 흰구름 헤치며
내 검덕산에 올라서니
한달음에 달려와 안기는가
어깨걸고 치솟은 기묘한 봉우리들

불수록 그 모습 황홀하여라
저 백암동굴안에
천연동굴의 맑은 물 폭포처럼 쏟아지고
뛰던 짐승들도 날던 새들도
보화많은 예서 영원히 살고 싶어
바위로 굳어진듯

눈길 돌려
지초덕을 바라보면
아득히 높이 솟은 돌기둥우의 바위
보름달처럼 두둥실 떠있고
은룡산 벼랑엔
하늘로 날아오르는 날새의 모양

그 모습에만 넋을 잃었던가
《아-》

네 품에 금이 있느냐
소리쳐 물었더니
금이 있다고 금이 있다고
은룡산이 어깨 으쓱 화답하고

《오-》
네 품에 은이 있느냐
목청껏 물었더니
은이 있다고 은이 있다고
백암동굴안이 우렁우렁...

더는 묻지 말라네
이제 더는 묻지 말라네

내 오늘에야 다 알았구나
저 자연의 절경도
네 품고있는 만가지 보물의 빛 뿜어져
저리도 아름답고
네 품고있는 은금보화의 빛도
우리 당의 빛발이 닿아있어
더욱 찬란히 빛나는줄을...

철산령 사람들 외 1편

계 훈

바람과 구름
눈과 비
어디가나 번쩍이는
돌, 쇠돌, 쇠돌의 먼지...
여기엔 없다
푸르른 수림도
파아란 잔디밭도
눈길 끄는 산꽃도

허나 아아한 이 산정에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 있다
누구나 마음 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한다

설참에 땀들여도
큼직한 쇠돌을 깔고앉아
마음 시원하다는
철산령사람들

어찌다 쇠돌밭에 풀 몇포기 밝혀도
제 마음속에 녹이 쓰는것 같아
굴착기의 큰 삽날을 지층깊이 돌이박는
철산령사람들

위대한 수령님을
영광스런 우리 당을
오로지 번쩍이는 쇠돌만을 안고
우러러사는 나날

시련의 언덕을
그 몇번 넘고넘이
삶의 령마루에
큰 터전을 닦았거니

나는 보노라
쇠돌만이 번쩍이는 여기 철산봉우에

떨기지어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그 장한 적동색 얼굴들을
가슴울렁이며 사랑하노라
언제나 생활의 버력을

꿀짜기로 내리굴리며
철의 령마루
삶의 령마루에 억척스레 서있는
무산의 광부들을

쇠 돌

이것이 쇠돌이다
시커멓고
빛이 없고
묵직하다
아직은 여기에 없다
번쩍임이
날카로움이
쟁쟁한 강철의 그 음향이...

허나
착정기 부여안던 이 손에
한덩이 쇠돌을 쥐면
가슴은 뒸다

너는
내 처음 광부되던 날
온밤 내 머리맡에 놓여
속삭이며 반겨주던 나의 첫 기쁨

너는
흰구름 날으는 철산봉우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뵈웁던 그날
내 더운 눈물로 싸쥐던 나의 첫 긍지

얼마나 보람차고 긍지높은
광부의 사명을
너는 그 몇번

이 가슴에 말없이 새겨주었던가
광부의 한생을
우리 당과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주며
그 성스런 위업을 받드는 길에
언제나 드팀없이 이끌어주는
내 너보다 더 소중한것 모르나니

쇠돌! 너는
땅속에서 솟아
불속에서 버리어지는
나의 마음, 나의 그 의지

이제 여기서 태어나리
내 사랑은 아동공원의 쇠그네로
내 기쁨은 채탄기의 억센 날개로
내 증오는 날카로운 총검으로

오, 그 누가 내 손에
황금의 덩어리를 쥐여준대도
나는 결코 바꾸지 않으리
이 한덩이 쇠돌에 내 뼋이 불타고있기에...

바치리라 당이여!
그대 위해
나의 사랑, 나의 숨결이 다 깃든
내 살점같은
이 쇠돌을!

영웅 외 1편

리병철

삼돌이랑 나랑 하도 배가 고파
속새굴 가득나무발 꽃도토리 따먹고
입이 뻘어 울상이 된채

다 자라도록 똬 똬
침뵈는 버릇 붙었던 너
해방이 되자 그 버릇 똑 떼고

노상 웃으며 푸른 하늘 쳐다보며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참 외우던 너

우리 아이들 또 배고프면 어찌랴
꽃도토리 따먹고 입이 뻘어
또 울상이 되면 어찌랴
혼자서 총탁으로만 백도 더

미국놈을 때려잡았다는 나의 송아지동무
아, 쓴맛이 어찌 도토리맛이라
그것은 지난날 멍에 썼던 노예의 운명
다시는 걸을수 없는

속새꿀 가득나무발 그 길이기에
세상 행복을 다 준 조국에 너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꿈많은 청춘도
아낌없이 바칠줄 알았구나

다섯전사 전호속에 있었다

평장히도 커보이는 붉은 해
서쪽 하늘가에 기우뚱 걸어놓고
원췌의 시체를 밟고다니며
또 모아온 수류탄을 헤아려본다

생흙을 파고 제손으로 묻은
전우들의 복수를 위해서는
아직도 죽인 원췌가 너무 모자라
해지기전 또 한차례 싸움을 기다린다

어깨랑 서로 껍 겨안고
뺨에 뺨도 마주비벼대며
다섯전사 목이 메이도록
부르는 노래소리는 하늘땅에 메아리쳤다

분명 우리의 오늘에까지
슬기를 주고 용맹을 주고
희망찬 격조의 선물로
청춘들의 심장을 고무해주는 노래

이 노래를 물려준 선렬들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정녕 전사들의 총대를 함께 잡아주고

명중의 방아쇠도 함께 당겨주는가

그렇다, 먹지 못한채 꼬박 사흘낮
자지 못한채 다시 사흘밤
전호속에 살아남은 전사 다섯사람
그들곁에는 백두의 선렬들도 함께 있었다

아, 전호속에 그들이 살아있는동안
고지에는 람홍색기발 퍼덕이고있었음이어
아마도 세계는 알지 못했으리라
분대장을 잃은 분대가
부분대장도 없이 다섯전사가
누구의 지휘를 받아
미국의 련대도 사단도 쓸어눕혔는지

조선인민군의 전투규정대로
분대는 엄격히 지휘되고있었다
보이지 않는 백두의 선렬들
전호속에 함께 있었음에라

아, 위대한 혁명전통의 넋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땀

-삼지연못가에 세워진 조각군상앞에서-

김남걸

빛나는 눈동자
중오로 비낀 총창
수많은 조각군상에 앞서
투사여 그대 얼굴에 맺힌
한방울 땀을 두고 깊어지는 생각

불에 흐르는 그 땀방울
내 씻어줄순 없는가
단 한순간이라도
틀어진 그 총 대신 잡고 땀흘릴순 없는가

백두의 눈보라도

울부짖던 비바람도
추위도 그늘도 식힐수 없었던
투사여 그대 얼굴에 맺힌
한 방울의 땀

혁명의 사령부 위해
척후대로 방차대로
헤쳐넘은 사선의 그 언덕마다
눈보라에 앞서 행전을 적신것이
비바람에 앞서 온몸을 적신것이
어찌 한갓 땀만이였으랴

장군님 받들어싸운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대 심장의 뜨거움
그대로 얼굴에 내뿜아 땀했구나
그때문에 그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구나

아, 열풍이 몰아치는 용해장에서는
황금벌 들길우에서는

천만산악 주름잡는 훈련장에서는
내 한껏 흘리고싶어라
한갓 새벽이슬처럼 사라지는 땀이 아닌
아, 방울방울이 피처럼 진한
불타는 내 심장의 결정체를...

흘리고싶어라, 투사여 그대처럼
조국통일 이룩할 그날까지
씻지 않으리라 투사여 그대처럼
통일의 광장에 수령님 높이 모실
영광찬 그날
다도해 푸른 물 설레는 남해기슭에서
땀흘린 얼굴로 내 굳어지고싶어라

이 가슴 그대앞에 뜨거워지는것처럼
우리의 먼먼 후대들도
통일의 조각군상앞에서
피로 찾은 조국의 귀중함을
수령님 받들어 영생하는 인간의 삶을
한방울 땀만이 아닌 충성의 구슬앞에서
가슴뜨거이 느낄수 있도록...

두갈래 봇나무 외 1편

김 철

삼자연못가에 두갈래 봇나무
한뿌리에 태어나 함께 설레네
하늘가엔 백두, 은령이 굽어보고
돌레에는 맑은 물 그 자태 비쳐주네

행복하여라
하나의 큰품에 안긴 생명은!
눈서리 내려도 추운줄 모르고
세찬 바람 불어쳐도 헤어지지 않는다네

그대 때로 멀리

그대 때로 멀리
가야 할 일 있다면
걸음 가벼이
밝은 웃음 지으며 떠나가시라

창가의 은방울꽃
그 향기 풍겨 인사드리고
뜨락의 붉은 장미
그 빛갈 모아 바래주려니

잠간이면 다너울 출장길 아닌
천리로 먼길, 해를 넘길 길이라도
큰뜻을 안고 내친 그 걸음
사사로운 시름은 다 잊고 가시라

우리 얼마나 자주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만났던가
그러나 언제 한번 우리 심장
리별의 아픔으로 식은적 있었던가

내 기다리리라
첫사랑의 고백을 듣던 때처럼
그대 나를 불러줄
편지를 전보를
상봉을 재촉하는 기적소리를

내 그대곁으로 가서

힘이 되고 기쁨 되고 믿음 된다면
달려가리라 순간도 지체없이
정든 집 정든 거리 다 두고서라도
맨머리에 보집 하나 이고서라도

우리 다시 만날곳
산속이면 어떻게 낭끝이면 어쩌랴
샘물줄기 찾아서 돌아가마 걸고
첫끼니 지어 마주앉은들

그대 거기서
벼랑을 허물어 로반을 다진다면
나는 그우에 침목을 깔아가고
그대 거기서

날바다와 맞서 제방을 쌓는다면
나도 등에 돌집지고 감탕길을 달리며

우리 인연 맺어주고 굳히여준
위대하고 영광스런 어머니당의 품에
변함없이 청신하게 꽃피우리라
성실하고 불굴한 인생의 봄날을

하거니 내 사랑이여
그대 가는곳 천리라도 만리라도
나는 그대 한쪽 몸, 한쪽 날개
가시라 훨-훨-
나도 걸음 가벼이
밝은 웃음 지으며 따라가리라

시초

빛나라 영웅의 산아

김기호

금강산과 351고지

351고지가 앞에 있어
금강산이 절경이더냐
금강산이 뒤에 솟아
351고지가 철벽이더냐

어찌 보면 금강의 품속에
351고지가 안긴듯
어찌 보면 351고지의 어깨우에
금강이 떠받들리운듯

못잊어라, 산천은
포연이 흐르던 그날에
그 절경이 흐려질라
351고지에서 울려오던 목소리
-뒤에는 금강산, 금강산이 있다

못잊어라, 고지는
불비가 쏟아지던 그날에
그 철벽이 부서질라
온정령을 넘고넘어
금강에서 울려오던 메아리
-앞에는 351고지, 351고지가 있다

서로 부르고 화답하며
서로 아끼고 받들며
침략의 불구름 다 막아냈으니
고지는 영웅으로 이름높고
산은 절경으로 빛나네

아, 금강산과 351고지
조국과 병사의 영원한 모습이여!

그 발자욱따라

여기에 있었구나
내 걸음마도 떼기전
승리하고 돌아오마고
총메고 전선으로 떠나갔던
나의 아버지

앞뒤집 아버지네들
훈장달고 다 돌아오던
전승의 그날에도 아니오고
기다려 서른해가 넘도록
울줄 모르더니

여기에 있었구나
꿈결에도 불러보던 그 이름
표식비에 빛나는 자리
언제나 보고싶던 그 모습
불사신마냥 화구앞에 안겨오는곳

부르면 금시라도
불먼지 툭툭 털고일어나
위훈많은 가슴에 이 아들을 안아줄듯
어린날의 약속대로
따뜻이 손잡아 걸음마도 떼어줄듯

-나를 따라 앞으로 !
그날에 남기고 간 그 목소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달려가는 그 모습에 이끌려
한자욱 또 한자욱
화점으로 다가서는 이 마음

화구여, 울부짖으라
나도 병사

충성의 피가 뛰는 가슴
그날의 아버지처럼
불뿔은 화구에 대어보고싶다

불비여, 쏟아져라
위대한 수령님 위하여
영웅전사 번개쳐가던 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내 교대하고싶다

영웅전사 나의 아버지
고향집뜨락에서 못떼여준
이 아들의 발걸음
싸움의 불언덕에서
말없는 모습으로 배워주나니

아버지가 못다간 혁명의 길
대를 이어 내가 가리라
영웅전사의 아들답게 !
이다음 나의 후대들도
두고두고 내 발자욱 따를수 있게 !

공화국기발

무엇이기에
그리도 놓을수 없었더냐
참말로 무엇이기에
그리도 높이 추켜올렸더냐

한 전사 쓰러지면
또 다른 전사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고
심장에서 심장으로 넘겨받으며

피흘리면서도
숨지면서도
그것만은 그것만은
고지우에 꽃아달라 부탁하던
아, 한쪽의 기발이여

람홍색 그 빛갈엔
종다리 우짚던 봄날
장군님 주신 땅을 부여안고
감격에 목메여 울던
기쁨의 눈물이 젖어있더라

오각별 그 기록엔

팽파리 새납 울리며
푸른 솔대문 지나
자기의 손 자기의 권리로
새 나라를 세우던
인간의 존엄이 빛나고있더라

추켜들면
끝없는 하늘도 자기의것이 되고
떨어뜨리면
한치 땅도 남의것이 되는
그리도 신성한 기발

나아가면
쓰러져도 주인으로 영생하고
물러서면
살아도 죽은 노예가 되는
그리도 소중한 기발

불속을 헤쳐
죽음을 넘어
전사들 한줄 흠이 되면서도
그 기발만은
고지우에 높이 휘날렸거니

아, 공화국기발 !
 그것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하늘이며 땅
 오늘이며 미래
 천만의 목숨과도 바꾸지 못할
 단 하나 조국의 생명이었구나

한줌의 흙

351고지 마루에 올라
 흙 한줌 쥐여보니
 파편이 반나마 섞인때문일가
 싸움의 포화에 끄슬린때문일가
 무겁구나 한줌의 흙

내 어릴적
 고향의 강가에서
 흙으로 집을 짓고 땅크를 빗던
 소꿉놀이 그 시절에도
 한줌 흙은 이처럼 무거웠던가

미처 몰랐었구나
 조국진군의 날
 항일의 녀전사
 가슴에 소중히 싸안고 갔다던

그 한줌 흙의 무거움을

다는 몰랐었구나
 토지개혁의 그날
 3대머슴군이던 나의 아버지
 장군님 주신 발머리에서
 두손에 그러안고 불을 비비던
 그 한줌 흙의 소중함을

아, 한치한치를 피로 적시며
 목숨바쳐 지켜낸 영웅의 고지
 산마루에 오르니 내 알겠네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조국땅
 천금보다 무거운 한줌 흙이여 !
 목숨보다 소중한 한줌 흙이여 !

세월은 흘러가도

세월은 흘러
 어느덧 30여년
 그날에 불타던 고목들은
 숲속에 묻힌지 오래고
 포화에 부서졌던 바위에도
 푸른 이끼가 덮였는데

불길이 너무도 세찼던탓일가
 흘린 피 그리도 진했던탓일가
 불뿔는 적의 화구
 가슴으로 막은 자리
 풀 한포기 나무 한대 아니 돋았음은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누구나 선뜻 말하지 말라
 삼가 여기서는
 영웅들이 피흘려 싸운 여기서만은

두고두고 영웅들을 잊지 말자고
 어버이수령님 붉은 연필로
 별처럼 작전도에 새기셨던 자리
 영웅들의 이를 하나하나 부르며
 우리 당중앙이 보살핀 자리

아, 한없는 그 사랑 그 기억 속에
 옛싸움터 그대로 아껴두었으니
 충성의 절정에 오르던
 불멸의 그 모습 그 넋이
 오늘도 그날처럼 살아 빛나는곳
 래일도 그날처럼 길이 빛날곳

천년이 흐르고
 만년이 지난대도
 조국 위해 생을 바칠줄 안
 영생의 넋이 깃든 이 고지엔
 락엽 한잎 티끌 하나 아니 덮이리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봄우리》를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내용으로 한 혁명적인 소설을 더 많이 써내야 하겠습니다.》

문예출판사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4월 15일에 즈음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봄우리》를 출판하였다. 장편소설 《봄우리》(석윤기작)는 이미 출판된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의 속편으로서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로부터 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 창건까지의 시기를 역사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앞길에 형언할수없이 엄중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으나 그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헤쳐나가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원인 조선인민의 첫 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가 어떤 간고한 투쟁의 로정을 거쳐 탄생하였는가를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는 혁명적대작이다.

소설은 9.18사변이후 눈발날리는 음산한 간도땅이 추수투쟁대렬의 함성에 불덩어리가 되어 일제놈들의 기마경찰대와 란투를 벌리는 3.7제투쟁부터 시작된다. 시위자들의 반일기세가 높아지는데 따라 추수투쟁을 승리로 조직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소년선봉대원이 기마경찰대놈들한테서 빼앗은 총을 대견하게 보아주시고 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시며 명월구로 떠나신다. 명월구에서 조선혁명군 참모장 차광수로부터 최효성의 투쟁과 려순감옥에서 투쟁하고있는 김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곧 차광수를 려순으로 파견하신다.

차광수가 떠난후 장군님께서서는 수수한 농가의 공간에서 앞으로 집행할 회의문건을 작성하시면서 조선혁명을 보다높은 단계으로 이끄시기 위한 무장투쟁로선을 무르익혀나가신다.

며칠후 려순에서 돌아온 차광수로부터 혁명동지들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아픔을 느끼시였다. 한별의 전사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시뻘겅게 단 난로를 그려안고 마지막 최후를 마친 김혁, 그렇게도 사랑하던 용감하고 아름다운 공청원 한영희마저 삼간보의 눈덮인 야산기슭에 묻고 떠나야 했던 김혁의 애인 유선이 ...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놈들의 강도적인 착취와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동지들의 희생이 날로 늘어나는데 따라 소극적인 투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가슴아프게 체험하였으며 이로부터 무장투쟁을 벌릴것을 결심하고 1931년 12

월 16일 명월구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 앞으로 창건할 반일인민유격대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천명하시교 무장을 자체로 해결하며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형성할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신다. 회의가 끝난후 장군님께서서는 허재물에게 동만특위책임자 동자경이 룡정에서 체포되였다는것을 알리고 그곳 형편을 알아보고 오라고 파견하신다. 룡정에 나온 허재물은 인단장사로 변장하고 류치장살이를 할만한 《죄》를 일부러 만들어 경찰서 감방에 갇힌다. 허재물은 감방안에서 동자경을 만나 반일전선련합문제를 토의하고 경찰서에서 나와 장군님께 보고드린후 안도로 떠난다.

안도에서 허재물은 공산주의라면 질색하는 부강촌 지주 안운재의 보위단에 체포되어 창고에 갇힌다. 그는 창고안에서 오가자에서 온 최만득을 만나며 안운재의 아들 안영호와 부금이의 주선으로 보위단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허재물은 안영호와 부금이의 생명의 은인이다. 얼마전에 안영호와 부금이가 극장앞에서 부랑배들에게 에워싸여 곱경을 치고있을 때 허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여주었다. 안부금이의 바래움을 받으며 부강촌마을을 떠난 허재물은 창고에 갇혀있던 최만득이가 오늘 안도경찰서로 호송된다는것을 미리 알고 푸르허강기슭 수수밭속에 매복한다. 거기서 그는 돈화에서 돌아오는 차광수, 최옥섬 일행과 만난다. 차광수는 허재물과 최옥섬을 장군님께 먼저 보낸 다음 계영춘, 강영진과 함께 최만득을 호송하는 왜놈경찰을 제끼고 그를 구원한다. 장군님께서서는 차광수와 허재물이 룡정과 길림에서 진행한 공작과 부강촌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당면하여 부강촌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신다. 그것은 간도와 돈화, 안도를 련결하는 길이 꼭 부강촌을 거쳐서만 통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적들은 부강촌을 병모가지처럼 틀어쥐고 안도를 찾아오는 수많은 청년들을 체포학살하기때문이었다. 부강촌 문제를 푸는것은 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오정혁이를 자기 마을인 부강촌에 보내고 자신께서 직접 들어가실것을 결심하신다.

오별장네 집 머슴으로 3년계약을 한 장군님께서서는 증손이라는 아명을 가지고 오정혁의 나무발구를 타시고 부강촌에 오신다.

장군님께서서는 송남칠을 비롯한 마을청년들이 술이나 마시고 투전판을 벌리는 마실방에 오정혁을 보내시여 그들을 혁명화하도록 지도하시는 한편 조선과 만주의 정세를 이야기해주고 우리도 다른 지

방 청년들처럼 뭉쳐서 왜놈들과 싸울준비를 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준다.

장군님께서는 무던한 마음으로 누구나 손불이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제끼며 사람들의 부탁이면 첫마디에 다 들어준다. 동네아낙네들의 부름을 받고 우물가에 얼어붙은 얼음도 까주고 오동지설달 언땡을 파내고 수수뿌리를 캐여 보위단원 리상범의 어머니병도 치료해준다. 장군님의 사랑과 가르치심을 받은 리상범은 어느날 박일보가 체포한 라자구에서 보낸 연락원을 보위단에서 빼내는데 성공한다.

장군님께서는 머슴을 사시면서도 연길, 왕청, 화룡, 훈춘지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혁명전반을 지도해나가신다. 그러나 장군님의 신변에는 위험이 각일각 닥쳐온다. 안영호의 잔치에 가서 떡을 쳐주라는 오벌장의 분부를 받은 장군님께서는 떡을 칠줄 모르는것도 문제이지만 안윤재의 집에 가서 옛독립군출신인 신재림과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위험앞에 드러내는것을 두려워 안하시고 안윤재의 집으로 가신다.

한편 정치범석방운동이 실패하자 후꾸다와 니시자와는 《나고야려관》 2층에서 새로운 계획을 모의한다. 공산주의세력이 만주의 반일세력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썩기를 막는 것이다. 일제특무기관의 앞잡이 지대현의 연락을 받은 안영호는 보위단원 박일보, 김영택, 기득이를 데리고 량강구로 떠난다. 지대현은 약속한 지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다가 장거리 한끝에 자리잡고 있는 중국집으로 데리고간다. 소인방과 국민부 행동대원, 그리고 최용필은 안영호를 비롯한 보위단원들에게 조선반지저고리를 갈아입히고 공산당원들이 모여서 무슨 음모를 꾸민다는 진가유방으로 데리고가서 담장을 넘고 문을 차고 들어가 무작정 쏘아죽이게 한다. 그들이 친것은 공산당이 아니라 우사령부의 장교들이었다. 일제놈들은 이렇게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반일부대세력과의 단합에 충격적인 썩기를 박았다.

량강구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산속에서 차광수로부터 김책, 허재룡, 리광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앞으로 투쟁방향을 가르쳐주시고 급변한 부강촌의 정세에 따라 송남칠, 상범이, 오정란을 중심으로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신다.

장군님께서는 박일보의 허망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의 시신을 찾아 초상을 치르게 하시여 부강촌의 농민들뿐아니라 보위단원들까지 제복과 총을 메치고 안윤재를 규탄함으로써 부강촌이 안운

재의 소왕국으로부터 혁명의 책원지로 전변된다. 부강촌공작을 마치고 소사하에 돌아오신 장군님께서는 각지의 폭동과 무장대오준비, 무기탈취투쟁을 지도하시는 한편 안도에서 선참으로 창건하게 될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준비해 나가신다. 장군님께서는 반일유격대 창건을 위해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여시고 일제의 조종인민에 대한 리간정책을 짓부시고 우사령부대와 담판하여 반일인민유격대와 연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우선 장군님께서 몸소 이 담판에 나서시겠다고 하시면서 박훈, 진한범을 비롯한 혁명군 대원들을 거느리고 우사령부대를 찾아가신다.

담판에서 우사령은 일제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공동의 원수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부대의 연합만이 일제를 쳐물리칠수 있다는 장군님의 명철하고 론리정연한 말씀에 더 반박하지 못하고 진정을 못하고있었다.

우사령과의 담판은 안영호의 출현으로 중단되고 만다. 안영호는 허재룡을 사랑하던 부금이의 자살로 하여 실성한 사람처럼 해란강가에서 부금이를 부르며 정처없이 돌아다닌다. 부금이를 죽인것이 자신이 옳은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데 있다는것을 뒤늦게나마 자책한 안영호는 공산주의의 진실을 깨닫고 니시자와를 찾아가 마시던 술병으로 까둑히고 우사령을 찾아왔던것이다.

안영호는 우사령을 만나서 량강구에서 반일부대의 장교들을 쏘아죽인것은 공산당이 아니라 바로 자기라는것을 고백함으로써 우사령과의 담판은 승리적으로 결속되며 칠성관에 올랐던 안영호마저 장군님께서는 넓은 도량으로 용서해준다.

세월의 비바람, 눈바람을 헤치며 혈전의 광야를 넘어온 사람들이 토기점골등관에 줄을 지어서 있다. 철창속에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으며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이 등관까지 꾸준히 걸어온 조선혁명군 대원들이다.

1932년 4월 25일,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이어 대오가 붉은기를 휘날리며 보무당당히 안도현성안을 행진하여 5.1절 경축식장으로 나가는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장편소설 《봄우뢰》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불과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이 놓여있는 그 엄혹한 세파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떻게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는가 하는것을 전설속의 이야기처럼 가슴뜨겁게 느낄것이다.

랑남익

형제의 나라 소련에서

홍석중

3. 벚들과 함께

9월 25일은 소련작가동맹이 창립 선뛵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 우리들은 명절을 기념하는 소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초대되었다. 회의가 열리는 크레몰리회의장주변과 휴계실안은 말그대로 명절기분이었다. 소련의 각지에서 올라온 작가대표들, 사회계인사들, 50여개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손님들이 서로 어울려 상봉과 해후의 인사말을 떠들썩하게 주고받는중이었다.

《따와리쉬 **김일성!**》 《까레이!》

낯익은 얼굴, 낯선 얼굴들이 려이어 우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우리는 벚들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로 들어갔다. 끈끈한 체르네희를 비롯한 소련공산당의 정치국성원들과 게. 엠. 마르코프를 비롯한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들, 그리고 제1차작가대회의 참가자들인 로작가들이 주석단에 오르자 곧 전원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에 참가하여 느낀 인상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소련의 벚들이 레닌과 고리끼에 의하여 마련된 쏘베트문학의 전통과 그 업적을 훌륭히 계승하고있다는것과 앞으로 그 길에 굳건히 서있으리라는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알게 된것이었다. 회의에서는 소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마르코프를 비롯하여 수많은 작가동맹 일군들과 이름있는 작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레닌과 고리끼의 유훈에 충실하였던 지난 50년의 빛나는 로정을 크나큰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끝까지 그 길에서 충실하리라는 자기들의 결의를 당과 인민 앞에 굳게 다졌다. 실상 혁명문학전선에서의 전통계승과 위업고수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우리로서 소련벚들의 그러한 성과와 신념을 알게 된것이 무엇보다 제일 기쁜 일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작가들의 재능과 노력, 정신적재부로서의 문학작품에 대하여 간직하고있는 소련의 당과 사회계와 전체인민들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직접 목격하게 된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회의에 참가하기전에 모스크바를 돌아보면서 벌써 정

신적재부의 창조자들을 대하는 소련사람들의 정중한 태도를 통하여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회의에 참가하여 까. 우. 체르네희동지를 비롯한 이름있는 사회정치활동가들의 축하연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소련작가들이 사회적으로 누리고있는 존경과 사랑의 무한한 깊이를 다시한번 정확히 재여볼수 있었다.

이것 역시 우리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왜냐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그 어느 나라 작가들보다도 가장 큰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 조선작가들이야말로 소련의 벚들이 누리고있는 그 행복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기념행사로 진행되는 이 회의는 하루동안에 전부 끝났다. 우리는 행사가 진행되는 그 하루와 이후 여러날동안 수많은 소련의 벚들과 외국의 벚들을 만났으며 그들과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들의 앞가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본 모든사람들이 우리가 주체조선의 작가들이라는것을 알게 된 모든 벚들이 우리와 인사를 나누고싶어했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어했다. 소련작가동맹 제1비서 게. 엠. 마르코프는 원래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데다가 행사준비때문에 바빠서 외국대표들을 만나지 못하였었다. 그런중에도 그는 자주 다른 일군들을 보내여 우리들의 안부를 물어왔고 또 조선작가들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만나보고싶다는 각별한 의향을 전해왔었다. 그는 행사뒤끝에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졌으나 그는 우리와 상봉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근 30년전인 1956년에 소련작가동맹 대표단의 단장으로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녔었다. 마르코프는 그때의 감회를 애뜻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고나서 그는 금년봄 소련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뵈운이야기를 감명깊게 말하였다. 뒤이어 그는 최근 조선의 벚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훌륭한 창작적성가를 거두고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잘알고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호상 성과와 경험들을 배우기 위하여서

도 두 나라 작가들의 교류와 왕래를 더 많이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마르코브는 우리와 헤어지면서 또다시 30년전의 옛 추억을 더듬었다.

《... 그때는 조선동지들이 한창 복구건설을 진행할 때였지요. 도시는 아직 전쟁의 흔적을 가시지 못했었지만 목고채를 메고 달리는 당신들의 불같은 열정과 미래에 대한 신념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평양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되었지요? 언제건 기회가 생기면 꼭 조선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그는 문밖까지 따라나오며 우리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었다. 꾸밈없는 소박한 그의 말이 우리의 심장을 울렸다. 벗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쏘련작가동맹 비서인 젠리흐 보로위츠를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를 회의가 있는 날 저녁 초대연이 벌어진 켄스모쓰레스토란에서 만났다.

밤색머리를 길게 기르고 등은 약간 구부정한데 이목구비가 선명한 얼굴에 창끝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성격이 불처럼 격렬하고 남에 대한 요구성이 무한히 높을뿐 아니라 눈에 띄우는 사소한 약점에 대하여서도 결코 용서가 없는 법이다.

우리는 그가 다년간 미국에 주재하는 쏘련기자로 활동하였다는 것과 미국지배층들이 그의 무자비한 필봉을 대단히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조선작가들을 만나려고 번잡한 연회장을 살살이 훑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푸에블로〉 호사건도 있었고 간첩비행기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얻어맞고 찢절매던 미국놈들의 당황한 물골을 생각하면 지금도 통쾌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우리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다. 또 한 사람의 친근한 벗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회의가 있는 다음날 젊은 한 여성이 우리를 찾아왔다. 아가쉬나 엘레나 워드로브나라고 부르는 이 여자는 쏘련 여성사의 기자였다.

그의 어머니인 마르가리파 아가쉬나는 《지금 볼고그라드에서 살고있는 녀류시인인데 한때 조선을 방문하였었고 돌아와서 **김일성** 동지와 조선에 대한 여러편의 시를 창작하여 발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조선

을 친숙하게 생각하여왔고 철이 들면서부터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대한 책을 읽고있다는 것이었다.

《나한테는 언제나 조선이 동화세계처럼 아름답게만 그려져요. 가보지 못한만큼 알고싶은것은 더 많군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에게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여러권의 화첩들을 주었다. 크나큰 만족감을 가지고 책을 받아안으며 거듭 사의를 표하던 그 여성의 맑은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우리는 행사날을 전후로 하여 쏘련의 벗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벗들과도 여러번 만났었다. 그중에서도 튜니지 작가대표단을 만나던 일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회의가 진행되던날 크레믈린관에서 점심식사를 한 우리들은 팔레스티나, 니까라과대표들과 함께 정원길을 거닐며 사원을 구경하고있었다. 이때 키가 큰 아랍사람이 일행속에 뛰어들어 다짜고짜 우리들을 불안았다.

오래 떨어졌던 친혈육을 다시 만난것처럼 열정적으로 우리들의 불을 비비고 난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자기를 튜니지작가협회의 총서기라고 소개하였다.

《나는 주체사상의 신봉자입니다. 조선을 세번이나 방문하였는데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의 접견을 받는 영광까지 지냈습니다. 나는 이미 〈동방에서 태양이 솟는다.〉라는 제목으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책을 써서 출판하였고 지금은 그 책의 2부인

김정일 동지에 대한 책을 쓰고있습니다. 이 책을 빨리 끝내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널리 선전하는 것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작가로서 저의 제일 큰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들앞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조선말로 훌륭하게 불렀다.

《책을 완성하면 꼭 조선에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었으나 그의 자세와 목소리에는 류다른 경건성이 담겨져있었다.

진정 벗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는 마치 우리 조국을 비추어본 맑은 거울과 같은 것이었다. 그 목소리에 비친 내 조국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 없는 긍지를 느꼈다.

(다음호에 이음)

살구꽃 필 무렵

차순명

1

눈은 계속 내리고있었다. 사위는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발구름소리로 법석 끊던 유치원은 조용해진듯싶었다.

일요일이어서 주일유치원의 어린이들이 집으로 가는 날이었다.

퍼붓는 눈속으로 알락달락한 솜옷을 입고 쿵쿵 뛰여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만족한 웃음이 함뿍 어리어있었다.

창유리를 통하여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토끼뿔을 하면서 떠나가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교양원 옥임이의 얼굴에는 짙은 근심이 어리어었다.

그의 곁에는 외태머리를 곁에 땀은 소녀애가 발돋움을 하며 어둠이 덮이기 시작한 정문쪽을 훑어지게 지켜보고있었다.

김꽃분어린이였다.

떠나가는 아이들이 못건디게 부러워진 그의 까만 두눈에는 맑은 이슬이 한가득 고이였다. 꽃분이의 아버지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것이였다.

옥임이는 꽃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듯 말하였다.

《인젠 그만 들어가요. 아버지가 좀 늦어오실려나봐요.》

그러나 꽃분이는 창가에서 물러설줄 모른다. 눈가에 고였던 이슬방울이 꽃분이의 볼우로 천천히 흘러내리였다.

옥임이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한해전 불시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고있는 꽃분이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우울하고 소심했다. 꽃분이를 담임했던 이전 교양원은 남편을 따라 다른고장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앤 참 별난 아이예요. 아무한테도 통 결을 주지 않고 늘 외로리로 혼자 있군합니다. 좀처럼 말도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 그 애한테서 아직 선생님이란 부름을 못들어왔어요. 오죽하면 그 애 아버지가 혼자 있겠어요.》

《...?》

옥임이는 미처 그의 말뜻을 리해할수 없었다. 의문을 품은 옥임이의 눈길을 느꼈던지 그 녀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꽃분이의 아버지 김은석은 여섯해전 가을에 이곳 도자기공장에 왔었다.

그는 본래 B시의 화학공장에 있었는데 어느날

그 공장은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기사였던 은석이가 금방 터지려는 발브를 필사의 힘으로 막았다. 무서운 폭발은 무사히 지나갔으나 은석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처녀가 입원한 총각을 찾아갔고 얼마후 그들은 결혼했다.

그후 은석은 이곳 도자기공장 직장장으로 소환되었다. 그들에게는 곧 귀여운 딸이 생겼다. 단란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흘러갔다. 그러한 그들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쳐올줄은 아무도 몰랐었다. 꽃분이의 어머니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참 기막힌 일이에요. 꽃분이는 유치원에서 그 애 아버지는 늘 사무실에서 서로 떨어져 살다싶이 하는걸요. 애가 참...》

이전 교양원은 가볍게 한숨을 내뿜었다.

옥임이도 마음이 쓰리여서 잠자코 손톱눈만 썰었다.

《애가 사근사근하면 좀 좋겠어요? 좀처럼 결을 주지 않는걸요.》

듣고있던 옥임이가 한가닥 기대를 품고 성급하게 물어보았다.

《혹시 그 애가 남달리 좋아하는것이 없는가요?》

《그림을 펴 좋아해요. 언제인가 그림공부시간에 그 애의 그림학습장을 보았는데 참 신통하더군요. 하나하나의 그림들이 여섯살난 어린이가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옥임이의 쌍까풀진 두눈이 한순간 반짝 빛났다.

《확실히 그 애의 그림은 훌륭했어요. 구도와 색조화가 조화로울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민감하다고 볼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는 놀랍게 생각되어 그 애의 그림공부에 기대를 가졌는데 통 결을 줘야지요. 그래서... 그저 지나쳤어요.》

그리고는 가책이 담긴 목소리로 나직이 말을 맺었다.

《그 애의 좋은 측면에 진작 관심을 돌렸어야 했을걸 내가 미처...》

그리고 그 녀자는 떠나갔다. ...

그후 옥임이는 어떻게 하든지 꽃분이와 친숙해지려고 애를 썼다. 그 애의 차거운 마음도 녹여주고 그림공부도 더 잘 해보자고 힘써왔지만 아직은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옥임이가 이런 생각에 잠겨 망연히 서있는데 문득 꽃분이가 그의 옷깃을 가볍게 건드리었다.

《왜 그러나요?》

옥임이는 허리를 꺾고 꽃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고리깃을 만지작거리며 한동안 머뭇거리던 꽃분이는 속삭이듯 물었다.

《어린이상점이 먼곳에 있나요?》

《어린이상점?》

옥임이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한참 가야 돼요. 왜 그러나요?》

꽃분이는 두눈을 내리칸채 대답이 없다. 몇번 거듭 물었으나 그 애의 작은 입술은 여전히 꼭 다물린채로였다.

이때였다. 문기척소리가 들리더니 꽃분이의 아버지 은석이가 웃음을 띄우고 들어섰다.

《아버지! ...》

꽃분이가 반가운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었다.

은석은 딸애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며 미안한 표정으로 옥임이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아직 퇴근 못하셨군요. 빨리 온다는 게 그만...》

불현듯 꽃분이가 아버지께 매달리며 작은 두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내 털신발? ...》

잠간 놀라는듯싶던 은석이는 얼른 딸애를 그러안았다.

《꽃분아, 아버지가 그만 상점에 못갔었구나. 내 인차 사다주마.》

꽃분이의 실망한 눈길에 아버지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머리를 까닥거리며 발을 쿵쿵 굴러보는것이였다. 마치도 《난 발이 시려요. 좀 바꿔주세요.》 하는듯싶었다.

옥임이는 참으로 보기가 딱하였다. 그러지않아도 일이 바쁘고 마음고초가 많아서 여러모로 괴로운 은석이가 아닌가. 옥임이는 얼른 말머리를 돌리었다.

《무척 바쁘신게지요?》

《시험생산이 아직... 그래서 애와 한 약속도 그만 어기고말았군요.》

제 엄마가 사주었던 그런 털구두만 사달라고...》

옥임이는 비로소 꽃분이가 어린이상점을 묻게 된 까닭을 알아차렸다.

그는 서늘해지는 마음으로 꽃분이의 작은 발을 꼭꼭 눌러보았다. 오이씨같은 발가락들이 비닐구두 안에서 움지락거린다.

(내가 왜 꽃분이의 털신 생각을 못했을까.)

쓰라린 가책에 마음이 아파났다. 그래도 자기편에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꽃분이를 돌보리라고 생각했던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대학을 졸업한후 5년 세월 옥임이의 마음은 하루도 아이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의 희망도 기쁨도 행복도 애들속에 있었다. 늘 씩한 키에 사색적인 시원한 눈을 가진 다감한 성격의 옥임이는 못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였고 더우기 술한 총각들이 원심을 쓰는 아름다운 처녀였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부드럽고 파스했으나 총각들에게 던지는 그의 눈빛은 차갑고 엄했다.

그래서 처녀들은 옥임이의 눈빛이 대학교수나 이름난 과학자가 나타나면 변할것이라고 깔깔거리면서 놀려주곤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옥임이의 가슴속에 묻어둔 소중한것을 다 알지 못하였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이였다.

옥임이는 동창생들과 함께 부푸는 가슴을 안고 공원의 언덕길을 걷고있었다. 조국은 그들에게 희망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있었다.

동무들은 저저마다 가슴속에 품고있던 아름다운 꿈을 터쳐놓았다.

《옥임이, 넌 졸업하면 무엇을 하겠어?》

최우등생인 옥임에게 동창생들의 기대가 담긴 눈길이 쏠리었다.

옥임이는 꽃망울이 한가득 영근 살구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난 아이들을 키우는 교양원이 되겠어. 아이들은 저 꽃망울과도 같아. 꽃망울이 좋아야 탐스러운 꽃송이가 피어나듯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조국이 만발한 화원으로 될게 아니냐.》

생의 첫 자국을 옮겨딛는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 그것은 졸업후 옥임이의 생활의 전부였고 궁지였다. 마치도 봉긋이 움트는 꽃망울을 소담하게 피워가는 원예사의 환희로운 심정이라고 할지...

그러나 꽃분이를 생각할 때면 그는 마음의 안정을 느낄수가 없었다.

가볍게 한숨짓던 옥임이는 꽃분이를 돌아보았다. 은석이가 꽃분이의 차림을 거들면서 떠날 차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옥임이는 꽃분이를 그리안으면서 은석이를 바라보았다.

《저 래일은 꽃분이를 저에게 맡기세요. 일이 바쁘실텐데...》

《선생님이?!》

은석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함께 어리었다.

《래일은 쉬는날인데 공연히 이 애때문에... 그러지않아도 면목이 없습니다.》

은석은 굳이 사양하였다.

《아이, 별말씀을...》

옥임이는 꽃분이의 손을 다정히 꼬당기였다.

《꽃분이, 래일은 선생님과 같이 있자요.》

그러자 꽃분이는 옥임이의 손안에서 살그머니 손

목을 뽑았다. 아버지의 등뒤로 살짝 숨으면서 소곤거리었다.

《아버지, 빨리 가요!》

한순간 옥임이의 얼굴은 빨갛게 물들었다. 그는 꽃분이를 끌어당기면서 달래듯 말하였다.

《꽃분이,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상점에 가보지요. 좋지요?》

옥임이를 지켜보던 꽃분이는 세차게 도리머리를 하였다.

그러더니 나들문쪽으로 아버지를 끌어당기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난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갈래요.》

2

옥임이는 어둠이 잠긴 은하강 다리를 건느고 있었다. 그는 다리란간에 잠깐 몸을 기대고 퍼붓는 눈발속으로 불빛이 방긋거리는 저 멀리 마을쪽을 바라보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옥임이는 어제 오후에 도미술창작사로 찾아갔다.

그가 그림공부를 마쳤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서둘러 떠나려는 그에게 그곳 일꾼들이 이런 사나운 날씨에 어떻게 가겠느냐고 하면서 아침에 그쪽으로 가는 배스를 타라고 만류했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을 원아들과 더우기 꽃분에게 주려고 사넣은 목이 긴 빨간구두를 신겨보고 싶어 견딜수 없었다. 그리하여 옥임이는 40리가 실히 되는 밤길을 떠났던 것이다.

지칠대로 지친 옥임이는 밤이 펍 깊어서야 유치원 트랙에 들어섰다.

《옥임선생이 아니예요?》

원장이 급히 달려나오면서 옥임이의 두손을 다정히 잡아주었다.

《아이, 원장선생님! 왜 주무시지 않으시고...》

옥임이는 자기를 생각하는 원장의 마음이 고마워서 말끝을 흐리었다.

《내 옥임선생이 이 밤으로 기어이 돌아설줄 알았어요. 그곳 일꾼들한테서 래일 아침에 떠나보내겠다고 전화가 왔지만... 참 꽃분이가 선생이 오면 그림을 배우겠다더니 방금 잠들었군요.》

《그래요. 저때문에 원장선생님까지...》

《원 별소릴... 어서 침실로 들어가요.》

원장은 옥임의 어깨에 소복이 쌓인 눈가루를 털어주면서 그를 아끼는 마음을 숨길줄 몰랐다.

옥임은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다.

가지런히 놓인 침대우에서 귀여운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 썹썹거리며 잠자고 있었다. 차던진 아이들의 이불깃을 퐁퐁 여며주며 꽃분이의 침대에 다가선 옥임이의 얼굴에는 따뜻한 웃음이 함뿍 피어올랐다.

여러장의 그림종이들과 붓 그리고 크레용이 꽃분이의 머리맡에 놓여있었다.

옥임이는 조용히 그림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웃고있는 녀인의 얼굴이 그려져있었다. 그 다음장에도 똑같은 녀인이 조용히 웃고있다. 아마도 어머니인듯싶었다.

옥임이는 만족스러웠다. 옥임이의 미술지식이 깊어짐에 따라 꽃분이의 붓놀리는 솜씨가 놀랍게 늘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미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자질을 높이던 힘겨웁던 날들의 보람이 가슴 뿌듯이 안겨와서 내심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웃음을 머금은채 다음장을 펼치었다. 순간 옥임이는 놀라운 눈길로 그림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두팔을 활짝 벌리고 서있는 아기를 그렸는데 아기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몇장을 더 그렸었다.

나머지 종이에도 젊은 녀인이 아기와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녀인은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방긋이 벌린채로였다.

옥임이는 안타까웠다. 어제저녁에 떠날 때 그림종이와 원본을 주면서 그대로 그리라고 당부했건만 꽃분이는 온통 녀인과 아이의 얼굴만 그린 것이었다.

웃음이 피었던 옥임이의 눈가에 불시에 서운한 빛이 질게 어리었다.

벌써 그 몇번, 꽃분이는 종이만 생기면 낮익은 녀인의 얼굴을 크게도, 작게도, 곳곳에 그려넣곤 한다. 유치원어린이들의 그림전시회에 내놓을 그림내용을 그토록 애쓰며 골라주는데도 엉뚱한 그림만 그려놓을뿐 옥임이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직도 꽃분이는 굳게 닫겨진 마음의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옥임이는 시름겨운 얼굴로 그림에서 눈을 떼고 잠든 꽃분이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오이씨같이 작은 꽃분이의 두발이 남요뻘으로 뽀족이 내밀었다. 옥임이는 불시에 털구두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서둘러 가방에서 구두를 꺼냈다. 그리고는 조심조심 꽃분이의 발에 신겨보았다. 꼭 맞았다.

순간 옥임이는 온갖 시름과 피곤이 가신듯 사라지고 온몸에 새힘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었다. 그러고보니 구두목에 털깃이 없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었다.

문득 그는 토끼털이 생각키웠다. 그는 그것을 찾아내어 꽃분이의 신발목에 잇대기 시작하였다. 귀뚜라미가 도간도간 침실의 고요를 깨뜨릴뿐 사위는 정적속에 잠기었다.

얼마후 바느질을 끝낸 옥임이는 잠간 눈을 붙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옥임이는 잠결에 그 어떤 감촉을 느끼며 살그머니 눈을 떴다.

침대우에서 일어난 꽃분이가 발뽕발뽕 옥임이의 앞으로 다가오고있었다. 그는 구두 한짝을 살긋이 집어들어 조심조심 쓰다듬었다.

《야 곱네.》

꽃분이의 얼굴에 방그레 웃음이 피어오르더니 다른 한쪽을 마저 쥐려고 손을 뻗치었다. 순간 꽃분이는 옥임 이가 자기를 지켜보고있음을 알아차리고 놀란듯 그자리에 신발을 놓았다.

옥임이는 얼른 꽃분이를 꺼안으며 구두를 안겨주었다.

《어때요? 신발이 마음에 들어요?》

꽃분이는 대답없이 구두를 끌어안은채 의문실린 눈길로 옥임을 쳐다보았다.

《자 어디 한번 신어봐요. 꽃분이를 주려고 선생님 이...》

옥임이는 꽃분이의 발앞에 신발을 나란히 세워주었다.

별안간 꽃분이는 침대우에 신발을 놓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사온댔어요.》

순간 옥임이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는듯싶었다. 야속스러운 생각에 눈물이 쏟아질듯싶었으나 옥임이는 마음을 다잡았다.

《꽃분이, 바로 아버지가 사오신거예요. 꽃분이가 꺼여나면 신겨보라고 했답니다.》

옥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꽃분이는 한참이나 소곳이 섰다가 마침내 한쪽신발에 자기의 작은 발을 밀어넣었다. 구두의 앞코승이가 꽃분이를 뻥히 올려다보는것 같았다. 따뜻한 털깃이 종아리를 간지럽히는듯 그는 웃음을 감출줄 몰랐다.

옥임이는 신발끝을 꼭 눌러보며 다정하게 물었다.

《어때요? 발이 편해요?》

꽃분이는 머리를 까닥거리었다.

《됐어요. 눈구멍이에 막 덩굴어도 발이 시리지 않을거예요.》

옥임이는 신발을 벗겨 침대결에 놓아주고 꽃분이를 자리에 눕히었다.

《자, 이제 그만 자요.》

그러나 꽃분이의 까만 눈은 더더욱 초롱초롱해졌다. 옥임이의 살뜰한 눈길을 한동안 지켜보던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묻는것이였다.

《선생님도 엄마가 있나요?》

옥임이는 당황해났다. 천진한 꽃분이의 물음은 그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였다. 옥임이는 또렷한 꽃분이의 눈길을 피하면서 흘러내린 이불깃을 당겨놓았다.

《어머니가 있답니다.》

속삭이는듯 나직한 목소리였다.

그러자 꽃분이는 침대우에서 살그머니 일어났다. 그는 호기심이 잔뜩 동해있었다.

《보고싶지 않나요?》

옥임이는 기가 막히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윽고 옥임이는 꽃분이를 품에 안고 은근한 목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가 보고싶답니다. 어떤 날은 막 달려가고싶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꽃분이를 생각한답니다.》

꽃분이가 기뻐서 웃고 춤을 추면 선생님은 엄마 생각도 다 잊곤해요. 그러나 꽃분이가 웃지도 않고 그림 공부도 잘하지 않으면...》

옥임이는 잠시 말을 끊었다.

정말 꽃분이가 결을 주지 않을 때면 울고싶었다. 아니 남몰래 눈물을 흘린적이 그 몇번이었던가. 그는 아픈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꽃분이의 그림 한장을 집어들었다.

《이것 보세요. 꽃분이는 웃고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어요. 꽃분이가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면 어머니 은 언제나 웃으신답니다. 선생님도 그런 꽃분이를 볼 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어머니 생각도 다 잊어버리곤해요. 꽃분이도 선생님도 다같이 결에 어머니가 안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있지 않아요. 아버지원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든것을 꽃분이들에게 안겨주시기때문이에요. 꽃분이는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어서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알겠어요?》

한동안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꽃분이가 의문실린 눈매로 옥임을 찬찬히 쳐다보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다.

《정말 아버지가 신발을 사왔나요?》

옥임이는 꽃분이의 동실한 코망울을 톡 툇기면서 살짝 웃어주었다.

《그럼요. 꽃분이가 잠잘 때 사다놓고가셨어요.》

꽃분이의 또렷한 두눈이 금시 셀쭉해지면서 조꼬만 입술을 뽀족이 내밀었다.

《거짓말! 난 아버지를 아까 만났댔어요.》

옥임이는 터지려는 웃음을 참고 꽃분이를 꼭 그려안고 그의 야들한 볼에 자기의 달아오른 얼굴을 갖다대었다.

문득 꽃분이의 속삭이는 소리가 귀전을 간지럽히었다.

《난... 난 알아요. 선생님이 내 신발을 사오신줄을...》

순간 옥임이의 가슴에는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꼭 차올랐다.

눈가에 맺히었던 이슬방울이 옥임이의 두볼우로 흘러내리었다.

밖은 벌써 흰해지고있었다.

3

따뜻한 날씨는 며칠째 계속되였다. 군데군데 무져있던 눈무지들이 녹아내리고 처마말의 고드름도 맥없이 떨어졌다.

기다렸던 일요일이였다. 지금 옥임이는 언제부터

한번 가보려던 꽃분이의 집을 찾아떠난 길이었다.

가벼운 봄바람이 그의 진회색 봄외투자락을 날리고 연분홍빛목도리를 스치며 두볼을 어루만져주었다.

츄츄히 들어앉은 사택마을을 지나 조용한 양지쪽에 꽃분이의 집이 자리잡고있었다.

옥임이가 나들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잠깐 섰는데 문이 방긋이 열리면서 꽃분이가 얼굴을 빠끔히 내밀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옥임을 바라보더니 방긋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꽃분이 잘 있었나요?》

옥임이는 꽃분이의 볼을 다독여주고 나들문안으로 들어섰다. 썰렁한 기운이 풍겨왔다. 오래동안 비워두었던 집에 들어온듯만싶었다. 그는 부엌과 방안에 눈길을 주었다.

빛을 잃은 부뚜막의 타일들, 여기저기에 마구 놓인 부엌세간들, 먼지오른 창문들... 구석구석에서 거칠은 남자의 손길이 느껴졌다. 옥임이는 꽃분이의 작은 손을 꼭 감싸쥐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방안의 창문가에 놓인 경대우에 곱게 수놓은 레스장식이 유독 표나게 옥임이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천천히 그앞으로 다가섰다.

경대우에 놓인 작은 사진들에는 어린 꽃분이를 가운데 앉히고 다정히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다.

꽃분이의 조용한 눈매의 너인이 옥임을 마주보고있었다. 꽃분이가 그림종이우에 되살리려 애썼던 젊은 너인이었다.

《꽃분이 꼭 어머니를 닮았군요.》 옥임이의 말에 기쁜 모양으로 꽃분이는 방그레 웃음지었다.

문득 한쪽의 그림이 옥임이의 눈길을 끌었다. 액틀에 끼워진 수예품이었다. 연미색의 비단천우에 복스럽게 생긴 어린애가 첫걸음을 떼는데 그앞에서 젊은 너인이 두팔을 벌리고 아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밑에는 《어서 오너라 꽃분아 !》라는 글줄이 새겨져있었다.

오동보통한 두팔을 벌리고 엄마를 향해 첫자욱을 떼는 아기의 꼭 웅쳐문 입술, 두팔을 벌리고 긴장하게 아기를 바라보는 너인의 웃음띤 얼굴모습앞에서 옥임이는 눈길을 땔수 없었다.

이 한쪽의 그림은 방금 느꼈던 썰렁한 방안의 기운을 금시에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이 한쪽의 수예품에 담긴 너인의 모습을 꽃분이가 것처럼 옮기고싶어 종이마다 안타깝게 그려보았던것이다.

옥임이는 다시 한번 수예품을 바라보았다.

《용타 ! 어서 오너라.》 금시 이새에서 이런 부름이 튀어나올듯 방긋이 열린 너인의 입술과 얼굴표정은 참으로 생동하였다.

옥임이는 아기의 첫걸음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너인의 절절한 눈길을 마주보기가 괴로웠다.

(아, 내가 과연 저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꽃분이를

키웠던가.)

옥임이의 눈앞에는 문득 유치원의 알뜰한 침실이 떠올랐다.

꼭싹꼭싹한 침대우에 눈처럼 하얀 이불과 담요들, 화려한 무용실과 체육실 그리고 재미있는 그림책들이 가득 채워진 꼬마열람실, 교양원들의 따뜻한 손길...

그런데도 꽃분이는 어머니의 손길이 스며있는 이집이 그렇게도 그리워 일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곤 한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너의 작은 가슴에 깃들어있는 생각을...)

이윽고 그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저것 보세요. 어미니는 꽃분이가 제힘으로 장하게 걸기를 원하셨어요. 꽃분이는 훌륭한 그림을 그려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자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는 꽃분이는 차분히 젖어든 눈길로 옥임을 지켜보고있었다.

옥임이는 마음이 즐거웠다. 그는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머리수건을 가튼히 동여매면서 꽃분이를 밖으로 떠밀었다.

《자, 꽃분인 잠깐 나가 놀아요. 선생님이 집을 좀 거들테니.》

꽃분이는 자기도 옥임이처럼 옷소매를 걷어올리며 해죽이 웃었다.

《나두 할래요.》

옥임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안팎을 말끔히 털어냈다. 도배지를 바른 천정의 가장자리에는 꽃문양을 곱게 오려 떼까지 돌렸다.

꽃분이는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아이 고와라. 아버지가 빨리 왔으면...》

이때였다. 문소리가 들리더니 은석이가 전실에 성큼 들어섰다.

옥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자 은석은 깜짝 놀라는듯싶었다.

《아니? ! 선생님이...》

은석이가 몰라보게 달라진 부엌과 방안을 살펴보는데 꽃분이가 쪼르르 달려가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면서 왜 인제야 왔는가고 눈을 할끔 치며보았다.

은석은 감동어린 얼굴로 방안에 들어섰다. 어디를 보나 단란한 가정의 따스함이 스며있었다. 그는 무슨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는듯 옥임이의 웃음띤 단아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좋지요. 아버지 !》

꽃분이가 아버지를 쳐다보며 무등 즐거운듯 깔깔 웃어대었다. 그들도 마음이 즐거워 따라 웃었다.

《우리 꽃분이의 큰 웃음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보는구나.》

은석이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밖이 어두워지자 옥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꽃분이와 은석이도 따라 나섰다. 밤하늘엔 총총한

별들이 속삭이듯 반짝거렸다. 옥임이는 그만 들어가라고 했으나 꽃분이라도 은석이라도 아쉬운듯 떨어질 줄 몰랐다. 옥임이가 간신히 꽃분이를 달래며 보내려는데 문득 꽃분이가 입안의 소리로 속삭이었다. 미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옥임이는 허리를 굽혀 꽃분이의 얼굴에 귀를 기울이었다.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꽃분이.》

옥임이를 찬찬히 바라보는 꽃분이의 머루알같은 까만 두눈에는 서운한 기색이 한껏 어려있었다.

《아니예요. ...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리고는 울음을 참는 모양으로 작은 입술을 싹룩거리었다. 선생님과 헤어지기가 서운한 모양이었다.

옥임은 자기에게로 열린 꽃분이의 마음에 움튼 정을 보는것 같았다. 무한한 행복이 가슴속에 한가득 차올라 그는 꽃분이의 따스한 머리를 쓸어주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두볼을 어루만져주고 부름한 하늘가에는 별들이 기쁨에 겨운듯 조용히 웃고 있었다.

4

봄이 왔다.

나무아지들에 파아란 움이 트고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었다. 숲속에는 여러가지 꽃들이 피어나 무지개빛으로 아롱거렸다.

손들을 맞잡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들이 우짖는 산으로 오르고있었다. 그뒤로 아이들의 부모들이 따라섰다.

푸른 하늘에는 해님이 웃고
온갖 새 숲속에서 노래불러요
라라라라 착한 동무들
붉은 별 자랑하며 들놀이가요

대렬의 맨 앞에는 꽃분이의 손목을 잡은 옥임이가 걷고있었다.

《조심해요. 천천히-》

잠시도 곁에 붙어있지 않는 꽃분이가 걱정되어 옥임이는 가슴을 바재였다.

알고보니 꽃분이는 웃음이 많고 명랑한 아이였다. 이젠 아이들과 곧잘 섞였었다.

오늘 아침이었다. 유치원의 술한 아이들이 저저마다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손목에 이끌리어 산놀이를 떠나자 꽃분이는 옥임이의 팔에 매달리며 응석투로 졸랐다.

《빨리 가요. 선생님! 우리가 맨 선참 떠나자요!》

이윽고 옥임이가 밤을 새워가며 만든 딸기빛의 나리웃을 입고 분치장을 곱게 한 꽃분이가 선생님과 함께 대렬의 앞에 서자 아이들이 소곤거리었다.

《야, 곱네.》

옥임이는 수집계 방굴거리리는 꽃분이를 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었다...

원아들의 대렬은 산놀이에 맞춤형 평평한 등성이에 멈추었다. 웃고 떠들며 뽀뽀는 아이들로 하여 골짜기는 떠나갈듯했다.

옥임이는 풍치 좋고 아늑한곳으로 꽃분이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그림종이와 붓들을 꺼내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꽃분이,》 이제 유희가 시작돼요. 그때까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랜만에 산에 올랐는데...》

도에서 열리는 유치원어린이들의 그림전시회가 가까와올수록 옥임이의 관심은 펴 다심해졌다.

꽃분이는 반겨 그림종이를 받았다.

끝없이 푸른 하늘, 아지랑이 피어나는 넓은 들 그리고 눈아래 펼쳐진 유치원과 아담한 마을 지저귀는 새들과 떠가는 뭉게구름, 은하강의 파아란 물, 이 모든것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옥임이는 열심히 연필을 놀리는 꽃분이를 지켜보았다. 종이우에는 벌써 아담한 2층집 유치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창문마다 햇빛이 자글자글 뛰노는 저멀리 유치원의 창문을 바라보던 옥임이는 아래층 세번째 유리창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안에 꽃분이의 정든 보금자리가 있다. 그에게 웃음을 주고 노래를 주고 재간을 키워주는 요람이었다. 그 보금자리에서는 언제나 살뜰한 목소리와 정다운 웃음소리, 그리고 다정한 손길이 꽃분이를 기다려준다.

문득 옥임이에게는 꽃분이를 담임한 날부터 오늘까지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삼삼히 밝혀왔다.

그는 열심히 붓을 놀리는 꽃분이를 바라보며 정겨운 음성으로 말했다.

《꽃분이, 그림을 그릴 때 손재간만 피울려고 해서 안돼요. 알겠지요?》

꽃분이는 머리를 까닥거렸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옥임이는 앞줄 세번째에 서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는 꽃분에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 앞쪽 오십미터 남짓한곳에 골쪽지들이 놓여있다. 아이들이 달려가서 거기에 써있는데로 빨리 동작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첫번째 줄에 섰던 아이들이 달려나갔다.

와!- 하고 함성이 터지고 요란한 박수갈채가 터졌다.

어떤 아이는 눈을 싸매고 뛰어왔고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끌며 뛰어들어오는 아이도 있었다. 또 다른 아이는 미국놈을 그려놓은 허수아비를 먼바로 후려쳐서 박수를 받았다.

이윽고 꽃분이의 차례가 되었다. 꽃분이는 작은 가슴을 울렁이면서 계주선앞에 나섰다.

옥임이가 조용조용 타이러주었다.

《넘어지지 말아요. 침착하게 뛰어야 해요.》

호르륵! 신호와 함께 꽃분이는 작은 발을 힘껏 차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오동통한 두발이 날렵하게 엇바뀌었다.

옥임이는 긴장한 눈길로 꽃분이가 종이를 펼쳐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꽃분이는 자리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웬일인가?)

옥임이는 바재이며 안타까운 눈길로 꽃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와와 들려왔다. 벌써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이도 있었다.

옥임이는 마음이 조금해졌다. 꽃분이의 허둥대는 모습이 눈에 띄우자 옥임이는 용기를 내라고 손을 흔들어주었다.

드디어 꽃분이는 날듯이 달려가더니 잠시후에 한장의 그림을 들고 사람들앞에 나섰다. 그리고는 경기를 지휘하는 선생님에게로 곧바로 달려갔다.

그러자 선생님이 큰소리로 알리었다.

《김꽃분어린이가 이런 쪽지를 가졌습니다. <제일 좋아하는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꽃분어린이는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짜르르 터졌다.

모두 호기심이 잔뜩 동한 눈으로 꽃분이의 그림 종이를 쳐다보았다.

옥임이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어깨너머로 꽃분이가 쥐고있는 그림을 호기심어린 눈길로 지켜보았다.

마침내 꽃분이는 그림종이를 번듯하게 펴들고 사람들쪽으로 높이 쳐들었다.

낮잡자는 어린이, 그결에서 그림종이를 손에 쥔채 웃고있는 너선생, 가웃이 들여다보는 한마리의 작은 새...

그림 밑에는 《우리 선생님》이라고 써여있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다. 너무도 생동하고 신통한 그림앞에서 감탄소리가 연해연방 터졌다.

《꽃분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 그리는줄은 미처 몰랐군요. 이것봐요. 웃는 얼굴, 이마에 드리운 머리칼까지 옥임선생모습이 틀림없군요.》

꽃분이의 그림은 손에서 손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의 어깨너머로 피곳피곳 옮겨졌다.

웃음소리, 감탄소리, 칭찬소리에 옥임이는 머리가 펴 도는듯싶었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걷고 또 걷고싶었다.

그의 머리우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봄꽃들이 방긋방긋 웃어주었다.

5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은하강기슭에 이르자 옥임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파아란 하늘가엔 솜뭉치같은 흰구름이 피여있고

강기슭에 뿌리내린 살구나무는 꽃필 시각을 다루고 있었다.

그는 저멀리 유치원을 바라보았다. 일요일이어서 유치원은 고요속에 묻혀있었다. 그는 손에 쥔 트렁크를 땅에 놓았다. 그리고 강북판으로 아담하게 건너간 은하강다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다리를 건너 도소재지로 가는 길이 곧바로 뻗어있다. 아이들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건너다닌 다리였다. 속이 상해서 건너가고 희망을 안고 건너오던 정깊은 다리였다.

그러던 그 길이 이렇게 끝날줄은 몰랐다. 옥임이는 도에 소환되었던것이다.

생각하면 옥임이가 어린것들을 키우는데 일생을 바치자고 속다짐하며 이 은하강 다리를 처음으로 건너간것이 5년전이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연과 사랑을 남기고 이 다리에 이른것인가.

정녕 두고온 모든것을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도 모진 아픔이 그의 가슴을 조였다. 이제는 정이 들어서 잠시도 결에서 떠나주지 않는 꽃분이와 술한 어린이들이 옷자락을 부여잡는것 같아서 차마 걸음을 옮겨디딜수 없었다.

저멀리 어데선가 짹짹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시름겨운 옥임이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다.

(꽃분이는 내가 떠난것을 알면...)

마음이 저릿해지면서 눈물이 펴 고였다.

그의 눈앞에는 얼마전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 옥임이는 한껏 부풀어오른 마음으로 꽃분의 집으로 가고있었다.

도적인 어린이들의 그림전시회에서 꽃분이의 그림은 전문일군들의 커다란 평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옥임이의 세심한 지도와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로 되었다.

여기에 기울인 은석의 노력도 컸다.

그의 생활도 꽃분이의 두볼에 피어나는 생기와 함께 꽃피는듯하였다.

이 피정은 그에게 있어서 한갓 귀여운 딸애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앞에 지닌 공민적의무감을 간직하는 귀중한 나날이기도 했다.

옥임이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고 그때면 자기 일에 대한 긍지감과 함께 가슴속에 젖어드는 이름못할 그윽한 감정에 휩싸이곤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옥임이가 은하강다리목에 들어섰을 때였다. 저쪽 다리우로 들꽃뭉음을 한아름 안은 꽃분이가 었어질들 뛰여오고있었다.

《선생님 !》

《꽃분이 !》

옥임이는 마주 달려갔다. 꽃분이는 옥임이의 앞에 이르자 향기로운 들꽃뭉음을 그의 가슴에 안기었다.

《꼭지요. 선생님에게 드릴려고 꺾었어요. 난 선

생님이 꼭 오실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지요머.》

그리고는 만족한듯 해해 웃었다.

그날 옥임이는 꽃분이를 데리고 시험생산에 여념이 없는 은석이를 위해 점심식사를 마련해가지고 공장으로 찾아갔다.

은석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성실하고도 순박한 그를 돕고싶은 옥임이었다.

공장정문에 이르자 옥임이는 밥보자기를 꽃분에게 쥐여주며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등을 떠밀었다.

은석이는 뜻밖에 나타난 딸애와 밥보자기를 번갈아 보기만하다가 그를 추석 안았다.

《이건 누가 보냈니?》

《선생님이...》

꽃분이는 아버지 목에 매달렸다.

《너 이젠 선생님 속을 태우지 않겠지?》

《아니...》

딸애는 머리를 살래살래 저었다.

《선생님은 내가 옷을 때 제일 기뻐하시는데 뭐.》

《그래...》

《아버진 왜 그래, 우나? ...》

《너의 선생님은 참 좋은분이다...》

《해해...선생님이랑 함께 왔는데.》

《?!》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은석이는 당황한듯 허둥거리며 꽃분이를 내려놓았다.

꽃분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한켠에 서서 생글 생글 웃었다.

지금도 옥임이의 귀전에는 꽃분이의 그 명량한 웃음소리가 쟁쟁히 들리는듯싶고 은석이의 진정이 어린 타는듯한 눈빛이 미쳐오는것만 같았다.

옥임이는 지긋게 달라붙는 피로운 생각을 털어버리려는듯 역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역이 가까와올수록 옥임이는 정든 마을의 들길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역기다림칸은 텅 비어있었다. 열차가 방금 들어온 시간이었어서 손님들은 이미 역구내로 나간 뒤였다. 옥임이는 황황히 차표를 사가지고 역구내로 나갔다.

그는 흠에 서서도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마을 쪽을 줄곧 바라보았다.

(아, 정말 이렇게 떠나고 마는구나.)

마음이 허전하고 눈앞이 뿌릿해왔다.

이때였다.

《선생님 ! -》

쨍쨍한 부름소리에 옥임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역사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차표찍는곳으로 총알처럼 뛰어나오는 꽃분이의 빨간 리본이 눈에 띄었다.

《아, 꽃분이 ! 》

그는 금시 터질듯싶은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황급히 맞받아 뛰어나갔다.

《선생님 !-》

달려오던 꽃분이가 그대로 옥임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뒤따라나온 은석이가 그늘진 얼굴로 옥임을 마주보며 서있었다.

꽃분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그는 옥임이의 팔을 잡아흔들며 다급히 물었다.

《선생님, 어디 가나요? 아버지가 선생님이 먼곳에 가신됐어요. 거짓말이지요. 네? !》

옥임을 쳐다보는 꽃분이의 얼굴은 애처롭게 질려있었다.

저센 숨을 몰아쉬는 은석이의 얼굴에도 서운함이 한가득 실리였다.

옥임이는 안타까운 생각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꽃분이의 머루알같은 두눈이 옥임을 겁에 질려 지켜보고있었다.

《잘 있어요... 그림공부를 잘해요...》

옥임이는 목이 메어 더 말할수가 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는데 꽃분이가 왕- 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싫어요. 나두 갈래요.》

옥임이는 더 참을수 없는듯 꽃분이를 와락 껴안았다.

《울지 말아요. 꽃분이가 울면 선생님도...》

《싫어... 싫어...》

꽃분이는 발버둥칠졌다.

이때 열차가 서서히 역으로 들어섰다.

붐비던 사람들이 차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꽃분아, 그럼 못쓴다.》

은석은 옥임이에게 어서 오르라고 재촉했다.

순간 꽃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가지 마.》

꽃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은석이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아버지, 선생님을 못가게 해줘요. 아버지-》

열차가 기적을 울렸다. 열차원처녀는 호각을 입에 문채 차마 불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옥임이는 금시 터지려는 오열을 가까스레 누르면서 열차에 간신히 몸을 실었다. 열차원이 나직이 호각을 불었다.

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옥임이는 찢기듯한 마음으로 울고있는 꽃분이를 바라보았다.

《꽃분이, 잘 있어요.》

순간 꽃분이의 자지러진 웨침소리가 옥임이의 가슴을 산산이 찢어놓았다.

《가지 마!- 가지 마!-》

꽃분이는 울면서 달음질쳤다. 옥임이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려는데 두손을 활짝 벌린채 기를 쓰고 려차를 따라 달리었다.

《저걸 어찌나...》

《저런...》

술한 사람들의 놀린 소리와 함께 달음치던 꽃분이가 그만 어푸러지면서 애처롭게 소리질렀다.

《엄마야! -》

옥임이의 눈앞에서 수천수만개의 불씨들이 춤을 추듯했다.

《아!-》

그는 잡았던 승강구의 손잡이를 맥없이 놓으면서 열차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황황히 달려오던 은석이가 비칠거리는 옥임이를 가까스레 붙잡았다. 꽃분이가 옥임이의 품에 뛰어들며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엄마야! -》

《꽃분아! -》

꽃분이의 눈에서 두줄기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꽃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옥임이의 가슴에 깊숙이 파묻으며 흑흑 흐느끼고있었다.

《가지 마- 가지 마-》

중얼거리는 꽃분이의 흐느낌소리가 옥임이의 온몸을 칭칭 휘감는듯하였다.

옥임이는 꽃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흐트러진 머리를 벗어주었다.

꽃분이는 순간도 옥임이의 얼굴에서 눈길을 땔줄 몰랐다. 어떤 무서운 일이 또 생길것만 같아서인지 옥임이의 한쪽팔을 꼭 부여잡은채 놓을줄을 몰랐다.

옥임이는 웃으면서 꽃분이의 불을 다독여주었다.

《자, 이제 가자요.》

꽃분이는 불안한 눈길로 옥임이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딜 가나요?》

꽃분이의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옥임이는 멈추어섰다. 진정되었던 가슴이 또다시 세차게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정말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그는 역사너머로 보이는 낮익은 유치원과 저멀리 꽃분이의 집이 자리잡은 아담한 마을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쩐지 어릴적부터 들춰며 자랐고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이 깔려있는 정든 고향마을처럼 느껴지는것이었다.

그는 은석이를 돌아보았다.

은석은 황황히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옥임은 그의 심장의 울림소리를 듣는듯했다.

은석이는 소심하게 묻는듯싶었다. 어디로 가는가고?

어디로 갈까? 정말 어디로-

옥임이의 눈앞에는 불현듯 떠오르는 한 녀성의 얼굴이 있었다.

우리 시대가 높이 자랑하는 한 녀성연구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한개의 종자를 위해 자기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꽃분이의 행복한 삶과 그의 미래를 자기와 결부시킨다는것은 얼마나 기꺼운 일인가. 꽃분이와 그의 부모에 대한 애정은 이미 자기 가슴속에 간직되어 굳건한것으로 되었음을 이 순간 옥임이는 기쁨속에 자감했다.

옥임이의 온몸은 크나큰 격정에 짜릿해졌다.

그는 와락 꽃분이를 그러안았다.

《가자.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처음에는 울롱해졌던 꽃분이의 눈이 점차 기쁨으로 활짝 빛났다.

《야, 좋네.》

그리고는 손뼉을 치며 옥임이와 은석이를 잡아끌었다.

《빨리 가요, 빨리요.》

꽃분이의 손에 이끌려온 옥임이도 은석이도 다 같이 눈물을 지었다. 그들은 말없이 뜨겁고 다정한 눈길을 주고말았다. 그러자 세찬 심장의 박동소리가 그들의 온몸에 전류처럼 퍼져나갔다.

옥임은 먼 하늘가로 눈길을 보내었다.

하늘가 저멀리로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예고있었다.

푸른 하늘, 푸른 들, 그속에서 꽃피는 술한 꽃분이들... 아,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창창한가.

옥임은 온몸에 힘이 끊어넘치는것을 느끼었다.

꽃분이의 쟁쟁한 노래소리가 끝모르는 푸른 하늘가로 높이도 날아오른다.

곱게곱게 피라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원수님 노래불러요

라라라라 어깨 나란히

행복동이 모두다 집에 가자요

만발한 살구꽃들이 웃음짓고있었다.

송미사대주의사상과 분렬주의를 고취하는 남조선의 부르쥔아반동문학

장영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둘로 갈라진지 벌써 40년이 된다.

지난 40년간 이 땅의 북과 남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참으로 판이한 길을 걸어왔다. 우리 공화국북반부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인민의 나라로, 온 누리에 주체의 빛발을 뿌리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지만 남반부는 여전히 미제의 식민지로, 사대매국노들이 살판치는 군사파쑸통치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고있는 남조선피괴도당은 최근년간 대세의 흐름과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에 못이겨 마치도 대화와 협상에 그 어떤 관심이나 있는 듯이 떠돌고있지만 사실은 대화를 미끼로 시간을 끌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지반을 닦자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지난 년초에 전두환역도가 허황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21세기의 미래상》이라는것을 펼쳐놓으면서 2000년대에 가서야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신기원》이 열릴수 있다고 지껄인것은 바로 이놈들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기는 통일에 대한 지향을 눅갯혀놓고 점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자는 속심을 드러낸것으로 된다.

남조선군사파쑸도당은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걸으려는 대화요 뭐요 하고 떠들지만 안으로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공대결의식》를 키우려고 더욱더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남조선피괴도당이 남반부인민들속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조성시키고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사상적공세의 하나는 문학을 통하여 송미사대주의사상과 분렬주의를 고취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남조선의 부르쥔아반동문학이 내돌리고있는 송미사대주의사상과 분렬주의의 정체를 똑똑히 밝혀내고 그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규탄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앞에 나선 과업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며 <반공> 사상을 뿌리뽑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송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의식을 뿌리뽑는것은 남녘땅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은 문화인으로서의 초보적인 량심마저 췌버리고 미제와 전두환피괴도당의 대결로선에 추종하면서 남조선문학을 송미사대주의사상과 분렬주의를 고취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남조선에는 이미 아메리카니즘의 물결을 타고 실존주의와 프로이드주의 그리고 퇴폐적인 모더니즘으로 불리우는 각종 형태의 반동적인 부르쥔아 문예사상과 문학조류, 그 류파들이 쓸어들어와 사회주의의식형태의 하나인 문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병들게 하는 마약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부르쥔아 반동문학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대결정책을 선전하는 시너로 굴러떨어짐으로써 그 반동성이 더욱 악랄한 형태를 띠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쥔아문학이 나타내고있는 반동성은 우선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한 장본이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침략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을 《선량한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미국이 마치도 그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는 《구세주》나 되는듯이 외곡선전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공》선전의 돌격대로 미쳐 날뛰고있는 남조선의 반동작가 모운숙이라는녀은 삼지 《동서문화》 1982년 8월호에 준 글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에서 《미국은 티끌만한 욕심도 없는 나라》이고 《남을 잘 도와주는 나라》라고 엉터리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남조선이 미국을 떠받드는 식민지로 된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느니 어쩌니 하고 비굴하게 떠벌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적량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사대매국노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드러낸 추태가 아닐수 없다.

오늘 전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한결같이 규탄하고있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피압박인민들의 독립을 교살하는 침략자이다. 최근년간에만 하

여도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레네이더의 자주권을 야수적으로 짓밟고 이 작은 섬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으며 혁명적인 니카라과를 요람기에 교살하려고 대규모적인 무력간섭을 공개적으로 준비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미제는 또한 이스라엘복고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레바논과 수리아를 반대하는 무력간섭을 공공연히 감행함으로써 레바논을 폐허로 만들고 팔레스티나인들의 정당한 위업이 엄중한 시련을 겪게 만들었다. 실로 아시아와 중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벌려놓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말살하며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의 침략적죄행을 헤아리자면 끝이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교살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위선적인 《원조》의 간판밑에 식민지에 속국가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경제에 침투하여 그 명맥을 틀어쥐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시키고있으며 부등가교환에 의한 원료, 연료, 자원의 략탈로써 엄청난 리득을 보고 있다. 미제는 지난 40년간 남조선에서만도 식민지적경제지배체제를 통하여 막대한 자원을 략탈하여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티끌만한 욕심도 없는 나라》라고 추어주고 미국놈들을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떠받드는것은 이 반동작가가 사실을 외곡하면서까지 미제침략자들앞에서 아양을 떠는 너절한 친미분자라는것을 실증해줄 따름이다.

사실 반동작가 모운숙은 일제시기에는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영원성》을 설교하면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지향과 고상한 도덕적품성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시들을 쓰다가 8.15이후에는 랑심의 가책도 느낄 사이없이 재빨리 새 상전인 미제침략자들에게 가붙어 아양을 떨면서 미제의 남조선강점이 영구화되기를 애원하는 갖은 추태를 다 부리었다. 이 반동작가가 얼마나 친미분자로 날뛰었으면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귀여운 앵무새》라는 《칭찬》을 듣고 《사회활동가》라는 《영예》까지 받아안았겠는가. 그런데 이 반동작가는 늙어빠진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친미분자로서의 본색을 고치지 못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병들게 하는 무수한 죄악을 저지르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을 《하느님》처럼 떠받들면서 몇푼의 딸라를 얻어먹고 꼬리를 치는 남조선의 반동작가 김석야라는자는 8년동안에 미국에 다섯번씩 오가면서 장편소설 《미국돈 중 만져봅시다》를

써서 세상에 내놓았다.

이 소설은 미국으로 건너간 조선사람이 딸라를 벌기 위하여 여러곳을 찾아해매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약소민족의 재부와 피를 짜내어 살진 미국의 거리들을 돌아다니는 주인공이 점차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에 물젖게 되는것을 그린 작품이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이 이런 작품을 계속 써내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짐으로써 반미자주화를 위한 구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그 악랄한 목적을 두고있다. 그것은 이 소설을 쓴 작가 자신이 남조선의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미국류학을 꿈꾸》도록 하자는데 그 창작동기가 있었다고 실토한데서도 잘 실증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절대다수 인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회의 민주화는 결코 미제의 식민지적지배가 존재하는 한 이루어질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 일어났던 영웅적인 광주민중봉기가 무참히 짓밟힌것도 구경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의 직접적인 지령에 의한것이였다. 따라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성취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의식을 가지고 미제침략자들과 맞서 견결히 싸우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은 이와 같이 숭미사대주의자로 전락된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대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는 장본인인 미제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는 작품을 계속 써냄으로써 천추에 용납못할 사대매국노로서의 죄행을 저지르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작가 김용성이라는자도 소설 《도독일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던 주인공이 미군기치촌에 찾아가서 구두담이를 하다가 어느날 거기 물건을 가지고 달아났었는데 미군이 그것을 보면서도 주인공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제침략군을 마치도 《선량》하고 인정깊은 《신사》처럼 추어주었다. 일자리와 배움의 길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남조선의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런 불행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원인은 파헤칠 대신 자기 거래를 《저렴한 인간》으로 멸시하고 미제침략군을 《신사》로 떠받드는 작가의 비굴한 태도는 민족적자존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될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동문학계에서는 이 작품에 1984년도의 《현대문학상》을 수여하는 놀음까지 벌리었다. 이것은 남조선군사파썸도 당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자들이 남반부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지향을 야수적으로 가로막는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을 상전으로 떠받들고 미제에 의한 남조선사회의 예측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얼마나 책동하고있는가를 잘 보

여주고있다.

미제침략군은 남녘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자는것이 오늘 의 절박한 시대적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은혜로운 사람》처럼 묘사한 설레는 남조선의 반동작가 윤호영이라는자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중편소설 《췌주》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중편소설 《췌주》는 전쟁시기 부모를 잃고 갓은 고생을 다하며 떠돌아다니던 고아 한진우가 어른이 되어 한 음식점의 접대부와 결혼을 하고 딸까지 낳았으나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련행된 기간 처와 딸이 어디론가 떠나가버려 그후 혼자서 독한 소주(췌주)나 마시면서 타락한 생활을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진우가 어렸을 때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어느 한 부대 하사관에 의하여 미군부대에서 얼마간 생활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미군이 그를 심심풀이의 장난감으로 데리고 놀았으나 그런 내막도 모르는 주인공이 그 미군을 《고마운 아저씨》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것을 회상하면서 그 미군놈이 병역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따라가지 못한것을 못내 후회한다고 쓰고있다. 소설은 이런 묘사를 통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의거하고 그의 꼭두각시로 되면 《잘 살수》있지만 미군의 《관심》에서 벗어나 홀로 살면 불행하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숭미사대주의사상에서 벗어나면 마치고 모든것이 당장 무너질것만 같은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고있다.

오늘 우리는 자주성의 시대에 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지배를 물리치고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헤쳐나가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미제국주의자들을 《하느님》처럼 떠받들면서 미국놈들에게 빌붙어 그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숭미사대주의자들은 민족의 얼을 잃어버린 머저리들로서 마땅히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동문학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굽실거리면서 그놈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를 얻어먹는자들을 마치도 《시대의 전형》처럼 내세워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의 지배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미국놈을 《우상》처럼 숭배하도록 하는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류포시키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은 이와 같이 미국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는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있을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의 형제들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작품들도 꺼리낌없이 꾸며내고 있다.

지난해에 발표된 소설 《대륙관광열차》와 시

《울어라 종이어 !》를 비롯한 남조선의 《반공문화작품》들은 터무니없이 우리를 헐뜯고 우리에게 대하여 어찌겠다고 하는 망발을 지껄여댔으로써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대한 대결의식을 가지도록 꾀하고있다. 특히 시 《울어라 종이어 !》를 쓴 남조선의 반동시인 윤석호라는자는 군사분계선지역에 나와 철조망너머 우리쪽을 바라보면서 《자유》에 대하여 어찌구저찌구 지껄여댔는데 이것이야말로 양천대소할노릇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자유만 한마디로 말하여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주위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즉 자주성이 실현된 상태라고 말할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온것도 바로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요구는 본질에 있어서 순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집단의 요구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만일 사회적집단의 자유를 홀시하고 개인의 절대적자유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집단 전체의 자유와 리익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필연코 개인의 자유마저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오늘 미제의 강도적본성과 파렴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자유관은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싶으면 마는 식으로 살며 움직이는 사람의 활동을 《자유》라고 하면서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도 등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범죄의 길로 사람들을 부추기고있다. 제멋대로 살며 행동하는것을 《자유》라고 하는 부르조아적관점은 인간의 참다운 자유에 대한 모독이며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개나 돼지와 같은 생물체로만 보는 반동적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이 반동시인은 자유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있는 공화국북반부에 자유가 어쨌다스니 뭐니하며 우리를 감히 헐뜯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바론 말을 하였다 하여 야당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마구 탄압하고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는 량심적인 작가들을 감옥으로 끌고가는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파쇼독재정치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도 오히려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를 걸고들면서 무엇을 어찌겠다고 하는 비렬한 행위는 이자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너절한

사환군이라는것을 증명해줄따름이다.

또한 남조선의 반동시인 황금찬이라는자는 시 《진혼시》에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자작극인 버마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터무니 없이 날뛰면서 우리를 어찌겠다고 당치않은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은 이와 같이 숭미사대주의 사상과 복침야망을 퍼뜨리는 사이비문학작품들을 계속 써내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열망하는 나라의 통일에 대한 념원에 찬물을 끼얹는 반동적인 작품들도 계속 발표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좌우익세력들간의 류혈적인 살륙전을 비참하게 그려보임으로써 나라의 통일보다 오히려 분렬의 비극을 고정화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상을 류포시키는 작품들을 계속 창작하고있는것이다.

이미 몇해전에 발표된 장편소설 《계절풍》이 해방직후 부터 전쟁시기까지의 혼란기에 추곡로인을 비롯한 령남지방의 싹짓골사람들이 서로 싸워 비참하게 희생되는 과정을 랑담하게 보여줌으로써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지난해에 발표된 중편소설 《불망기》도 전쟁시기 락동강변의 한 마을에 인민군대와 피뢰군이 엇바꾸어 들어가는 바람에 동리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비참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것을 강조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불형제들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이런 작품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북돋아주는커녕 오히려 민족분렬의 비극을 고정화하는것이 더 낫다는 분렬주의사상을 퍼뜨리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남조선에서 분렬주의를 고취하는 문학작품들은 특히 최근의 현실을 그린 소설들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공문학》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써온 남조선의 반동작가 오영석이라는자는 지난해에 발표한 중편소설 《오작교》에서 《리산가족찾기운동》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과 분렬주의적립장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소설은 우영덕이라는 사람이 지난 전쟁시기 사리원에서 헤어진 누이의 생사여부를 물라 속을 태우다가 그가 경상도 산골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알고 30여년만에 극적으로 만나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작가는 주인공 영덕이가 그토록 찾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누이를 만난 자리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오히려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피로와하는 심리를 분석적으로 묘사하고있다. 그러면서 작가는 바로 그러한 감정은 오래동안 떨어져사는 인간들이 지닐수 있는

보편적인 심리라고 쓰고있다.

작가의 이런 주장대로 따르다면 북과 남에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재회도 추상적념원일뿐이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오히려 더 좋으며 나라의 통일도 열망뿐이지 사실은 분렬이 고정화되는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작가의 이 주장은 특히 주인공이 누이를 찾기전 군대에서 휴가를 받고 집에 온 아들과 술잔을 나누면서 주고받는 대화에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고 있는바 즉 그는 공화국북반부에 살고있는 사람이 비록 혈육이라 하더라도 결코 손을 잡을수 없는 원수로 된다고 떠들고있다

그런가 하면 우에서 레로 든 중편소설 《뽕주》의 주인공들인 진우와 민식의 대화에서도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절망감이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즉 그들은 나라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보상할길 없는 인간적부채와 복잡하게 엉킬 가정분규》, 칼부림 등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가 하는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통일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원한이 있거나 전쟁의 기억을 지닌 세대가 지나간 다음이라야 온당한 통일》로 될것이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운명이야 어찌되든 자신의 단일만을 꾀하는 분렬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겨레들간에 이어진 피줄은 민족의 징표를 이루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줄이 이어진 가족, 친척들의 그리움이 다 사라지고 전쟁의 기억을 지닌 현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것은 민족분렬의 간격을 그만큼 더 멀게 하자는것이며 나아가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전두환역도가 허황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21세기의 미래상》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마치도 2000년대에 가면 《평화와 통일의 신기원》이 열릴것처럼 떠들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을 억누르고있는 오늘 이 독재자의 녀두리에 맞장단을 치면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자고 하는것은 남조선의 반동문학이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자는 분렬주의자들의 선전도구로 전략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이 이처럼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분렬주의를 퍼뜨리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어용수단으로 리용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인 전두환피뢰도당의 책동과 관련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의 《문정과》와 《미국제교류처》(남조선에 주재하는 미공보원을 의미함)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

과 작가, 예술인들 속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체계적으로 주입시키고있다. 특히 《미국제교류처》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략을 지휘감독하는 기구로서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속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류포시키는 한편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에 미국 《문화원》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퇴폐적인 미국영화와 미국출판물들을 보급하고 있으며 반동적인 직관물전시회, 《강습회》, 《토론회》 등을 조직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세기말적인 미국식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고있다.

미제는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1981년 2월에는 전두환괴뢰역도를 워싱턴에 불러다가 종전까지 민간급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을 페뜨리던것을 《정부》급에서 계획적으로 류포시키기 위한 모의를 한 다음 그해 4월에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문화교류위원회》라는것을 내왔다.

남조선에 설치한 이 《문화교류위원회》는 남조선과 미국간의 문화교류전반을 《국가》적으로 조직지휘하는 기구로서 《인사교류》라는 명목밑에 남조선의 많은 작가, 예술인들을 미국에 끌어다가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불어넣어준 다음 다시 남조선에 들여보내고있다.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벌려놓고 남조선의 문화인들과 일반군중들속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을 퍼뜨리고있다. 1982년 5월에 미국과 전두환괴뢰도당이 크게 벌린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행사》가 그 실례로 된다.

남조선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류포시키기 위한 미제의 계획적인 책동에 의하여 지금 남반부의 적지 않은 작가들은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을 똑똑히 깨닫지 못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과 숭배사상에 사로잡혀 숭미공미사상과 분렬주의를 고취하는 반동적인 문학작품들을 계속 써내고있다.

남조선의 문학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의 통일을 멸망한다면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에 추종하는 하수인으로 될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똑바로 볼줄 알아야 하며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고 민족적 단합과 화해를 이룩하는데서 참다운 길동무가 될수 있는 량심적인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모더니즘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부패한 부르조아반동문학 사조와 류파들이 범람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량심적인 문학인들이 나라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특히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창작하려고 간고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난해에 발표된 남조선작가 강호영의 소설 《인맥》과 조완묵의 시 《이 땅, 아름다운 산》이 그 실례들중의 하나이다.

소설 《인맥》은 모진 병에 걸린 처녀 선영을 극진히 돌봐주어 그가 병을 고치도록 한 폭포마을의

철순로과 안동택의 형상을 통하여 분렬주의자들의 매국배족책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강렬하게 간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 전쟁시기 자기고장에 들렀던 인민군대의 대포를 날라주었다는 리유로 남편이 총살을 당하고 그자신도 부상을 당하여 지금도 신고를 겪고있는 안동택은 공화국북반부의 겨레들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시 《이 땅, 아름다운 산》의 시인도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처럼 순후하고 의연한 조국의 신발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 땅의 아름다운 산
여기 살고있는 백성들 얼굴처럼
언제나 다정하고 미더운 산
지금은 허리잘린 아픔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잇달아 줄기줄기 뻗어나갈
기다림 무성한 산을 본다

라고 함으로써 그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망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작가들은 이와 같이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와 분렬주의적책동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도 애국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필권을 박탈당하거나 감옥으로 끌려가 령어의 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있다. 그들은 점차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깨닫고 나라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고무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고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념원을 안고 험난한 투쟁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남조선의 진보적작가들의 투쟁을 멈출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문학을 건설하고있는 우리 전체 작가들은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분렬주의적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반동작가들의 부르조아문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의 진보적작가들의 량심적인 문학활동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 참가하여야 할것이다.

반와트의 전기를 두고

설진기

오늘아침 출근길은 매우 바빴다. 공장을 향하여 종종히 걸어가던 나는 갑자기 걸음을 똑 멈추었다. 고성기를 끄지 않은채 집에다 쇠를 잠근것이 생각났기때문이었다. 시계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던 나는 순간이나마 동요를 한 자신을 꾸짖으며 마침내 돌파서고야말았다.

만약 그 순간에 되돌아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온종일 량심의 가책을 받아 진정할수가 없었을것이다. 고성기를 끄지 않은채 놓아두면 내가 퇴근해 돌아갈 때까지 무려 5와트의 전기가 그저 없어지겠으니 까말이다.

5와트의 전기, 예전같으면 나는 (고좁한걸 가지고 뭘-)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도 있었다...

내가 한와트의 전기를 놓고도 대단하게 여기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느 한 농촌마을을 현지지도하실 때에 있던 이야기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은후부터였다.

력사적인 그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승용차로 농장길을 달리시다가 길옆에 보이는 한 농장원의 집에 들어가보자고 하시였다. 때는 한낮이었다. 사위는 고요한데 강건너 비탈밭에서 김을 매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멀리 바라보였다. 수령님 일행이 농장원의 집마당안에 들어설 때까지 방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다만 고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만이 울타리밖에까지 흘러퍼지고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부엌문에는 자물쇠가 잠겨져있는것이였다.

걸음을 멈추신 수령님께서서는 유감스러우신 기색으로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주인이 없는데 고성기를 끄지 않았구만-》

...

수령님의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나는 짝막한 그 말씀속에 깃든 깊은 뜻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였었다. 날이 가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하신 그 말씀속에 실로 크나큰 뜻이 깃들어있음을 가슴저리게 느낄수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다름아닌-전기가 허실되는것때문에

그처럼 유감을 표시하시였던것이다.

고성기에 드는 전력이 대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체신전문가들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고성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은 시간당 0.5와트라고 했다. 보다 좋은 고성기일 경우에는 0.25와트/시박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0.25와트, 해마다 수백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그것은 실로 태평양의 물방울에 비길만큼 적은 량으로서 무시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강대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크나큰 살림을 돌보시는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양의 물방울만한 전력의 허실에 대하여 결코 무심하지 않으셨다! 무엇때문에?!- 하고 자신을 향하여 물었을 때, 나는 죄스러운 감정에 뺨싸임을 어쩔수 없었다...

세상이 다 아바와 같이 전기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전기가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생각할수 없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것도, 우리모두가 바라는 고도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도 전기가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것도 전기가 있어야 실현되는것이다. 당면하게 채취공업, 철도운수, 금속공업부문에서의 성과도 전기가 있어야 달성할수 있는것이며 나라의 국방건설을 완성하는것도 전기가 있어야만 되는것이다. 참말로 우리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우리 공업의 모든 분야에서 전기가 하는 일이 좀 많으며 전기의 위력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좀 많은가! 도대체 전기가 없어야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할수가 있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은 공업과 인민경제의 주요동력입니다. 전력이 없이는 오늘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가리켜 공업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송전선은 공업의 혈관일것이며 전기는 공업의 혈액이라고 해야 할것이

다. 그렇다. 피가 없이는 생명을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전기가 없이는 부강한 조국을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내가 전기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느끼는 까닭은 이때문만도 아니다. 우리의 고마운 이 전기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전기인가?- 하는 생각속에 내 심장의 힘찬 뛰놀음이 있다. 나에게는 전기줄을 타고 흘러오는 보이지 않는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 흘러나온다고만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이 물이나 석탄의 힘에 의하여 생겨난다고만은 더욱 생각되지 않는다. 참말로 나에게는 우리의 품만한 이 전기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타고 흘러나온다고만 생각된다. 참말이지 우리 수령님이 아니었다라면 그 누가 오늘과 같은 강력한 전력공업을 창설할 수 있었겠는가 !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백두의 밀림속에서 벌써 그이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우리 나라의 어데 가나 깔려있는 금은보화를 캐낼 구상이며, 어데나 풍부한 수력자원을 개발하여 온 나라를 전기로 뒤덮을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었다.

조국이 해방된후에는 물론, 정전직후에도 그이께서는 파고철무지처럼 되어버린 발전소현장을 몸소 찾아주시어 발전소는 나라의 보배라고 하시며 발전소의 복구개건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그 위대한 보살핌을 어떻게 이루 다 헤아릴수 있으랴만 나는 그이께서 장진강발전소에 찾아오셨을 때에 있는 력사적사실 한가지만 듣고도 감격의 눈물을 짓게 된다.

-정전이 된지 석달밖에 안되는 때에, 폭탄구멍이 가 승승한 가파로운 산길을 뚫아 발전소어귀까지 친히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전쟁시기에도 굴함없이 송전을 보장한 노동자들을 치하하시며 변전설비가 들어있는데까지 몸소 들어가시였다.

전시에 급히 굴설한 그곳에는 천정과 벽으로 고압선이 줄줄이 늘어져있는데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감전될 위험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발전소 지배인은-

《수령님 ! 거긴 못들어가십니다. 위험합니다.》
하고 당황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이 드나드는곳인데 왜 못들어가겠는가고 하시면서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배전반이 설치되어있는곳까지 가시어 송전선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쳐야 돌아나오시였던것이다 !

노동자들이 일하는곳이리면 그 어떤곳이든 서슴지 않으시고 찾아가시여 현실을 정확히 료해하시고 명철한 교시를 주시는 우리의 수령님 ! 그이의 현명한 가르치심에 의하여서만 억년 드늬이 없을 이 땅의 모든 재부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닌가! 거대한 발전능력을 가진 평양화력발전소며 독로강발전소, 강제청년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서두수발전소, ... 바야흐로 건설되고있는 태천발전소... 이 모든 것이 수령님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그이의 품속에서 태어난것이다 ! 그이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중소형발전소들이 수많이 건설되었으며 공화국방방곡곡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땅,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집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날 어유등잔불마저 없어 술장불밑에서 바늘귀를 꿴느라고 눈을 쪼프리군하던 우리의 할머니들이 오늘은 눈부신 형광등밑에서 《로동신문》을 펴들고 있으며 집집의 텔레비죤앞에서는 남녀로소가 오붓 오붓 모여앉아 온 나라, 온 세계를 구경하며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행복한 우리들의 생활을 위하여 항일의 20여성상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신것이며 위험을 무릅쓰시고 고압선이 늘어져있는곳으로 들어가신것이며 0.5와트/시의 전력에 그토록 마음쓰신것이다.

우리들이 이것을 잊고 전기를 함부로 낭비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은덕을 배반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고성기에서 허실된 반와트의 전기를 두고 내가 죄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고 함은 바로 이때문이었다.

나의 머리속에는 백두밀림속에서의 위대한 구상, 고압선이 늘어진 굴속의 위험한 길, 빈집에서 울려나오는 고성기소리가 다시금 더듬어진다.

4월의 명절을 맞이한 조국의 거리거리는 화려한 옷을 펼쳐입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물결을 이루고 설레인다. 이 모든 사랑과 행복이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

아아 ! - 반와트의 전력- 이것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다.

전기-그것은 곧 사랑이며 행복이다.

전류-그것은 힌갓 전자들의 흐름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뜨거운 은덕의 흐름인것이다 !

내 마음은 너

로준숙

아침이면
노을빛에 어리어
억만구슬로 뿌려지고

낮이면
쌍무지개 곱게 비껴실고
광휘로운 빛발속에
황홀하게 솟구치는 너

붉은기 폭은 아닌가
주체사상탑의 붉은 노을에 물들어
하늘가에 나래치는 너
이 세상 끝에 간들 아니보이라
솟고솟구치는 너의 세찬 퍼덕임

장엄하구나
푸른 강에 뿌리를 두고
쉽없이 솟구쳐오르고오르는
대동강의 쌍분수
마름없는 열정의 샘이여!

자주의 새세계를 펼치는
지구의 중심에 솟아
인류가 나아갈 길 밝히는 주체사상탑
가장 아름답고 황홀하게 떠받드는 너

아, 내 마음의 나래도 퍼주는 너
원이 없으리
성스런 주체위업 받드는 길에
이 한몸 작은 물방울로 흠어진대도

은방울꽃뿌리

리춘희

아름답고
향기 그윽해
이 땅에 피는 꽃 많고많아도
이 꽃이 더욱 좋다 하시던
아버이장군님 그 웃음을 못잊어

외국방문의 머나먼 길
이어가시는 장군님
돌아오시는 그날에 피워드리리라
어리신 우리의 지도자동지
화분에 떠올기신 은방울꽃뿌리

소슬바람 불어와도
창가에 눈송이 내려쌓여도
장군님 기쁨만을 위하시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마음속에
깊이 내린 은방울꽃뿌리

장군님 따르며 변함이 없는
인민의 마음처럼 향기 풍기라고
장군님 받들어 드림없는
조선의 의지처럼 뿌리내리라고

눈덮인 산비탈
츠렁바위 넘고넘어
한줌 한줌
정히 안고오신 흙도 덮어주시며
온 나라 인민의 하나같은 마음
다 덮어 자래우신 은방울꽃뿌리

아, 그날에 가꾸신 은방울꽃뿌리
눈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뿌리내리고
천년가도 만년가도 흔들림없을
충성의 꽃뿌리여
조선의 꽃뿌리여

젊어지는 나날에

럼기형

내 나이 몇이나고
묻지 말라
머리 흰 나더러
일손을 놓으라고 권하지도 말라

젊고 놀음을
나이로만 세인다더냐
먼길 빨리 걷는 젊은이들 어이 당하랴만
내 어찌 걷던 길 쉬이 멈추랴
세월의 흔적이 머리에 어렸다고
마음에도 흔적이 생기랴
세월의 나이는 앞으로 헤어도
마음의 나이는 뒤로 헤이거니

벽돌 한장 더 쌓고싶고
집 한채 더 짓고싶어
늙어도 바쁘게 살면
나날이 젊어지는것인가

내 정작 높은집 처마끝에서

허리바를 풀어놓는다 하면
영영 내 삶은 끝나고말리니
마음의 뜻 영원히 변치 않을 때
삶이여 얼마나 보람찬것이나

오래 살아 숨쉬는 나이
인생의 락이더냐
사랑하는 조국앞에
마음을 보태고 생각을 합치며
힘껏 드는 무게를 느낄 때
사람의 참된 삶이 있어라

아, 품안아키워주고 손잡아 이끌어준
그 은혜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

아, 내 손에 열을 쥐고
늙어도 바쁘게 마음뛰니
젊어지는 나날에
힘껏 청춘의 피 끓이며 살리라